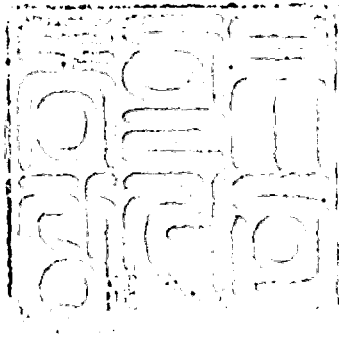


'99 학생 통일 글짓기대회 입상 작품집

내 마음속의 통일바라기꽃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 간 사

우리의 유람선이 금강산으로 관광객들을 실어나르고 있고, 우리의 연예인들이 북한땅에 가서 공연을 하는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통일 환경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며,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1세기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매년 전국 북한관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학생통일글짓기대회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통일과 안보문제를 200자 원고지에 묘사해 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도 전국 7개 북한관(경남, 부산, 광주, 제주, 인천, 청주, 오두산)에서 초중고생 총 1,542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학생통일글짓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대회에서 입상한 시와 산문들을 이렇게 작품집에 엮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작품집의 작품내용 중에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간절한 통일의 염원을 담아 낸 작품이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통일관이 정립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하루속히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작품집이 어린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소망을 마음껏 표출하는 한마당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1999년 12월

통 일 교 육 원

차 례

시 부문

초 등 부	우리의 소원은 통일/김유정 -----	11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박혜선 -----	13
	기차/박징원 -----	15
	할머니/김은혜 -----	17
	내 마음속의 통일바라기꽃/송은혜 -----	19
	통일지도/강지희 -----	21
	우리 할아버지 고향/곽진경 -----	23
	징신 바짝 차리래요/이경주 -----	25
	둘이 함께/김한걸 -----	27
	우리 마음속에 핀 사랑의 꽃/이혜민 -----	29
	새야/이은지 -----	32
	잠자리야, 넌 아니?/마영훈 -----	34
	쌀 한 자루에 담긴 소망/이순호 -----	36
	통일이 되어/조지숙 -----	38
	통일을 기다리며/조지숙 -----	39
	어느 할머니의 슬픔/조지숙 -----	40
	북녘 하늘에 핀 무궁화/황유신 -----	42
	무궁화/조승현 -----	44
	무궁화/황혜경 -----	47
	무궁화/박보람 -----	49
	하나가 되는 순간/박지화 -----	51
	통일/이승미 -----	53
	통일이 오면/정빛나 -----	55
	조금만 참으렴/김현애 -----	57
	통일을 부르며/문양미 -----	59
	할머니의 눈물/윤여준 -----	61
	통일이 되면_/진민경 -----	63
	이젠 끝내겠습니다/오새미 -----	66

시 부 문

중 등 부	한마음 통일/임나진 -----	68
	직녀의 꿈/이여진 -----	69
	붉은 봉숭아/정보경 -----	72
	그 날이 오기를/이다혜 -----	74
	금강산 가는 길/차유승 -----	76
	꽃제비 친구에게/전나리 -----	78
	기도/박재성 -----	80
	함께/박재현 -----	81
	한 마리의 새가 되어/신선경 -----	83
	내 눈물의 까닭은/김지은 -----	85
	통일에 초록빛 바람/김상욱 -----	89
	님의 약속/이 국 -----	91
	칠마의 소원/차민석 -----	94
	기다림/최자랑 -----	97
	금강산/우신혜 -----	99
	금강산으로 가는 길/류기연 -----	100
	이천사년 금강산/황정빈 -----	103
	변화없는 금강산/오상호 -----	105
	그것 뿐이에요/서미연 -----	107
	언제부터였던가/김연주 -----	109
	그 날이 오면/신은정 -----	111
	할머니의 꿈/신슬림 -----	113
	그들은 소망합니다/징소이 -----	115
	철모/문미현 -----	117
	새 천년의 소원/박미경 -----	119

시 부문

고 등 부

너와 내가 만나다면/정나연	121
북녘하늘의 비/김지혜	123
하루살이/한해림	124
친사의 손/장지원	126
비(悲)/하승엽	128
파란불을 기다리며/장현선	130
하늘/이영재	132
다섯 손가락/박형남	134
북한의 학생에게 보내는 글-꽃과 나/이나라	136
최고의 만찬/안자영	137
하나되는 날의 축제/김형신	140
통일을 향하여/장동호	142
북(北)을 향한 메아리/김신영	145
하나 되어/윤선정	147
이산가족/정은주	149
이산가족-여의도 광장에서/정수정	152
이산가족/안세아	155
이산가족/징들선	157
바람/징지영	159
바람/이경화	160
이젠 눈물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제주희	162
그 날을 기다리며/김대현	164
통일, 그날을 기다리며/정우정	166
그리운 자리/김현승	168
신념의 빛/강승희	170

산문부분

초 등 부	비둘기/송유미 -----	173
	보고싶은 친구들에게/이원경 -----	176
	북한에도 자유를/신우원 -----	178
	하나된 나라를 위해서/박해미 -----	181
	'통일'이란 꽃이 담긴 내 소설/최태규 -----	183
	우렁찬 철마소리/유민아 -----	186
	너와 내가 손 잡고/양해원 -----	190
	그 날을 기다리며/한아름 -----	194
	철마가 달리는 그날/김대원 -----	197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천해선 -----	201
	북한의 학생에게 보내는 글/박은비 -----	204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송보나 -----	208
	통일전망대에서 본 북한/정지웅 -----	210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장해규 -----	212
	이름 모를 북한 친구에게/조은비 -----	214
	통일의 꽃 무궁화/김련아 -----	216
	무궁화/박다정 -----	218
	무궁화/정경봉 -----	221
	무궁화를 사랑하는 아이들/류승태 -----	224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조아라 -----	228
	아직 해결되지 않는 숙제/정구연 -----	231
	할머니의 눈물/한해리 -----	233
	전쟁기념관의 상처/정수경 -----	236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공산에게/이민주 -----	238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친구들에게/양동현 -----	241
	통일, 그날을 기다리며/좌아영 -----	243
	새 천년에는 반드시 이루어 질 통일/한행민 -----	247

산문부분

중 등 부	6월의 하늘/권지혜 -----	250
	6. 25로 빛어진 일들/박은진 -----	253
	우리 다시 하나되어/이지영 -----	257
	북한에 있는 친구에게/명슬기 -----	260
	통일을 꿈꾸는 미래의 주역들에게/노원진 -----	263
	통일은 답 없는 문제집/김성조 -----	267
	임진각을 다녀오며/나선애 -----	271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최보애 -----	275
	통일의 꿈/권지원 -----	278
	통일로 가는 길/최슬기 -----	284
	보낼 수 없는 편지/김미정 -----	288
	남북, 우리나라/정찬미 -----	291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김봉선 -----	294
	젓가락의 비밀/박현민 -----	297
	금강산/조영경 -----	300
	금강산에서 핀 평화의 메아리/이상혜 -----	303
	한 민족의 가슴/박지원 -----	306
	금강산 기행/박도영 -----	309
	평화를 지키는 손/김정주 -----	314
	남북을 잇는 끈, 믿음/이민정 -----	318
	통일의 꽃/김보라 -----	321
	그리운 친구에게/이유진 -----	324
	신이시여!/한화순 -----	326
	아기 비둘기의 소원/서지영 -----	329
	평양에 살고 있는 친구 슬비에게/조은영 -----	332

고 등 부

소금이여(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최영민 -----	335
참 만남을 위하여/전예지 -----	339
통일의 그림/남화정 -----	343
모자이크/김수경 -----	348
우리 하나되는 그 날에는/이혜민 -----	352
그 날을 기다리며/박송이 -----	356
통일을 꿈꾸며/한경훈 -----	360
하나되어/정형숙 -----	363
통일을 하려면/윤수진 -----	367
제3인의 비애/정자경 -----	371
북한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조정희 -----	375
통일의 당위성과 우리들의 자세/문성현 -----	378
내일은 통일/박공순 -----	382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송유미 -----	386
아픔으로 남겨진 것/김민경 -----	390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분들께/김새밖 -----	394
이산가족/김혜경 -----	398
고통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박혜지 -----	402
가자, 가자!/박해정 -----	404
도자기를 빛는 민족/하연정 -----	409
통일이 오면/이상예 -----	413
21세기 통일의 당위성/정윤주 -----	416
소망을 담은 편지/이은자 -----	419
최전방에서의 하루/허현미 -----	425
그들과_/용선영 -----	429

우리의 소원은 통일

김 유 정

다송초등학교 4학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백두산' 이야기

백두산이 가고파
통일 되라 빌고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금강산' 이야기

금강산이 가고파
통일 되라 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북한 동포' 이야기

북한 동포 만나고파
통일 되라 빌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산가족' 이야기

이산가족 찾아 주고파
통일 되라 빈다.

책에서 읽은
'북한풍습' 이야기

북한풍습 더 알고파
통일 되라 빌고

남과북 하나되어
길게 뻗어가는 우리겨레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

박 예 선

청룡초등학교 6학년

“아이스크림?”

“.....”

“잘 모르겠는데...”

“북한의 민속놀이는?”

“.....”

엄마와 북한말 퀴즈했어요.

영어를 모르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북한의

언어와 풍습은 몰라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금강호에

통일의 열망을 싣고 달려가도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단군의 후손인 한민족이

풍습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두 동강으로 나는 철조망을
걸어낸다 해도
마음에 휴전선은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얼음보숭이가 먹고 싶어'
'그래?
내 용돈으로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줄 수 있는데
'상학시간이야'
'뭐라고? 등교시간이라고'
북한의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그 날을 상상하며
'북한탐방' 이란 책을
다시한번 펼쳐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 차

박 정 원

신곡초등학교 6학년

나는 기차입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늘 철로 위를
달리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철로를 달릴 때면
가끔 옆으로
얼핏 보아도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선명하고 빛나는 색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음. 역시 얘기대로
비무장 지대는 아름답군.”

“우와~ 엄마 저것 봐
너무 예쁘다!”
넋을 잃고 맙니다.

매일 매일
스쳐 지나가면서
매일 매일
보지만

한번만이라도
그 풍경 가까이 가서
그 찬란한 빛은
누가 내는지,
그 풍경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일.
통일이 되면
남북을 잇는 그 길을
내가 먼저
달려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김 은 혜
연지초등학교 6학년

머리에 하이얀
눈꽃이 내려있는
할머니

625때 가족들을
북에 남겨놓고
오셨대요.

유난히 피부가 까만
남동생
웃을 때 보조개가 예뻐던
언니

할머니는 가끔씩
생각이 난대요
함께 하던 때가
그럴때면

장롱속 깊숙히 놓아두었던
빛바랜 사진을
꺼내 보곤 하세요

사진엔 추억이
묻어 있으니까

사진엔 조그마한
이슬방울이 떨어졌던
자국이 있어요

꼭
딱 한번이라도
북에 가봤으면
가족들 얼굴 봤으면
할머니의 소원

우리 할머니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의 통일바라기 꽃

송 은 혜

인천중앙초등학교 6학년

친구야, 북쪽친구야
내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는 통일바라기 꽃
넌 보았니?

처음엔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
희망의 물을 주고
믿음의 거름도 주고
내 마음도 주었지

쑥쑥
자랐어
내 마음속
통일바라기 꽃

휴전선도 없어지고
마음의 벽도 무너지고

모두가
한마음 되는날
통일바라기 꽃
온 나라에
활짝 필거야
너에게 보낼게
통일바라기 꽃 씨앗
한 응큼을

차가운 북쪽땅에
얼어붙은 북쪽땅에서
싸울 틈을 수 있게
따뜻하게 품어주렴
어미닭처럼

어른들이 등을
돌리더라도
우리는
통일바라기 꽃 안고
손잡자,
손을 잡자

통일지도

강 지 희

윤서초등학교 6학년

사회시간
지도를 그린다.
허리띠 맨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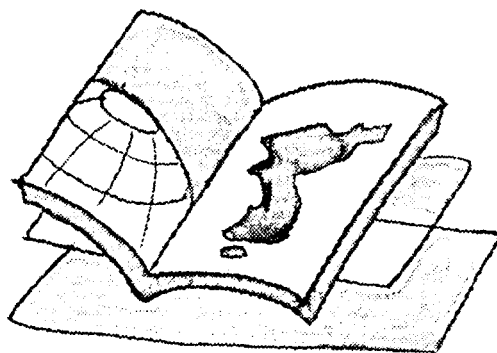
고사리 작은 손
두 손 맞잡고
허리띠 풀어주어,

단풍잎 빨간 손
두 손 맞잡고
꼬마야 놀이 해보자.

너와 나 한 마음
못 이룰 것 없는 세상
통일은 되고 말고
허리 띠 풀어 낸

역사깊은 호랑이
통일지도야

긴 세월
힘들고 아팠던
상처 달래고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쁨 소리치자



우리 할아버지 고향

곽진경

청학초등학교 4학년

이북에 있는
황해도 용매도라는 곳이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래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낮선땅 북한이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래요

6. 25 전쟁때
잠시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남한으로 피난오셨는데
아직도 못가보셨대요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두고온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하셨대요

젊어서 할머니와 결혼하여
아빠를 낳으셨고
어느새 손자 손녀까지 거느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는데도
고향을 잊지 못하신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고향에 두고온
부모 형제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절대로
눈도 감을 수가 없으시대요

칠순이 지나신
우리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어떡해요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경 주

인천검단초등학교 6학년

새들이 조심스럽게
재잘거리는 북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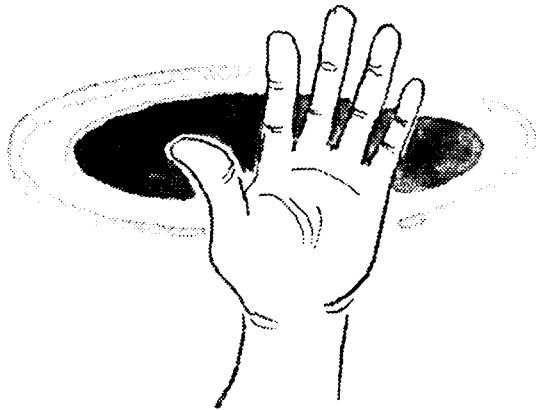
물고기가 가만가만
속삭이는 북한이야기

걸으론 평화통일
부르짖으면서
땅 위에서도
땅 속에서도
전쟁준비만 꿈꾼대요

먹을 것이 없어
주민들이 하나 둘
쓰러져 죽어도
지하에선

핵폭탄 만들기에만
정신이 없대요

웃음지으며
손을 내미는 북한의
시커먼 속셈
절대로 절대로
속지 말래요



둘이 함께

김 한 결

일산향동초등학교 6학년

왁자지껄 떠들썩한 점심시간에
맘에 안드는 반찬 나와서
괜히 투정 부린날
텔레비전에 나온 꽃제비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한푼 두푼 모아온 용돈
책을 살까 게임을 살까
생각하다가
북한돕기 성금을 내고
나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라고 배웠지만
긴세월 서로가 멀게 느껴져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왔는데
하나가 되려면 힘들겠지요

허리가 끊어져 아파하는데
기나긴 그리움에 쌓여우는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새천년 새역사 함께 가꿔요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요



우리마음속에 핀 사랑의 꽃

이 예 민

금신초등학교 6학년

지금 내 몸을 비춰주는
이 햇살은
저 이북땅에도 비치겠지

지금 내 머리카락을 훑날리는
이 바람도
이북땅의 나무들을 간지럽힐꺼야

그리고 내 맘속에 자라나는
사랑의 꽃은
너희들 맘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키워 왔을지 몰라.

그렇게
모든 진실이 왜곡되고
다시 쓰여진 역사를 배우며
앵무새가 되어 같은 말을 읊어대는

아이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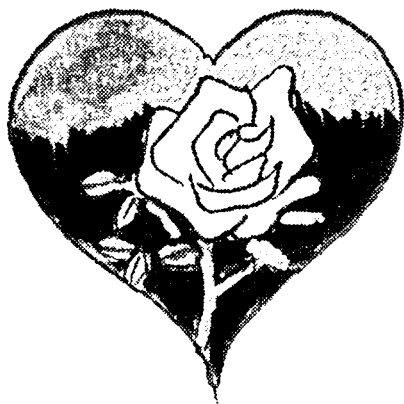
마치 새 우리같이
고립된 학교에서
명령과 복종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너희들 맘 속에 사랑을
지워버린 것이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도록
세뇌시켜 버린 것이

결국 같은 판에 박아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토해내고
모두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한 거라면

이제는 눈을 떠서 조금 더
넓고 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언젠가 모두의 마음 속에
사랑의 꽃씨를 뿌려서
한 민족의 긍지와 자긍심을 지닌
꽃을 깨워주고 싶은 마음이다.
통일의 염원을 지닌 꽃을...



새 야

이 은 지

금신초등학교 6학년

새야,
넌 알고있니?

작은 몸으로
작은 날개로
저 높은 하늘을
휘휘 날아가
북으로 날아가는
너처럼

우리도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새야,
넌 알고 있니?

꿈속에서라도
니가 되어

북으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새야,
이젠 알겠지?

빨리 통일되어
너처럼 자유롭게
북한을
가고 싶다는 것

새야,
이젠 알겠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을...

잠자리야, 넌 아니?

마 영 훈

미산초등학교 6학년

구름 돛단배
돛 위에 앉아
푸른 하늘
멤도는
고추 잠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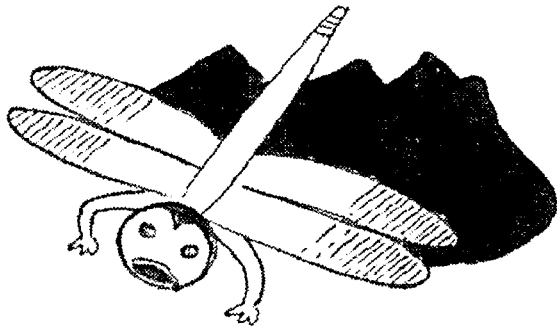
통일을
기원하는
온 국민의
소망을

날개 가득
듬뿍 문혀
북쪽으로 갑니다.

원망스런
삼팔선 넘어
날아가면서

그리운
남쪽 소식
두만강까지
전해주고

꼬리에
소식 묶어
남쪽으로
내려와요.



쌀 한 자루에 담긴 소망

이 순 호

광주동운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어느날
동생의 큰 소리

어디나 싶어서
뒤돌아 봤더니
동생의 말소리

쌀 한 자루
가득 퍼 주시며
어머니의 말씀

“우리만 생각하면 되겠니?”

어머니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숙연해 집니다.

북한 어린이 들은
밥을 굶는다 하니
조금이라도
더 퍼 주시는 어머니
언젠가 다시 만날
그 날을 위하여
언젠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그날을 위하여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난
호랑이여 일어나기를

통일이 되어

조 지 숙

하남동초등학교 3학년

북한에는 새들이 노래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빈곤과 기아 때문에

북한에는 여행의 즐거움이 없어요
감시와 질타 때문에

새 시대엔 통일이 되어 행복한 미소를 짓게해요
새들이 노래 하도록

새 시대엔 통일이 되어
기아와 빈곤을 사라지게 해요

밀레니엄엔 통일되어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환희와 태극기의 물결로

통일을 기다리며

조 지 숙

하남동초등학교 3학년

이산가족은 슬퍼해요
가족을 만나지 못해

이제 호랑이도 웃지 않아요
허리를 조여매고,
북한땅만 바라봐요

한 민족이 만나지도
못하는 슬픔이
강으로 말없이 흘러가요

그날엔
통일되어
이산가족과
한 민족의 슬픔이 사라지고
호랑이의 웃음소리 '어흥'
크게 들어봐요

어느 할머니의 슬픔

조 지 숙

하남동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한을 바라보는
주름진 얼굴

할머니의 모습엔
우리나라 역사의 한이
담겨있다.

주름진 손으로 철조망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눈물엔
평화통일의 그리움이
담겨있다.

영식아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리운 얼굴위엔
평화로웠던 얼굴이
떠오르다 사라진다.

말없이 떠오르는 구름아
날개짓하며
북녘하늘 넘나드는 새들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아

다가오는
새천년 새시대
밀레니엄 그날
자유롭게 나도 걸어 가리라

자유 의 다리를 건너
얼싸안고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자.

북녘 하늘에 핀 무궁화

황 유 선

월영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함경남도 영흥군 선흥면 평화리 116번지
지도에서 보면 가깝지만
너무나 멀고 먼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14후퇴 때
곧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청년으로 떠난 고향.
노인이 되어 그리움만 쌓아 갑니다.

통일의 물꼬 터진다는 소식
들려올 때 마다
이번엔 꼭.
이번만은 제발

우리 할아버지 한숨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T.V보기도 싫다시는 할아버지
기대도 희망도 싫다시는 할아버지.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의 길 뚫어 북한의 무궁화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남과 북
서로 한마음 되어 얼싸안고
통일의 큰 북소리 둥둥 울릴날
언제 일까요?

그 날 기다리며 우리 할아버지
북녘하늘에 피어날 무궁화
우리르고 계십니다.

무궁화

조 승 현

용남초등학교 6학년

매일 이른 아침
통일이란 향기를
곳곳에 뿌린 후,
바구니에
차곡차곡 싣고서는
'이 향기를 저 멀리 북녘땅으로
보내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꽃들이 모두
"통일은 절대 되지 않아."
하고 말할 때,
"아냐, 아냐, 통일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는 향기로운 향기를
듬뿍 뿜어댑니다.

무궁화의

통일에 대한 믿음은

일편단심 정몽주보다 깊어요.

모든 친구꽃들이

싱그러운 햇살을 받는 정오에도,

통일이란 그림을 그리는 무궁화.

다른 친구꽃들이

“휴전선이 끊길 순 없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휴전선도 끊을 수 있어.”

하고 말하고는 아름다운 그림을.

통일의 염원을 담은 그림을.

더욱더 꾸며 통일과 가깝게 하는

무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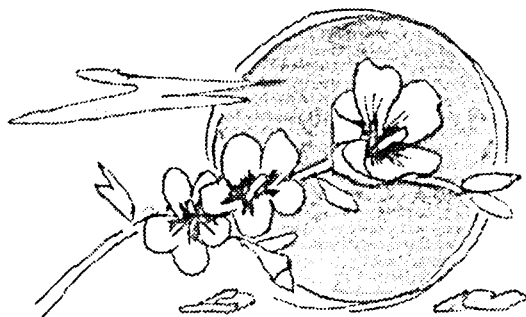
무궁화의

통일을 위한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보다 멋져요.

매일 밤에도
멈추지 않는 무궁화의
안테나 속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아름다운 무궁화.

휴전선이 끊겨
삼천리 강산으로 퍼져 나갈 것을
기다리는
무궁화



무 공 화

왕 예 경

남정초등학교 6학년

작은 씨 하나,
이렇게 큰 나라를
이름 줄 몰랐습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우리 민족의 협동심을
키워낼 줄 몰랐습니다.

작은 꽃 한송이,
이렇게 우리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물들일 줄 몰랐습니다.

언제였던가?
작은 씨앗이 갈라졌습니다.
작은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작은 꽃이 시들어 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겨레의 꽃이
죽어 갔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우리의 꽃,
무궁화가...
시들어 가는 무궁화를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무궁화를 살려주세요.
다시 아름답게 피워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북이 손을 잡을 때
우리의 꽃 무궁화는
다시 피게 될 거예요.

무궁화!
우리 겨레의 꽃,
무궁화를 살릴길은
남북이 평화통일되는
바로 그 날일 거예요.

내 마음 속의 작은 꽃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무궁화

박 보 람

함양초등학교 6학년

장미처럼 우리눈에 흔하지않고,
장미같이 선물로 쓰이진 않아도,
늘 언제나 우리의 가슴 한켠에
살포시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옛보다 무궁화가 없어졌단 말
옛보다 향기가 없어졌단 말
어린동생 하는말 “무궁화가 뭐야?”
하지만 소준한 우리나라 꽃.

우리나라 독립운동 한몫 도와준
우리나라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크나큰 힘을 가진 우리의 국화
신비론 힘을 가진 대한의 국화
어떤 힘을 가진지는 알수없지만
이제는 그 힘 빌릴 시기 아닐까?

독립을 도와준 그런 힘으로
통일을 도와줄순 없지 않겠지
무궁화를 바라보며 한맘 한민족
남한 북한 다짐하고 다시 합치면
우리나라 금수강산 어느 곳에나
아름다운 무궁화 바라보겠지.

무궁화를 닦다보면 알게 되겠지
그리 흔한꽃은 아니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마음이 중요하단걸...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간 평화통일 이루게 되면
우리맘의 무궁화 예쁜 무궁화
더더욱 많이 많이 피게 될 그 날.

우리모두 손잡고 통일을 향해
무궁화를 손에 들고 높이 흔들며
통일만세를 외칠 그 날까지
“무궁화야, 우리곁에 있어주거라.”

하나가 되는 순간

박 지 화

상당초등학교 6학년

어딘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는데,
푸르른 하늘속으로
풍덩 뛰어 들고 싶는데,
날개를 다쳐
마음껏 날 수 없는 새처럼

하나된 나라
만들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친구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나

날개 다친 새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는다면
온 세상 자유롭게
날 수 있고

혼자인 나에게
친구의 손길이 닿는다면
둘로 나뉜 나라
하나될 수 있을테지

힘들게 내민
그 친구의 두손
꼭 잡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통일의 결승점에
골인하는 순간

나와 그 친구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

통 일

이 승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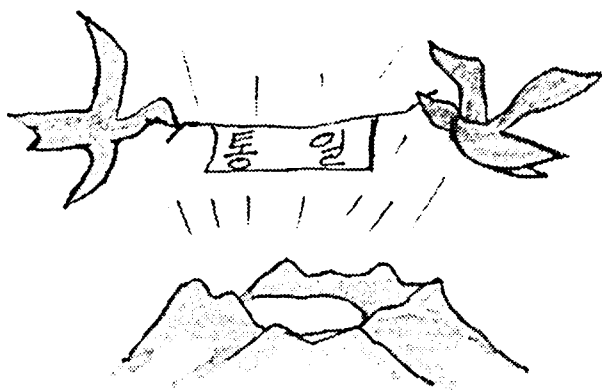
봉정초등학교 5학년

온 국민이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넌 알거야
통일도
평화가 오길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설날·추석날이면
할머니의 슬픔을
넌 알거야
고향땅을 밟지 못해
애타는 그 마음을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마음을

넌 알거야
한 민족이지만
분단의 아픔으로
쓰러져가는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통일이 오면

정 빛 나

문의초등학교 6학년

태백산 깊은 산속
땅을 적시는 물줄기가
생겨날 때
한반도의 터전을 닦는
한민족 한겨레가
태어났지

한민족 한겨레
하나 되어
땅을 일구고, 밭을 갈고
일렁이는 바다에서
푸른 고기를 잡고
평화로운 공기를 마시며
더불어 살았지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 속에
가지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한 줄기 푸른 희망을 놓지 않았지

푸른 잎새를 위해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부러진 가지에
찢어진 잎새에
물을 길어 올렸지

이제 우리
땀 흘려 이룬 평화의
땅에서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
하나 되는 우리
하나 되는 겨레
하나 되는 나라를
이루어야 하리

조금만 참으렴

김 현 애

한국교원대부속원곡초등학교 5학년

우리가 달콤한 과자를
사먹고 있을 때
너희는 복잡한 시장통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겠지

우리가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을 때
너희는 어린 나이에도
생명을 지켜 줄
총을 잡고 있겠지

우리가 부모님 품에서
투정을 부릴 때
너희는 소년 소녀 가장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지

우리가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있을 때
너희는 가난과 배고픔
밀려오는 설움으로
울고 있겠지
아~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조금만 참으렴

함께 뛰놀고 웃을 수 있는
통일의 그 순간을 위해
함께 기뻐하고
포용할 수 있는
통일의 그날까지만

통일을 부르며

문 양 미

성산초등학교 5학년

“슛”골인
통일이 우리에게
한발 더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주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싹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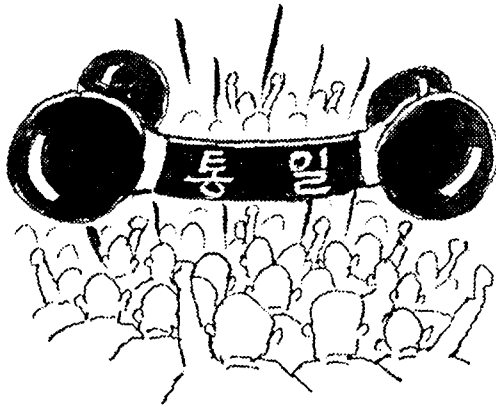
서로 몸이
부딪히면서
한 핏줄임을
확인한다.

어느편이 이기든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정다운
남과 북이 되어

통일을 힘차게 부른다.



할머니의 눈물

윤 여 준

토산초등학교 6학년

황해도 평산은
우리 할머니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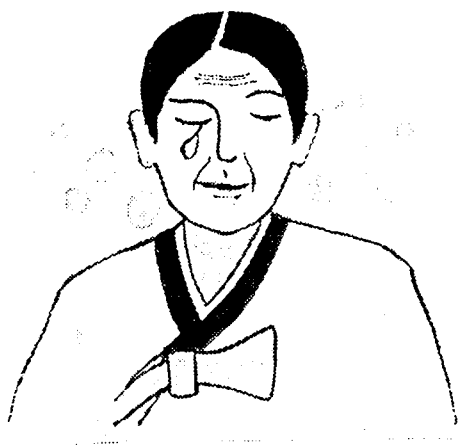
부모 형제와
단란하게 사시던 곳
젊은 시절
추억이 살아 있는 곳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가슴속에서만
남아 있는 평산

고향 그리며
흘린
우리 할머니

눈물 바다 위로
떠가는 금강호

할머니의
눈물 바다 위에는
금강호 사라지는 그 날,
우리 할머니 눈에는
기쁨의 눈물 흐르리.



통일이 되면.....

전 민 경

신창초등학교 6학년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학교를 보여줄 거야
열린 교실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놀며
서로서로 우애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일이 되면
맛있게 먹여줄거야
김정일 생일 때나 먹는
김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 쌀밥,
한번도 입 대보지 못한
붉그스름한 양념통닭,
모두모두 먹여줄거야.

통일이 되면

꼭 보여줄거야
아버지 고발해서
영웅된 것 후회되게,
우리 가족 화목한 모습 보면
아마도 부러워할거야
틀림없이 후회할거야

통일이 되면
꼭 돌봐줄거야
못 먹고 굶주려
양상한 얼굴
활짝 펴지게,
우유랑 과자 들고
탁아소에 갈거야

통일이 되면
꼭 들려줄거야
전쟁 때 싸우는 함성소리보다
더 크나큰
친구들과 뛰놀며 지르는 고향소리

꼭 들려줄거야.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가봐야지
친구들과 같이
금강산에 새겨 놓은
김일성 글씨 지우려

통일이 되면
참 할 일도 많구나
그래도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

이젠 끝내겠습니다

오 새 미

도남초등학교 6학년

지우고 싶었습니다.
한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눈
피의 역사를

잊고 싶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헤어진 가족의
그리움 모두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무수히 죽어간
죄없는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그러나 이젠
지우지도 잊지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피의 역사를
받아 들이고,
미움을
사랑으로 녹여

그리움으로
만들어낸 두글자
'통일'로
이젠 끝내겠습니다.

한마음 통일

임 나 진

애운대여자중학교 1학년

포성이 울렸던
긴장의 서해
되살아나는 아픈마음
물보라되어 아우성치네

북녘하늘 바라보시는
할아버지 한서러운 이마엔
통일의 오솔길이
꿈속에서 깨어난다.

하늘아! 땅아!
미주보기 힘든 침묵깨고
휴전선 허물어 버리고
유월하늘 날고 풀숲땅 뛰어보자

어울려 한마음 통일 이루면
아름다운 내 조국은
세계를 주름잡는
영광된 이천년대 주인공이 된단다.

직녀의 꿈

이 여 진

기장중학교 3학년

은하수 저편
나의 견우님

당신의 손을 잡아봤으면
당신과 얘기를 나눠봤으면

슬픈 빗물은
내 눈을 흐르고
은하수를 흐르고

나의 사랑 견우님은
저만치 더 멀어지고

처음 우리가 사랑했을땐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신은 저기
나는 여기에

당신이 배고픔에 스러져도
나는 배불리 음식을

당신이 병고에 시달려도
나는 즐겁게 노래를
당신이 두려움에 떨어도
나는 편안히 꿈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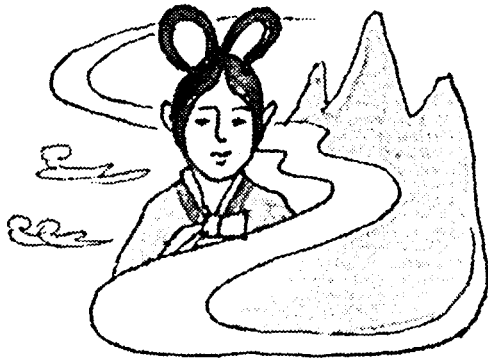
고작 강 하나 너머인데
너무도 다릅니다.

견우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사랑을 구름에 실지만
견우는 대답이 없고
나 혼자서 건너기엔
은하수는 너무 넓어

까치 한 마리 까마귀 한 마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통일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싶은 건우님
우리의 칠월칠석은
언제쯤인가요...



붉은 봉숭아

정 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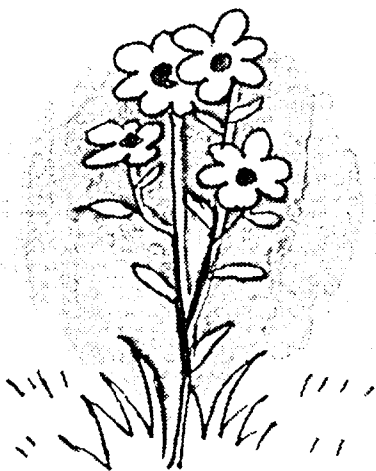
부일여자중학교 3학년

유월의 따스한 햇살아래
야무지게 자리잡은 어린 봉숭아
벌어진 꽃대궁에
여울여울 맺힌 한은
젊은 여인의 입술보다 더욱더 붉다

곱게 차려입은 등굽은 할미는
한줌 흙이 된 남자의 비석앞에
이리저리 영켜진
기억의 실타래를 눈물과 함께 엮어낸다.

꼭 돌아온다고 굳게 맹세하던
그리운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나 열린 대문에 남아있던
정든님의 손길만이
이곳에 남아 꽃앞에 물들 뿐이다.

봉숭아는 눈물을 머금는다.
터질듯한 그리움은
까만 꽃씨가 되어
새 희망의 문을 힘차게 두드린다.



그 날이 오기를

이 다 예
구서여자중학교 3학년

그해 6월
초여름 해가 익어가고 있을 그 때에
핏빛 총소리가
파란 하늘에 슬프게 울렸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젊은 새색시는 남편을 잃고
군대간 오빠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그들의 시체와
핏빛 철조망 이었습니다.

살았을지도 모를
사랑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그곳에
죽어서도 갈 수 없는
먼 곳에 있습니다.

이젠 그들의 기억도
늙은이들의 가슴 속에 박힌 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은 얼려도 물인 것처럼
우리도 먼 그곳의 사람들도
모진 고통을 힘모아 이겨냈던
자랑스러운 그 분들의 자손

작은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대양을 이루듯
작은 사람들이 하나되어
큰 상처를 치유한다면
피에 물든 그 분들의 영혼
가슴에 박힌 그분들의 슬픔도
모두 씻기겠지요.

올해 6월 초여름 해가 익어가는 이 때에
작은 사람들이
푸른 가슴을 열고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

차 유 승
선화여자중학교 3학년

푸르디 푸른
맑디 마알간
북녘의 꽃다운 강산
이제는 가 보게 되었구나

실향민들
고향, 가족 그리며
북녘 땅 밟으며
그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 보련다

아!
노래로만 흥얼거리던
일만이천봉을
이제야 보게 되었구나
50년간 채워왔던
대화의 문

화해의 장
이제는 열어 보련다

서로의 맘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구나

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
금강산 가면서 풀어 보련다

금강산 가는 길이
통일로 가는 길로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구나

꽃제비 친구에게

전 나 리

부일여자중학교 2학년

이름도 인적도 알 수 없는
꽃제비 친구야!

너는 알고나 있니?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단군의 정기받은 하나라는 것을...

너는 느낄 수 있니?
너에게 내미는
나의 따뜻한 손길을...

너는 생각이나 해 보았니?
굶주림과 메마름이 없는
자유의 세계를...

나의 손을 잡아보지 않으련?

친구야...

우리 하나되어 보지 않으련?

친구야!

여전히 나의 손은

너를 기다린단다

우리 세계는 언제나

너를 기다린단다.

기 도

박 재 성

송도중학교 3학년

한국의 참담한 민족사에
우리의 소망으로 피어날 꽃

이산가족의 고통으로 시린 가슴에
아픔을 어루만져 줄 하얀 손

갈려진 우리의 현실에
헤어진 형제를 이어줄 인연의 끈

그것은
하나를 위한 나의 소망
통일을 위한 나의 기도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모든 사람들의 바램
언제나 꿈꾸어 온
한민족의 통일을 기도한다

주여!
제가 염원하는 그날로 하여금
우리 역사의 찬란한 빛이 되게 하소서...

함 께

박 재 현

세물포여자중학교 3학년

밤이라는 어둠에 가려,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햇님도
다음날 아침 우리에게,
밝음이라는 이름으로
아침잠을 깨운다.

통일이라는 존재
그것은
모래알속에 숨은 진주

모래알 하나가 빛날 때
하얗아 보이듯
반만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도
어쩌면 다른나라에겐
하얗게 보일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모래알이 많은
해변가에서 빛날 때,
그 만틈 아름다운게 없다

창가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 빛을 바라볼 때
그 꽃은 순간
바람 하나에 쓰러져버리듯,
지구본에서 점 하나 찍힌 나라가
21세기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여러종류의 꽃이 있는 정원이
아름다울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람과 비도 함께 이겨래
빛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열매를 얻기 위한 하나의 길로
정원의 꽃들처럼
함께 자라야 할 시기이다

한 마리의 새가되어...

신 선 경
일신동중학교 1학년

가지가 밀어올린 가을하늘 아래
금빛햇살 가득히 드리울때면
작지만 소중한 소망하나 띄워봅니다.

손에 잡힐 듯 말듯한 그곳을
말없이 바라만 보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

“저 새처럼 나도 가봤으면...”
하시며 애써 웃음지었던 그대는
이제야 그 소원을 이루셨나요

그대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갈수있게 되었다는걸

한 마리의 새이고 싶습니다.

작은새의 힘찬 날개짓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방방곡곡에
통일의 노래 울려퍼지고
작은새의 고운 노랫소리에
온세상에 한가득
통일의 꽃이 피어납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나라
눈물젖은 그곳을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런날이 올수 있겠죠

모두가 그리던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 깊은곳에
작지만 고운꿈 하나 심으렵니다

작은새와 함께.....

내 눈물의 까닭은(북쪽에 있는 친구에게...)

김 지 은

파주여자중학교 1학년

내 옆의 너의 부재가
나를 민둥산 처럼 만드는 지금,

손 뺐으면 달을만한 곳에
네가 분명
날 기다리고 있을 터 인데,

슬픔을 대신하는
매서운 바람을 가로막고

작게 나뉜 조각구름 마저도
매정하게 찢어 버리는
인정없는 철조망이

네게로 내밀었던 나의 손을
찰싹 때리고 만다.
네게로 가고있는

내 앞의 강물이
나를 태우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 하듯
천천히 흘러가고

그 길에, 지쳐 고개속인 갈대가
네게로 눈물이 묻어나는 편지를
띄우고 있다.

때 되어 날으는
철새의 기낭 속엔,
공기의 자리를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 메꾸고

많이도 무거운지
새는 낮게만 날고……

넋살 좋게 인사하는 가을 꽃은
왜 그리도 알미운지……

저 끝의 사이좋은
나무 두 그루같은 모습으로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으랴

당장이라도 내가
강을 건너 오라하면,
나는 북받치는 기쁨으로
네게 찾아 갈텐데……

니가 바라보고 있을
강 위로 길어져 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네가 마시고 있을
이 공기로 한껏 숨 쉬어 보며

네가 달리고 있을
저 드넓은 초원을
나는 힘없이 바라 보다

언제나 처럼
차가운 바람사이로
더욱 뜨겁게 흘러 내리는
눈물을 나는 참아 내고.....

허나, 오늘은 지금껏,
잘도 참아왔던
내 눈물들을 주체할 수 없어,

손으로 훔치고 말았단다
친구야.....

통일에 초록빛 바람

김 상 옥

김포중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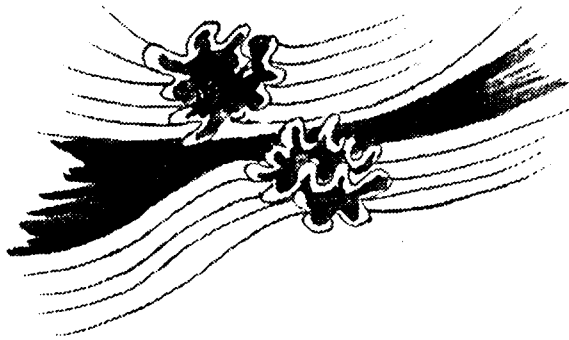
저 철조망 너머
너무나 커버린 갈대는
말하고 있다

바람부는 날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로 흐느끼여
그 오랜세월 우리가 보내야했던
그 그리움에 목메인 시간을

눈부신 아침햇살
철조망 너머 대지를 비쳐오면
넓게 퍼진 초록빛 대지
우리맘속 허전하게 자리잡은
어머니에 눈망울속 눈동자로 빛난다.

이제 너무나 커버린 저 갈대는
소리친다. 그 숨결로

생명에 힘으로 마지막 소리를
저 너머 고향으로 내 후손이
이 백리로 갈 수 있기를...



님의 약속

이 국
고려중학교 3학년

“기다리고 있거라
반드시 돌아올게다.”

님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총과 칼을 메고
민족의 싸움터로
향하시던 그 모습

나는 믿었습니다
님은 오실거라고~

손가락을
하나씩 집어가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십이란 숫자가
너무 벅찼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모두 집어도 셀 수가 없습니다

님은 아실 겁니다.
왜님은 오셔야 하는지...
왜 내가님을 기다리는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님은 오셔야 합니다
한 핏줄, 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님은 오실 거라는 걸...

민족의 상처 잊고
어깨동무하며
반드시 오실거라는 걸...

나는 이제
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십이란 숫자동안
맛보지 못했을 김치를 차려 놓고

입어보지 못했을
한복을 맞춰 놓고
누워보지 못했을 온돌방을 데워 놓고

그리고
이제는 바뀌야 할
한반도를 펼쳐 놓고...

나는 기도합니다.

돌아오실님과 함께
한복을 입고
온돌방에 누워서 김치를 먹으며
한반도를 돌로 나눈
빨간 선을
지울 수 있기를...

철마의 소원

차 민 석

광주고려중학교 2학년

한 가닥 풀
떨어지는 낙엽에도
자유는 있다.

흐르는 물에도
뛰노는 짐승에도
자유는 있다.

한겨레
한 민족

38도 높은 고개를
이는 바람에 몸을 실어

자유에 문을 두드리고
싫건마는,

오색 빛깔
무지개 타고
한걸음
한걸음
자유를 누리고
싶진마는.
총칼을 겨눈지 언 50년

이제는
어둠에 벽을 허물고

환한 태양아래
달리고 싶어하는
다 낫은 철마가
쏟쏟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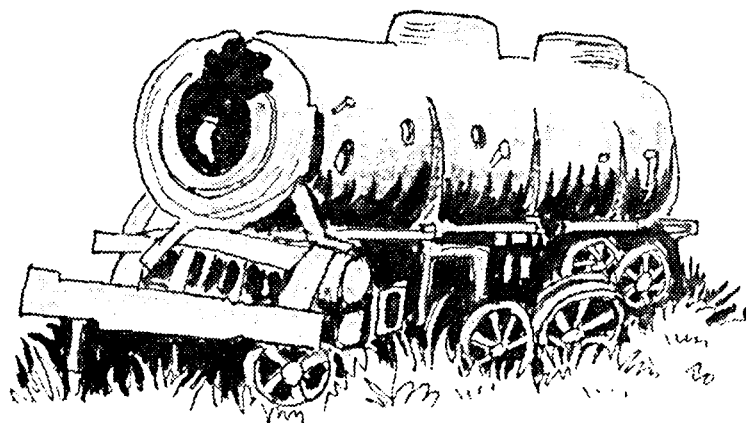
언젠가는

짜릿은 새처럼 뽀뽀히 흩어진 이 겨레가
다시 한번

날개짓 하는
저 비둘기 처럼

환히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 쫓이면
울부짖던 철마도
다시
달리겠지.....



기 다 림

최 자 랑

우산중학교 2학년

노란 들국화 한아름 들고 오던
아련히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참아온 눈물만이 흘러내리고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에
사랑할 시간이 너무 적었기에
우리 추억만은 영원히 되새기립니다.

햇살 만큼이나 눈부신
그대 미소 뒤에
홀로해야 한 수많은 나날들이었지만
그대와의 추억을 생각함에
그래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 그대 그때 그대로인데
그대 기억 속 내 모습도 그대로일텐데
만약 그대 날 찾아와

찾지 못해 그냥 가시면 어찌할지

언제까지나 열어둘 저 문으로
그대 지금 내게 돌아온다면
너무 큰 욕심이라해도
그대와 함께 하지 못한만큼만
함께하고 싶은데…….

오늘도 난
우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저 무심한 철책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난 믿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함 없듯
그대 마음도 그대로일거란 것을
언젠가 우리 만날 그날에는
무심한 저 철책도 우릴 축복할
꽃길이 되리란 것을…….

금강산

우 신 혜

삼남중학교 3학년

녹슨 한아
이제는 허락해 다오
찬란한 아침의 시작을 안고 가는
저 민들레씨들이
그곳 산등성이 완만한 곳에
꽃을 피우기 위해 날아가는 꿈을.

무너져 내리는 아픔아
이제는 잡지 말아 다오
간절한 기다림의 끝을 보고 가는
저 들꽃들이
그곳 폭포곁에
대지의 젖줄을 찾아나선 소망을

가없는 외로움들아
이제는 받아들여 다오
새로운 그날을 참고 기다린 우리가
봉우리 밑 민들레 곁에서
환하게 웃는 그날을.

금강산으로 가는 길

류 기 언

사천중앙여자중학교 3학년

산이 보이고 있소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금강산이 보이고 있다오

동해의
푸른 물결이 씻어낸
찬란한 그 자태와
푸른 하늘을 짙어진
민족의 거룩한 혼,
일만 이천 봉우리

그 속에는
잊혀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는
민족의 아픔이 있소

가냘픈
토끼의 몸을

거친 삽으로
두동강 내어야만 했던
50년전의 비극

그 때,
그 때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100마리의 소를 따라
이제
금강산에 가오

지금도
환희에 젖어
이슬 맺힌 들풀 위를
맨발로 내딛는
내 민족의 발걸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소

하지만
푸른 동해 물결을 지나
가야하는 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이제 겨레는
애처로운 눈동자로
외치고 있소

푸른 물결과
푹푹한 바다 내음이 아닌
고운 흙을 밟고
그 향긋한 채취를 맡으며
금강산으로 가자고
그들은 외치고 있소.

드디어
산이 보인다고
우리의
하나인 태양 아래
그 환한 자태와
푸른 희망을 보여주는
금강산이 보인다고.

이천사년 금강산

황 정 빈

마산서중 2학년

푸른 동해 바다 물살을 가르고
금강호에 의지하여
비로봉에 오른다.

미래의 신 지식인이고픈
작은 바람만 배낭에 달랑 매달고
발 밑에 무릎 꿇은 일만이천봉을
굽어보며 키우는 청운의 꿈.

세상을 뒤로 한 채 살았던
3년의 힘든 시간 속에
갈라진 허리는 고운 자태 뽐내며
철마를 달리게 하고
평양대 채팅 친구와 함께 오른
그리운 금강산.

장안사 계곡 감싸도는
유리알 같은 물이 한강에 이르듯
새로운 이천사년
내 대학 생활의 꿈이
그렇게 막힘없이 흐르기를 염원하며
알아 듣기 힘든 내 친구의 도란거리는 얘기가
날개를 달고 날아 오른다.

이천사년 금강산 비로봉에서
펼쳐보는
내 스무 살의 꿈.

그 소망을 위해
푸른 동해 바다 물살을 가르는
금강호에 몸을 싣고
오늘 나는
비로봉에 올랐다.

변함없는 금강산

오 상 호

합천중학교 2학년

금강산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얼굴
나라의 얼굴

언제나 우리의
힘이 돼 주던
아름답던 금강산

조국의 아픔에
물들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한때

태초에 신이
인간을 사랑했던 곳
금강산이 아닌가?

신이 만들어준
아름답고 경이로운 산
금강산
비록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척박한 땅이건만

자유로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들뜬 마음으로

이젠 금강산이
받았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금강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아름답고
강한 민족정신이
있는 한

그것 뿐이에요

서 미 연

이원중학교 2학년

망원경 뒤에서
남몰래 눈물 훔치는
할아버지를 보았지요

북녘하늘 바라보며
옷소매를 적시는
할머니를 보았지요

그분들께는
삶의 끝자락에
평안히 뿌리내릴
고향이 필요해요

그분들께는
잃어버린
삶의 반쪽을 채워줄
가족이 필요해요

매마른 땅이
단비를 찾듯
이젠 그분들께도
촉촉한 단비를 내려야 해요

그 길을 그 길을
베를린 장벽의
시원한 부서짐같은
큰 합성과 같은

녹슬은 철조망은
허무는 것
민족의 허리를
다시 잇는 것

그것 뿐이에요

언제부터였던가

김 연 주

용암중학교 2학년

언제부터였던가
우리가
너와 내가 된 것이
저 강 너머
보일 듯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리움들은
오늘도
가슴속에 한가득
쌓여가고 있는데

언제부터였던가
한 핏줄이 두 갈래가 된 것이
저 산 너머
불러도 불러도
대답없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직도

가슴속에 커다랗게
울려 퍼지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벽

그 피맺힌 마음의 벽을
누가 헐어주려나
오늘도 생각한다.
언제부터였는지

그날이 오면

신 은 정
현도중학교 1학년

아!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그날이 오면

한 나라가 두 이름 갖고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며
낮설게만 여겨지는
그런일 없을테지

아!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그날이 오면

한 핏줄 칠조망에 찢겨
서로의 심장 앞에
총부리를 겨누고
한반도를 누비던 기차가
흔적없이 사라지는
그런일 없을테지

아!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그날이 오면

크나큰 광명속에
반만년 한민족 홀연히 일어서
기쁨의 눈물로
통일을 노래하리



할머니의 꿈

신 슬 립

이원중학교 3학년

지난 50년의 세월속에 문힌
뼈아픈 기억들 속에 만들어 낸
이산가족의 슬픔, 상처, 그리움
슬픈 역사 속에
살아남으신
우리 할머니
매일 밤 꿈 속으로
그리운 이의 얼굴을
그리어 본다

어두운 흑백 영상 속에
그리워해야만 했던
전쟁중에 목숨을 잃으신
할아버지
북쪽에 두고 온
막내딸

색 잃은 진달래꽃
아무것도 살아숨쉬지 않는
그 속에서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
북쪽땅이 보일 때 까지
정상에 올랐을 때
막혀있는 벽들
보이지 않는
북쪽 하늘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 목소리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얼굴

오늘밤도 할머니는
나의 손을 꼬옥 붙잡으신 채
만남의 그 날을 기다리며
외로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들은 소망합니다

정 소 이
제주서중학교 1학년

들려옵니다.
저 머나먼 북녘땅에서
풀뿌리 찾아 헤메이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질퍽거리는 시장바닥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는
배고픈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이산가족의 한숨소리가

그들은

소망합니다.
그들의 힘든 삶에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싹이 트기를...

그들은
소망합니다.
남북을 가로막는
휴전선이 끊어져
한라에서 백두까지
끝없이 달려가기를...

철모(6·25사진전을 보고)

문 미 현

제주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2학년

빛바랜 사진 안
녹슨 철모 하나,
빗속에서 울고 있다.
황량한 벌판에
딩그러니 놓여진 철모
땅으로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생각한다.
하늘도 함께 우는구나

주위를 둘러본다.
온통 피투성이, 시체들
고개를 돌리게 하는 역겨움
그의 옆에 잠든
또다른 한 사람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머리에 쓰고
내달렸던 주인이다.

다 떨어진 녹색 군복
너털너털한 장화
오래 전에 떠난 집
그는 그리움으로 지쳐 있었다.
차마 감지 못한 두눈에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

철모는 혼자다.
전쟁의 시작은 무엇이었지?
모두들 전쟁이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겠지
그러나 전쟁이 낳은 것은 아픔뿐

승리의 기쁨도 없다.
무엇하나 얻은 것 없이
나뉘어 버린 땅덩이
상처입은 가슴

통일을 꿈꾸며
압록강까지 나아가길
바랬던 주인 곁에서
철모는
뜻모를 눈물을 흘린다.

새천년의 소원

박 미 경

신성여자중학교 2학년

배고픔에 허덕이다
다 지쳐 갈 때쯤
저 북녘, 우리의 형제들의 입에
같은 핏줄이 흐르는 자식, 아버지의
붉은 살점이 그들을 서글프게 한다.

자유가 그리워
남쪽을 향한 그리움에
국경을 가로지를 때면
여기저기 날아오는 총알사이로
같이 가던 부모 자식들이
맞아쓰러지더라도
살기위해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달려야하는 그들의 삶을 부정해 본다.

중세시대 공개처형 당하듯이
남쪽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많은 눈앞에서 눈을 감아야했던
슬픈 영혼들을 이제 위로해 보려한다.

새천년...

나는 50여년을
넘겨버린 세월의 벽이
그들에게 자유란 이름으로
다시 환생하는 날이길 소원한다.



너와 내가 만난다면

정 나 언

경에여자고등학교 1학년

어느날 너와 내가 암술과 수술로 만나
한송이 꽃을 피울 수 있다면
내 살던 북녘마을 한눈에 보이던
산그루터기에 피던 질랭이꽃이고 싶다.

그리고 또 어느날
너와 내가 만날수만 있다면
너는 초라했던 옛집의 작은 텃밭이 되고
나는 그 땅을 갈던 녹슨 쟁기가 되어
그 옛땅의 거름냄새를 한껏 맡고 싶다.

그럴수만 있다면
너와 내가 만날수만 있다면
그리움에 휘어진 내허리와
여울진 슬픔으로 새어버린 이 머리카락도

시린겨울 내 생각에 서러워하지 않을텐데
이른 저녁 못견디게 붉은 노을을 못내

아쉬워하지 않을텐데

아무래도 너와 나는
터질듯한 그리움으로 엮은 실과
항상 여린 비목으로
내 가슴을 찌르던 날카로운 바늘로 만나
꿨어진 너와 나의 조국을 잇고
숨막히는 기쁨과 솟구치는 눈물을 엮어야겠구나

이 시련이 응고되어 부서지기 전에
이 고뇌가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어서 빨리 해야겠구나

우리의 찢어진 그리움이 만나면
자유로운 이 생명이 날개돋우면

잔잔한 고향바람에
이 새어버린 머리가 훑날리는 그날에는
차디찬 이슬이 전해주는 푸른 솔잎 하나가

너와 나의 주름진 손앞에
스쳐 놓여지리라

북녘하늘의 비

김 지 혜

이시벨여자고등학교 1학년

떨어지는 빗방울이고 싶습니다
굳게 닫혀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없는 외침이 되어,
차가운 북녘하늘 아래
따스하게 나리고 싶습니다

흐르는 빗물이고 싶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기억 저 편에서 가슴 저미는 그 땅에서
내 혼을 담은
빗물로 흘러내리고 싶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갈라진 땅을 하나로 굳힐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줄기 비가 되고 싶습니다.

하루살이

한 애 림

기장고등학교 1학년

보고 싶었다.
어둠이 아닌 밝은 빛을
고통스러웠다.
끝없이 아파했었다.

날고 싶었다.
더 높은 하늘 끝, 그 곳 까지
온 힘을 다해 퍼덕이곤 했었는데…….

사랑하고 싶었다.
내가 아닌 나를
목이 터져라 울어댔었다.
살갓이 닳도록 비벼댔었다.

살리고 싶었다.
또 다른 내 생명을
날개가 부러지도록 날아다녔다.
죽이지 않기 위해 살아 남아야만 했다.

이젠 살고싶다.
하루의 시간을 초월한 그 삶을
날수도 있다.
볼수도 있다.
하지만 살수는 없다.

날아갈 힘이 없다.
사랑할 힘도
살아갈 힘도…….
내 몸을 감쌌던 환한 빛이 자꾸만 어두워진다.

50년의 시간이 지났다.
아직 하루살이의 슬픈 운명이 어두운
숲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삶의 전부였던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롭고 싶기에…….

천사의 손

장 지 원

이사벨여자고등학교 1학년

순식간에, 흑빛 먹구름이 몰려 든다.

매정한 바람이 모두 다 쓸어버리고
목터져라
서럽디 서러운 분노의 폭발이 이는 지금,

하늘과 맞닿은 구석진 방 윈 컨,
기다림에 지친 어린 아이 하나가
하얀 도화지를 펼쳐 들었다.

아이의 자그마한 손끝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아픔이 희망으로
아이는 조용히 푸른 미술 지었다.

그러나
비바람에 씻기고 흔들리어
긁어모을 수 없는 부스러기로

간절한 너의 소망이
피빛 절규가 되어
하염없는 눈물을 자아낸다.

폭풍이 지나간 후,
환하게 개인 날의 깨끗함을 생각해 보았느냐?
너는,

사무치는 괴로움에 부활은 오늘 뿐이다.

자유를 갈구하는 고요 속 외침이
너의 자그마한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내일 아침,
창 틈으로 새어나온 아침 햇살이
바닐라빛 향기로 너를 흔들어 깨우리

다시, 또 다시
도화지를 펼쳐라

아이야 ...

비(悲)

하 승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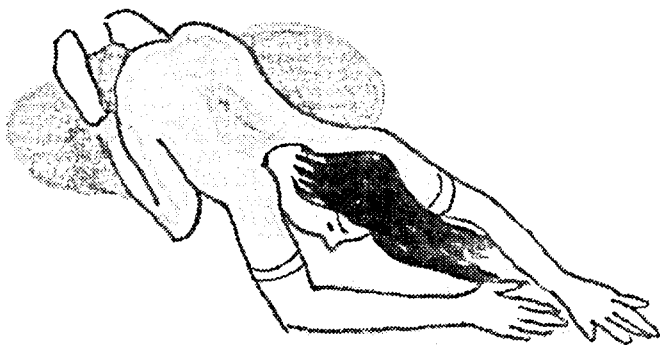
충도고등학교 2학년

다시 찾은 통일전망대
눈물어린 두 눈으로 보지만
이미 이전 내 고향이 아니니.....

곶가에 울리는 안내원의 목소리
내 고향 보는데 무슨 설명 필요한가
내 가슴속엔 안내원의 설명보다
철망에 걸친 반쪽 파도소리만 울리는데

저쪽에 계신 어머니가 보일까
누이가 보일까
잘 보이지도 않는 망원경 주제에
오백원짜리 동전만 꾸역꾸역 삼키는 그 꼴이 밍기도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동전만 버리는 내가 밍기도

철망에 움튼 가시만큼 늘기만 한
육체의 가시, 흰머리
어느새 일흔이란 고지에 올라
북녘땅을 내려다보는 내 가슴엔
쓸쓸히 비만 내린다.



파란불을 기다리며.....

장 현 선

가정고등학교 2학년

오늘도 역시-
그 횡단보도엔
파란불이 켜지지 않는다.

건너고 싶어
가슴을 앓는 사람들과
건널 필요없어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
빨간불은
비웃듯이 밝게 빛난다

오늘도
그 횡단보도엔
파란불이 켜지지 않는다

저 선 하나만 넘으면
금새 마주할 수 있을
그리운 사람들과
냉정한 눈으로 총을 겨누는
다른 색깔의 사람들 사이
빨간불은
그 오만한 빛을 던지고 있다.

오늘도
그 횡단보도엔
파란불이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다린다
눈물 마르는 기다림을 건너
모두의 마음이 파란빛이 될 때까지
모두가 하나되어 웃음질 그날까지
우리는 소원한다
파란불이 켜지기를.....

하늘

이 영 재

연수고등학교 2학년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광활한 하늘은 오늘도 울고 싶어라
모든 아픔 구름에 담아
서러워서 그리워서
오늘도 그토록 울고 싶어라

너의 푸른 하늘과
나의 맑은 하늘은
무엇이 다르더냐?
어제 내린 봄날의 세우(細雨)도
너와 나 모두를 적셔주지 않았더냐?

네 지금 바라보는 저 하늘은
내 지금 바라보는 이 하늘이요
내 지금 서있는 이 땅은
네 지금 서있는 저 땅이로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인 것이다
언제까지 공허한 하늘만을
맥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자유로운 하늘의 구름처럼
우리도 오고가고 해보자
구차한 자존심은 버리고...

웃고 싶어라 웃고 싶어라
이 거대한 하늘은 내일엔 웃고 싶어라

따뜻한 햇볕을 비취줄
화합의 그날을 간절히 그리우며
내일엔 그렇게 웃고 싶어라

다섯 손가락

박 형 남

세물포고등학교 3학년

매해 겨울이 다가올 때면 할아버지는
다섯 손가락을 만지시면서 잠을 청한다

잊혀져간 어느 12월의 금강산역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가 엉켜서
하얀 입김과 내뿜던 담소들이
북적거리던 대합실을 메우고
실바람이 가슴까지 시려오면
주전자에 얻어오다 옆질러진 우동국물에
움추린 몸을 녹였던
그 해 겨울
눈 덮힌 기차에 실려
고향을 떠났었다

잊혀져간 어느 해 금강산역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리 낀 창가에 걸터 앉아

그렇다! 우리는 하나인 것이다
언제까지 공허한 하늘만을
맥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자유로운 하늘의 구름처럼
우리도 오고가고 해보자
구차한 자존심은 버리고...

웃고 싶어라 웃고 싶어라
이 거대한 하늘은 내일엔 웃고 싶어라

따뜻한 햇볕을 비춰줄
화합의 그날을 간절히 그리우며
내일엔 그렇게 웃고 싶어라

다섯 손가락

박 영 남

제물포고등학교 3학년

매해 겨울이 다가올 때면 할아버지는
다섯 손가락을 만지시면서 잠을 청한다

잊혀져간 어느 12월의 금강산역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가 엉켜서
하얀 입김과 내뿜던 담소들이
북적거리던 대합실을 메우고
실바람이 가슴까지 시려오면
주전자에 얻어오다 엎질러진 우동국물에
움추린 몸을 녹였던
그 해 겨울
눈 덮힌 기차에 실려
고향을 떠났었다

잊혀져간 어느 해 금강산역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리 낀 창가에 걸터 앉아

눈에 익었던 풍경을 바라보며
기타를 튕기며 여행을 갔었다.

이젠 감미로운 멜로디만 남아
기나긴 고독속으로 떠나버린 그 역을 상기시키고
지금와서는
주름진 다섯손가락의 기타 멜로디를 들으며
그리움에 담아본다

그리운 고향역
다시 찾아갈 날을 기다리며…….

북한의 학생에게 보내는 글-꽃과 나

이 나 라

부천삼원고등학교 2학년

가슴속에 솟아나는 푸른 해
두눈에서 타오르는 푸른 화
꽃과 나는 하나의 마음

소리쳐도 메아리뿐 잿빛 천(天)
가도가도 제자리인 잿빛 지(地)
꽃과 나는 두 개의 몸

푸른 해, 푸른 화를 담고 만나자
잿빛 천지가 하얀합성이 될 그날
우리 완전한 하나 될테니
칼같은 겨울 바람에도
꽃내음이 스치운다

최고의 만찬

안 자 영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독일에선 베를린 장벽대신
초콜릿 장벽을 쌓는다고 하지
우리도 그런 거 만들면
참 맛있겠다.

딱딱한 껍질 안에
노른자위 흰자위 나뉘어
섞이지도 않는 계란
팍 깨트려 계란후라이 만들면
참 맛있겠다.

달콤한 풍선껌 안에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원담아
저 멀리 하늘 높이 날려보내면
참 예쁘겠다.

우리들 소원을 작은 옥수수에 담아
'뽕' 하고 크게 튀기면,

'뽕' 하는 소리가
그날의 축포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겠지
참 좋겠다.
내가 너를 대하는
마음이, 손길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쪽도 같은하늘 바라볼꺼라며,
고개만 들면 눈물지으시는
할머니 얼굴엔
환한 웃음이 머물고

멀리 강가 쳐다보며,
헤엄쳐가고 싶으시다는
할아버지 얼굴엔
늘어만 가던 주름 하나씩 펴지고
남남북녀 외치며,
아직도 장가못간
우리 삼촌에겐
국수 얻어먹을 수 있고

여기에는 오를산이 없다며,
매주일마다 집에 계시는
아버지와는
백두산 등산갈 수 있고
매일 굶는 북한 어린이 불쌍하다며,
음식남기면 안 된다고
남은 음식 다드시던
우리 엄마
날씬해지시고

반으로 갈라져,
매일 아파하던
우리 호랑이 허리도
이제는 나올 수 있겠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바라만 봐도
그저 바라만 보아도
참 맛있겠다.

하나되는 날의 축제

김 영 신

일산주엽고등학교 2학년

덩기덕 덩더쿵 덩기덕 덩덕
백두가 시작하자 한라가 흥을 돋구어
두만강 어깨춤에 한강이 신이 나니
우리모두 신명나게 놀아보자꾸나.

어둠이 걷히고 축제에 문을 여니
푸른산 골짜기가 붉게 읽는구나
구수한 막걸리 한 대접에 벌써 취하니
오늘한번 신명나게 놀아보자꾸나

덩실덩실 어깨춤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50년 타버린 이내 가슴 날려버리고
한땀한 이 가슴이 땡 뚫리니
눈물로 비가 되는 이기쁨의 날에

하늘도 웃는구나 땅도 웃는구나

내형제 내가족이 이제야 만나는가
얼씨구나 좋으씨고 절씨구나 어깨춤이 절로나니
부등켜 안은 가슴가슴 한이늑아 강이 되고
이나라 이땅이 이제야 만났으니
다시는 슬픈 노래 부르지 않으리라
다시는 아픈 상처 전하지 않으리라
우리 이제 함께라면 그어디도 행복하리니

눈물로 한뫼힌 어제의 노래도
오늘의 기쁨보다 더할리 없으리니
천년만년 이 기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신명나게 돌아보자꾸나

통일을 향하여

장 동 호

전남고등학교 1학년

순백의 한반도에 붉은비가 사방을 쭈셔 놓았다
비명과 절규만이 가득한
붉게 물든 한반도는 생지옥과 매한가지
하지만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였다.

독립을 갈망하는 무수한 함성
광복을 향한 만세의 파도
그렇게 우리는 새봄을 맞이 했다.

산뜻한 봄바람 코끝을 감싸 주건만
어느새 다가온 이념의 불꽃이
우리의 허리를 동강냈다.

어느덧 우리 손에는 무기가 쥐어지고,
서로를 겨누며 증오와 반목의 눈초리만이 번쩍였다.

시간마다 잠재울 고요의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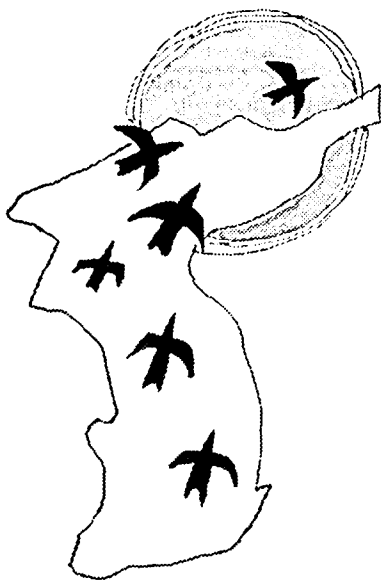
두 이념의 불꽃이 불려대는 자멸의 교향곡
증오와 반목이 절정에 치달리며
우리는 미쳐갔다.
내가 너를 찌르고
네가 나를 찌르고
내가 나를 찌르고
네가 너를 찌르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모두에게 각인시키며
시뻘건 선혈이 다시 한반도를 붉게 물들였다.

혈육을 향한 이산가족의 애절한 눈물
그 눈물이 스민 한반도의 대기는 여전히 차다
우리의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했건만
한반도의 붉은 선혈은 지워지지 않았다.
자신마저 잃어가는 망각의 남쪽 대지
기아에 허덕이는 황폐한 북쪽 대지
자멸의 완성을 향해 치달리는 것인가

태초적부터 이어온 반만년의 영광으로
빛발치는 외적의 침략에 맞선 민족의
저력으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손을 잡으리라 다시 만세를 외치리라
고귀한 순백의 바람과 거센 만세의
파도가 휘몰아 친다

어느덧 한반도엔 붉은 선혈이 사라지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안긴다.



북(北)을 향한 메아리

김 신 영

광주동아여자고등학교 3학년

노인의 주름진 손바닥 위로
회색빛 북녘하늘이 열리고
침묵의 절벽 아래로는
태양을 삼킨 강물이 흐른다.
산새의 지저귀는
심연의 골짜기에 떨어져 흩어지고
무덤 속 영혼의 티끌과 파편들은
허공의 그림자 속에서 연기로 태어난다

50여년의 시간동안
노인의 뼈는 닳고 깎여
이제는 앙상한 가지로만 남아있고
이만여일의 시간동안
노인의 등은 북(北)을 향해 굽어갔다.
세월속에 시간을 묻기도 전에
차가운 혈액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노인의 뼈가루는 산란하고 있다.
홀로 북쪽을 향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스스로 생명의 메아리를 마시는
민족혼의 꽃 한송이가 피어있다.

하염없는 빗물의 컷가엔
메아리의 간절한 떨림이 흘러 내리고
안개속에 잠긴 선율의 향기는
갈려진 심장의 들판위를 서성거린다.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나무등걸을
한 민족의 입김으로 녹이고
겨울산 바위를 덮고있는 검은이끼를
정지된 시간,
잃어버린 푸른기운을 위해
우리의 입술 사이로 온기가 흐른다.

하나 되어

윤 선 정

세종고등학교 2학년

5천년 유구한 역사의 한반도
갈라진 남과 북, 삼팔선을 박차고
북녘친구들 품으로 뛰어가리
같은 민족, 끈끈한 혈육
손에 손을 잡고
다함께 기쁨에 젖어
노래 부르리

민족 분단이란
고통의 장애물을 뛰어 넘어
우리민족 하나로 묶으리
미래를 키우리
떨어져 살 수 없는 같은 핏줄
피끓는 동족애를 발관삼아
평화통일 이루리

백두산 천지못에 몸을 맡기고

금강산 산수유열매 따 먹으며
범새끼, 노루새끼와
자유로이 뛰어놀고 싶어라
함께 사는 통일 이루어
장애의 벽을 허물으리
이제
남북형제들의
애절한 한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가며 한걸음씩 나아가리
이땅의 찬란한 역사의 꽃을 피우리

이 산 가 족

정 은 주

김해여자고등학교 2학년

- 1 -

유월이 오면
폭격에 찌그러진
할머니의 정원에도
이름모를 풀들이 피어나고
붓꽃향기에 할머니의 속앓이도 시작된다.
지금쯤 고향 대동강변에도
붓꽃들이 물거울에
낮을 비추고 있겠구나

물거울에 낮 비추며
시새우던
붓꽃마냥 해마알간
이모 할머니 그리며
할머니는 소녀가 된다

살을 찢는 아픔이
세월에 묻히겠냐고
넋두리 속 한숨지며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붓꽃들의 향내만 흐드러진다.

- 2 (개망초 꽃) -

유월의 노을 속에
펄펄 울음 토해내는
강심(江心)을 굽어보며
흐드러지게 핀 개망초 꽃무리

북녘에 두고온
피붙이를 그리다
노오란 얼굴달고
피어난 넋

들녘을 훑는 실바람에도
잔잔히 떨고 있는 여원 미소
반 백년의 맺힌 한을

잊지말라고
이름마저 개망초로 달고 냈구나

차라리 바람타고
휘어이 날아가
북녘의 산하 누비리라고
노을 속에 풀꽃씨 날려 보낸다



이산 가족 - 여의도 광장에서

정 수 정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하늘이 저주를 퍼부은 땅
세월은
잃어버린 얼굴과
잃어버린 이름을
눈물로 기워 입고
늘어진 팻말로 서 있다.

찾는 사람 이복년, 생존 한다면 98세
여기는 핏빛 울음을 우는
여의도 광장

50년전
이데올로기에 가족을 잃은
- 주름살을 세던 부모를 뺏기고 빠둥거리는
어린 것들의 손목을 놓쳐버린 -

저주받은 사람들

그들의 널부러진 기억
지나는 곳곳마다 구겨진 눈물이
밭길에 차인다.

때로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나 않을까.
오열로 부둥켜 흐르는
만남을 지켜보면서

이젠 너무도 아득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고향
그 이름을 꼭꼭 눌러쓰고

오늘, 내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백발
기약없는 세월을 휘청거리며

밤새 순대를 삶던
기름진 손끝이 그리워
잃어버린 기억과
잃어버린 가슴을

비느질하며

어때 이름을 목터지게 불러본다.

찾는 사람 이복년, 생존 한다면 98세

여기는 핏빛 울음이 멈추는

여의도 광장



이산가족

안 세 아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어느새
새롭게 맞은
여름의 오후

귀로 울려오는
싱그러움에도

그리운 노랫소리에
호수는 자꾸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푸른하늘에도 고개를 못드는
아들잃은 엄마와
엄마라는 이름만 가득 불러보는
엄마잃은 아들은

자꾸만 생각나는
서로의 얼굴에
뒤집어 쓴 이불 속에서

끝내 참지못한 울음소리를
나직히 흘립니다.
놓쳐버린 내 가족에 흘러지는
눈물과
벽을 두드리기엔
너무 작은 내 손짓에
푸른 이 여름까지 흔들리고 있지만

상처난 곳에서 들리는
더 큰 심장소리처럼
더 좋은 열매를 향한 기다림처럼

내 맘 깊이 자리잡은 기대는
언젠가
빛을 찾아가
안을 집니다.

작은 날개짓으로 나아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겁니다.

내 훗날엔…….

이산가족

정 들 선

김애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북녘 - 시린 땅을 드리운
하늘의 붉은 강 속으로
비둘기 한 마리 날아든다.

수북히 먼지 쌓인
할아버지 안경 위로
외로운 몸부림을 활개치더니

하나 남은 팔로
안경을 닦으시던 할아버지
아래에 눈물을 흠쳐내신다.

이건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한(恨)
차가운 외로움이라고

손가락을 들어올려 마음 한 구석

그리움의 발에
어머니를 그리신다.
어머니 - 이
어머니 - 이

시린 땅 끝으로 손을 뻗으면
어머니의 정에 소매가 젖을까
한참을 그리신다
어깨를 흐느끼신다.

두동강이 나
시뻘겁게 돌아앉은 땅 위로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내려 부서질 때

어느새 찾아온 밤하늘은
외로운 미소 가득 묻히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

바 램

정 지 영

상당고등학교 1학년

‘이제는 그만 남남이다 생각하고 살자’
그리 다지고도 마음 쓰리는 건
소위 말하는 같은 피인 까닭인지...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손을 향해
뻗은 손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한의 응어리는 또 무엇을 바라는지도
아직 나는 모르겠다만
백두에서 한라까지
무궁화 꽃길을 엮은 것과
내 마음 가득히
천지의 물을 담아보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의 무게인 줄 아는 맘과
한반도의 태양이 하나되는 그날...
그날 흘릴 뜨거운 눈물의 감동을 나는 갖고 싶다

바 람

이 경 화

충북여자고등학교 2학년

길게 자란 풀숲을 헤치며
세상을 끼고도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엔
촉촉한 바람의 손길로도 아물지 않는
그저 지나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가려진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에는
그리 짧지 않은 헤어짐의 긴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흐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뿜은 한숨 속에는
가슴을 저미는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긴 세월간 쌓아온
하나라는 진실을
가을 하늘만큼이나 투명하게
우리의 머릿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잡았고,
머지않아 다가올
우리의 만남에의 설레임으로
저 멀리 퍼져 있는 금빛 노을처럼 붉어진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젠 눈물을 닦아야 할 때 입니다

제 주 희

충북여자고등학교 2학년

망각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희미해진 꿈의 조각들이
작은 하늘을 향해
꺼져만 가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의 산과 들을
하나 들썩 마음속에
묻고 싶어지는 건
시간의 흐름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집어 놓은 것을
다시 퍼내기에는
쌓아 둔 그리움과
지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존재하기에
자꾸만 눈물이
흘러 내리기 때문은 아닌지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린
우리가 미워져
그냥 돌아서고 싶어질 때
언젠가 하나됨으로 맞이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묻어 버린다고 잊혀질
우리가 아님을 알기에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 날을
난, 기다리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김 대 현

신흥고등학교 1학년

우리는 그날을 후회한다
우리들의 새하얀 옷을
붉디 붉은 피로 물들였던 날을
나라, 민족 그리고 오천년의 민족시를
두 동강 내어 버린 날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한다
생각만 해도 벽찬 설레임을
느끼는 날을
말로 따지고 글자로 적기 전에
콧날이 시큰하고 왈각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날을

우리는 그날이 오리라 믿는다
민족적 고통의 해결이요
우리 민족의 새로운 막을
올리는 날을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말이 없는 땀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지금은 얼음처럼 단단하게
얼어있는 분단의 벽이
4천만의 눈물로 땀으로 열정으로
녹아 내리고 오천년의 단일민족 역사를
이어가는 그날은 온다.

그날이여 어서오너라
이제 너는 올 때가 되었다.
너를 위해 흘릴
우리들의 소중한 피는 남아있지 않다

어서와서 너로 인해 세상이 밝아오고,
너로 인해 세상이 차오르듯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라
오늘도 나는 밝은 밤하늘 아래
피로 물든 하얀 옷을 닦는다

통일, 그 날을 기다리며...

정 우 정

삼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난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와 다시 만날 그 날을.

반백년 세월을 그대만 바라보며
몇 개의 은장도가 닳아졌는지 그대, 모르시겠죠.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파랗게 흘러내린 그리움들이
이젠 동해 바다를 이루었다는걸

모르시겠죠
재회를 기도하며 쌓아올린 작은 돌들이
이젠 태백산맥이 되었다는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난 생명의 내음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대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대 이런 나는 기억하나요?
그대 또한 나를 그리고 있나요?

그대를 믿어요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대와 난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



그리운 자리

김 현 승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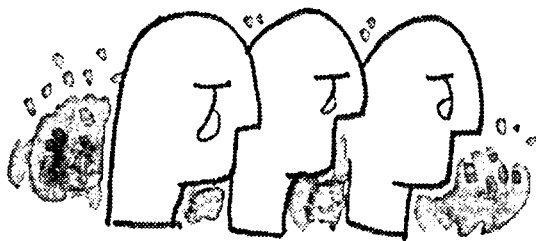
달의 고동소리가 멎어갈 즈음
그 분은 오늘도 바다위에
우두커니 서 계신다.

태초에 나뉘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바다를
가느다란 사선이 갈라놓았다며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

바다끝과 맞닿아 있는 수평선 너머에
자신의
밑동과
노래와
자리가 있다며,
그 분은 수없이
수평선을 잡아당겼다가 놓는다.

6월의 함성이 유난히도 드높던
그 바닷가에서
그 분은 남몰래 그 곳을 훑친다.

그 곳은
하나의 이야기가 피어나고
천상의 음표들이 울터나는 곳
동방의 새 향기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자리임을...



신념의 빛

강 승 희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조국의 흠내음만을
그리워하는 그들

불안과 허기에 못이겨
험한 강 건너려하는
어린 새싹들

한 맺힌 울분 터트릴 곳
없는 막막함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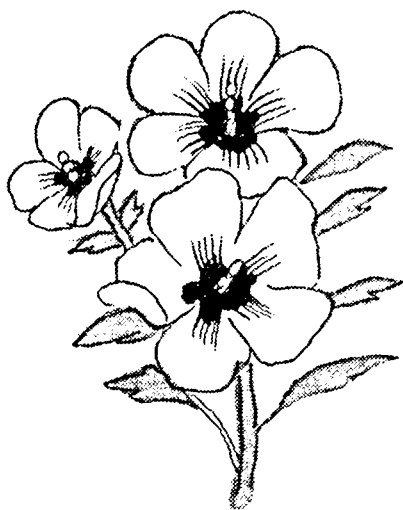
한 줄기 빛만을
신념으로 삼아

그들 모두
조국을 그리며
손에 쥔 피땀을
참고 살아간다.

언젠가는 지켜질
그들과의 약속

한낮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
빛에 물든 꽃이 피어나듯

언제일까
일출과 함께 다가올
그날은



비 돌 기

송 유 미

동래초등학교 6학년

“까르르!”

나는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가면 비둘기를 쫓아다녔다. 조금만 다가도 푸드득 날아가 버리는 비둘기. 나는 언제나 그런 비둘기 뒤를 쫓아다녔고 그때마다 나를 피하는 비둘기가 안타깝기만 했다.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남북한의 관계도 그랬다. 남한에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북한은 언제나 멀리 날아가 버리곤 했고, 겉으로는 통일의 협상에 참여하는 척 하면서도 잠수함이나 간첩을 남파하고는 했다. 이번만 해도 그렇다. 남한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배를 보내어 총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어릴 때는 남북한 통일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4학년 때였다. 4학년의 추억을 만들고자 각 분단별로 간단한 연극을 준비했다. 우리 분단에서는 남북한에 대해 6·25전쟁부터 통일이 된 후의 모습을 나타내기로 했다. 6·25전쟁 부분에서는 장난감 총으로 남북한이 싸우는 모습을 나타냈고, 통일 후에는 우리와 같은 나이의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나란히 학교가는 것을 나타냈다. 연극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남북한을 표현한 분단은 참 눈에

떡더군요. 그렇다면 얼마나 통일에 대해 아는지 몇 문제를 내볼까요?”

아이들은 모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우리 민족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모두 서로 눈치보기에 바빴다.

“아무도 몰라요?” 첫째, 우리는 한 민족 한 국가이며, 한 핏줄이기 때문이죠. 둘째, 가족과 헤어져 가슴을 아파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어야 해요. 셋째, 통일이 되면 현재보다 더 나은 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통일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자연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북한은 서로를 신뢰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꼭 통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연극만의 즐거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연극으로 남북한 관계의 실태를 다시 알게 되었고,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지요. 우리도 통일을 위해 북한과 우리 주변의 정세에 관심을 갖고 통일을 이루려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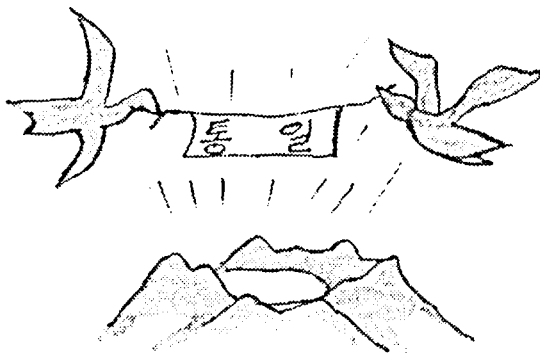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와 핏줄을 나눈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숙제는 북

한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세요.”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북한의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과 전쟁놀이를 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참 뛰어 놀아야 할 나이에 굶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고 여겨졌다.

나는 그후로 뉴스에 북한 이야기가 나올 때나, 다큐멘터리를 할 때면 꼭꼭 챙겨본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했다.

오늘도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비둘기를 쫓아간다. 언젠가 비둘기가 내 곁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때가 되면 우리를 피하기만 하던 북한도 한걸음 다가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지.



보고싶은 친구들에게

이 원 경

양운초등학교 5학년

보고싶은 친구들아!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쓴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고 슬프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나는 너희들의 소식이 무척 궁금하다. 가끔가다 뉴스나 신문에 너희들의 소식이 나오면 무척 기쁘고 좋아.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난 슬퍼질 때가 많아. 너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 등 슬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이니?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너희들 곁에 달려가서 먹을 걸 나누어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빨리 통일이 되어서 먹을 것도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같이 놀면서 늘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

요즘 내가 다니는 학교는 고무줄이 유행이야. 친구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빨리 밥을 먹고 고무줄을 하고 놀거든.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무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 재미있게 같이 놀자.

며칠 전, 북한이 남한의 고기잡을 수 있는 구역을 침범해 싸운 일을 기억하니? 나는 그런 일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어. 그 때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같은 민족끼리 그런 일로 다투는 게 너무 싫었던거야.

빨리 통일이 되는 수는 없을까? 난 다른 나라를 보면 너무 부러워.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로 갈라져 있지도 않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통일만 된다면 충분히 다른 나라 못지않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요즘 우리나라는 IMF로 인하여 나라 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오래 걸릴 지도 몰라. 그 때까지 우리 두 손모아 기도하자. 그럼 안녕!

1999. 6. 19. 토요일

- 남한에서 살고 있는 한 소녀로부터 -



북한에도 자유를

신 우 원

좌동초등학교 4학년

지난 일요일, 나는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갔었다. 낚시대에 미끼를 끼우고 한 참을 기다리니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왔다. 한 마리, 두 마리 나는 신이 나서 물고기들을 망태기에 넣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물고기들은 너무나도 슬픈 눈을 하고 힘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나에게 바다로 돌려 보내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 같았다.

“쫓쫓, 저런 하찮은 물고기들도 자유를 찾고 싶은 게야. 우원아, 우리 저 물고기들을 바다로 돌려보내 자유를 찾아주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잡았던 물고기들을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다. 물고기들은 바닷물 깊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갔다.

나는 낚시터에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았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본 굶주림에 지친 어린이의 모습과 자유를 잃고, 희망도 잃고 그저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들이 배부르게 먹고 반찬 투정할 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들은 낚시대에 잡혀 망태기에서 고통받는 물고기와 다를바 없다. 이들에게도

자유를 찾아 주어야 한다. 우리들은 한 핏줄 단군의 자손이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빨리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그 어떤 불행한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호시탐탐 전쟁의 기회만 노리는 북한 공산당은 동해안에 잠수함을 보내어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더니 며칠 전엔 배를 타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와서 우리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들의 자유를 노리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들 역시 낚시 망태기에 갇힌 물고기 신세가 될 지도 모른다. 나는, 제 나라 제 땅을 잃고 세계 각국으로 떠돌아 다니는 유럽의 코소보 난민들도 보았다.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는지 텔레비전으로 똑똑히 보았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통일 안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땅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미국의 힘도 아닌 이웃나라 일본의 힘도 아닌, 오직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평화를 지켜야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어른, 아이 구별없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평화 통일로 자유를 잃은 저 북한 동포를 구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빛내야 한다. 아버지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군인들은 이 나라를 지키려고 힘쓰고 있으며,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정과 사회 곳곳

에서 힘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고,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며 국산품을 애용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진정으로 강해질 때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마음속으로 외치며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였다.



하나된 나라를 위해서

박 예 미

망미초등학교 5학년

“딩동, 땡동.”

열한시가 넘어서야,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오빠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빠는 아랫배를 움켜잡고, 배가 고픈 듯, 어머니께 말했다. “배고파요. 빨리 밥주세요.” 그러나, 바쁜일이 있어서 미처 장을 보지 못하신 어머니께서는 오빠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며, 집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밥상을 차리셨다. 피곤했던지, 짜증이 난 오빠는 오래간만에 반찬투정을 했다. 얼마동안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 뒤적 거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맛 없어요. 안먹을래요.” 그러더니 자기방으로 문을 “쿵!” 닫고 들어가버렸다.

지금쯤, 북한어린이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울며 잠들고 있겠지. 굶고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비록 맛있는 반찬은 없아 해도 굶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오빠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가족끼리 즐겁게 외식을 할 때나, 비싼 옷과, 예쁜 머리핀을 살 때에도 가난한 북한어린이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다.

밤늦게, 나는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았다. 그런데, 북한 어리정

이 며칠전,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 왔다는 소식이 있었다. 6·25전쟁의 아픔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속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 평화롭던 연평도 앞 바다에서는 작은 전쟁을 연상케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혼자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께서는 또 놀라셨겠구나.

가끔씩, 옛날의 가슴 아픈 사연을 혼자 생각해 보시는지, 검게 그을리고 주름잡힌 외할머니 얼굴에선 슬픈빛이 오래도록 감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외할머니댁에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듣고, 외할머니 목소리가 생각보다 밝은 것을 알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우리 오빠처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주영할아버지께서 북한에 보낸 소들도, 또 북한에 보낸 많은 양의 비료도 북한과 남한의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뜻일텐데, 북한은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전쟁을 일삼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난 소들도 지금쯤 고향 목장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겠구나. 너희들이 다시 38선을 넘어 자유롭게 고향땅을 밟을 수 있는 그 날, 나도 반갑게 너희들을 맞아줄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한, 통일로 향한 우리들의 뜻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한, 하나된 우리나라, 통일된 우리나라는 머지 않았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통일’이란 꽃이 담긴 내 소설

최 태 규

요성동초등학교 6학년

우리 가족은 1년에 두 번 국립묘지에 간다. 한 번은 삼촌이 돌아
가신 날이고 또 한번은 6월 6일 현충일이다.

지난 해 현충일 아침이었다. 서울에 계신 큰엄마께서 전화를 하
셨다.

“태규야, 몇 시까지 올래?”

“큰엄마, 지금 출발할 거예요.”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신 삼촌께 가자는 말씀이셨다. 우리 가족
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탔다. 신도림역에서 갈아타고 동
작역에서 내렸다. 육교를 지나 국립묘지 입구에 도착하니까 사람
들이 많았다. 꽃, 돛자리, 모자 등을 파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었다.

국립묘지 안으로 들어갔다. 슬픈 음악이 흘러나왔다. 호각을 부
시며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아저씨들도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다.

나는 아빠 손을 잡고 헉헉, 한참을 올라갔다. 여기 저기서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꼬마 아이는 놀러 왔는지 묘비 사이로 개
구리처럼 뛰어다녔다. 삼촌께서 잠들어계신 곳은 맨 뒤쪽에 있었
다. ‘28묘역’이었다.

벌써 큰엄마께서도 와 계셨고, 고모께서도 울고 계셨다. 할머니는 더 등이 굽어 보이셨다.

또 더 많이 우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다. 우리 삼촌께서는 군에 계셨는데 이승복 어린이가 죽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묻히신 것이다. 사고 때 일곱 분이 함께 순직하셨기 때문에 묘비도 나란히 세워져 있다. 묘비를 읽어보니까 모두 '강원도 속사에서 순직' 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나는 국립묘지에 다녀오며 많은 것을 느꼈다. 삼촌이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왜 삼촌과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셔야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의 침략도 아닌, 우리 형제끼리의 침략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부끄럽고 화가 났다. 그래서 하루 빨리 남북통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의 일이다. 원호처에서 할머니께 연금과 함께 참치, 국수, 라면 등이 나왔다고 아빠를 올라오라고 큰댁에서 전화를 하셨다. 나는 아빠를 따라 서울에 갔다. 할머니는 참치 통조림과 국수를 차에 실어주시며 “에이 망할 놈” “에이 씨을 놈” 하시곤 또 우셨다. 아빠도 담배를 피우셨다. 나는 참치를 무척 좋아한다. 고등학생인 우리 누나도 좋아한다. 그렇지만, 원호처에서 나오는 참치는 먹을 수가 없었다. 삼촌의 얼굴은 모르지만 매년 할아버지 제사 때, 설날, 추석, 국립묘지에서 우시는 할머니가 가엾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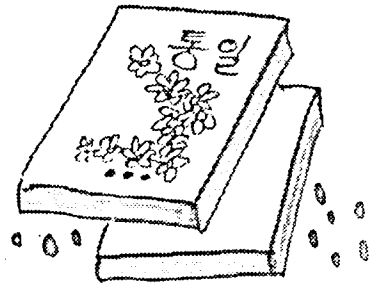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꼭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머니께서는 아들은 잃으셨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묻히신 삼촌도 어서 통일이 되어 다시는 젊은이들이 목적 없이 희생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할머니 연세는 72세이시다. 10년 안에 꼭 통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내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소설가가 될 것이다. 많은 소설가들이 남·북 문제를 글로 썼지만 어떠한 소설도 북한체제를 무너뜨리진 못했다. 또 지금까지 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나는 우리 할머니와 같은 눈물을 알리는 글을 쓸 것이다. 그 피 눈물을 내 글 속에 담아 북한 서점에 갖다 놓는다면 북한 사람들도 어서 통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이 꼭 와서 우리 할머니께 참치통조림 보다도 더 좋은 '통일' 이란 꽃이 담긴 내 소설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



우렁찬 철마소리

유 민 아

인천신현초등학교 5학년

1999년 5월 15일 우리 가족은 바다의 날 행사인 바다 그리기 대회에 참여 하기 위해 월미도 갑문 관리소에 갔었습니다.

비가 와서 연기는 되었지만 갑문이 개방되어 있어서 구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파란 바다가 보이는 바다 위에는 큰 배와 작은 배들이 떠 있고 하늘에는 갈매기도 '끼룩 끼룩'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섬도 보였습니다.

5월 29일날로 연기된 바다그리기 때,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면서 바다를 유심히 바라보다보니 '이 바닷물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으로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두 개로 갈라진 우리나라가 떠오르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요즈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몰래 우리나라로 온다는 사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운 고향을 두고 하나 밖에 없는 목숨까지 버려가며 자유 대한의 품으로 달려올까요?

그것은 아마 더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겠죠.

지금 우리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수도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햇빛과 같은 자유를 마음껏 받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여유의 돈도 없지만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워낙 부족 해 원하는 것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식량의 경우는 옷보다 더욱 사정이 좋지 않아 계급에 따라 배급
량과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지방주민 간에도 차이를 두어 평양은 잡곡 7에 쌀 3, 지방은
잡곡 8이나 9에 쌀 2나 1로 잡곡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배불리 먹는 것은 고사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서 대한민국에서는 길조라고 해서 보호하는 까치나 비둘기 까지
도 잡아먹는 실정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어려운 북한 사람들의 생
활 사정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술로 해서 돈을 벌
고, 북한은 아름다운 경치로 소문난 일만 이천봉의 금강산, 여름에
는 봉래산,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
라는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통일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 보다 더 잘살게 될텐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북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의
아픔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얼마전, 일요일!

우리 가족은 가족 봉사 활동을 위해서 인천 영락원을 찾았습니다.

그 곳은 무료로 운영이 되며 자식이 없거나 어려운 형편인 분들만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식사를 도와드렸고 우리는 말벗과 안마를 해 드렸습니다.

그 중, 햇빛에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던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기 위해 할아버지 곁에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드리며 무엇을 생각하셨냐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시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도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식과 친지들은 모두 북한에 계시고 우리같은 어린이만 보면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들 자라서 있겠지. 상상하시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이 될 수 있을거라 하며 자식과 할머니를 그리워 하시며 6·25가 다가오는 봄이면 더욱 더 생각이 나신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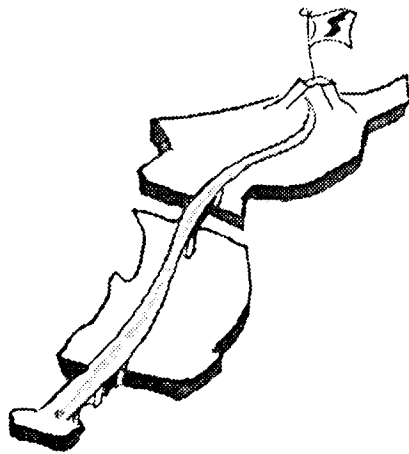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로 “할아버지, 꼭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을 위해 소도 보냈고 요즈음에는 비료도 보내면서 남북교류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 할아버지 희망을 가지시고 식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할머니와 자식들 그리고 상상하셨던 손주도 만나죠.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

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꼭 통일이 되어 실향민들의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될텐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깊은 갈등의 골을 메워 이제는 6·25의 아픔도 잊어 버리고 우리만이 아닌 7천만 우리 겨레가 함께 녹슬고 끊어진 철마를 연결하여 닫힌 마음의 문을 환짝 열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우렁찬 소리를 내며 철마가 달릴 수 있도록 통일의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한발짝 한발짝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와 내가 손 잡고

양 에 원

인천가좌초등학교 6학년

친구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만나면 전혀 낯설지 않을 것 같은 네가, 이 글을 받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연필을 들었단다.

나는 인천에 살고 있는 열 세 살 소녀란다.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얼마전 마지막으로 맞은 어린이날에는 부모님께 선물도 받고,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다 왔단다. 너희는 어떻게 지냈니?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한 것 같지 않니? 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신문을 보는데, 매일 신문에는 코소보 사태에 대한 끔찍한 기사들이 실려 있단다. 왜 세상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운 나쁜 어른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또 그 속에는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이 아무 이유도 모른채 두려움에 떨며 희생당하고 있어.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친구야!

어쩌다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6·25라는 민족간의 전쟁을 겪었잖아.

단군 할아버지의 같은 뿌리를 가진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동안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의 자랑스런 문화 유산들은 분명 너와 내가 똑같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나라의 문화 유산들이야.

그걸로 봐도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특히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우리 글이 있기에 더 자랑스러운 민족이었잖아. 그런데 6·25전쟁으로 인해 반세기가 다 되어가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믿지 못해 감시하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이웃나라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니? 또 6·25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슴아파하며, 서로 그리워하고 있잖아.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도 원산이 고향이신데, 6·25전쟁때 부모님과 잠깐 헤어져 피난가셨다가 영영 이별을 하고 마셨대.

지금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던 소련도 무너져 내리고 갈라져 있던 동·서독도 통일이 되어 화해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같은 형제끼리 이래야 하는 것일까?

친구야, 지금 우리나라는 훌륭한 대통령 할아버지와 여러 어른들 덕분에 IMF라는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너희는 어때니? 경제난과 식량난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신문에 난 너희들의 굶주린 모습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단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굶주려야 하는거니? 너희

들도 돌보지 않고 오직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너희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로 힘쓰고 있단다. 보내주는 구호품들은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궁금하고 보고 싶을 때 언제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만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어른들은 휴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왕래도 못하고 소식도 전할 수 없게 했는지 모르겠구나.

지난해에 금강산을 향해 '금강호'가 첫 출항하던 날은 마치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아 가슴이 벅찼단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우리나라 맨 끝에 있는 제주도의 이름다운 한라산을 보여주고 싶었다.

얼마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임진각에 다녀왔단다. 확 트인 통일로를 달리면서 이 길로 네가 있는 그 곳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길은 어디에선가부터, 더 이상 이어져 있지 않았지. 아쉬운 마음에 차창밖을 내다보니 철새 떼들이 네가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 내가 갈 수 없고, 네가 올 수 없는 곳을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도 한 마리의 새가 되고 싶었어.

친구야!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를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TV를 통해 가끔 너희들의 생활모습을 볼 때면 약간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는 말들도 있어. 그럴때면 50년이라는 두

꺼운 장벽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서로 느끼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곤 한단다.

친구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을거야.

우리가 어른이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호랑이의 허리를 조이고 있는 휴전선을 없애고 비무장 지대에 있는 희귀동식물들을 벗삼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우리의 지상낙원을 만들자. 반세기 동안 철조망에 둘러싸 웅크리고만 있었던 호랑이를, 이제는 힘껏 가지개를 쾅고 큰 소리를 내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하자꾸나. 그렇다면 그 호랑이의 위엄에 놀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다시는 넘보지 못 할거야.

친구야, 글로 쓰기에는 너무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구나. 우리가 다음에 꼭 만나서 오늘 다 하지 못한 말들을 두손 꼭 잡고 밤새도록 얘기해보자.

꼭 그런 날이 오리라 믿으며 연필을 놓는다.

1999년 아름다운 5월에

- 혜원이가 만나고 싶어하는 북한의 친구 두 손에 -

그 날을 기다리며

한 아 름

인천석정초등학교 6학년

지난 6월에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를 모시고 군인 아저씨들의 엄격한 조사를 받으며 북한 땅이 잘 보이는 애기봉에 갔었다.

그곳에서 아빠, 엄마, 외할머니와 같이 전시관에 있는 간첩들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둘러 보고 전시관 밖으로 나왔는데 강 건너 북쪽에서 대남 방송과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신기해서 북한의 노래와 북한의 말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두 귀를 꽂긋 세우고 들어 보았다.

외할머니께서 나와는 달리 그 소리에는 관심도 없고, 북한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망원경에만 남들보다 더 유심히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보고 계셨다. 그것은 결혼전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무남독녀 외동딸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11살쯤 되어 외할머니는 다니러 오신 친할머니를 따라 친할머니댁인 경상북도로 가셨고 어머니는 북한과 가까이 있는 강원도 철원에서 사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비극적인 6·25전쟁이 일어나고 3·8선이란 허리띠를 한 후 부터는 외증조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한 번도 얼굴을 보시지 못하고, 남과 북에서 서로를 그리워 하며 지내신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팔순이 되신다는 외증조 할머니 생

사를 알 수 없어, 생신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명절과 생신날만 되면, 외할머니는 눈물로 하루를 보내신다. 이런 외할머니의 마음을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3학년 때 하루는 외할머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한 곡 가르쳐 드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나에게 배우신 외할머니는 노래방에 가시면 빼놓지 않고,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그런데 요즈음 외할머니는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내년 회갑 때는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에 올라가 그리운 어머니를, 엄마를 소리쳐 불러 보고 미아가 된 어린아이처럼,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하고 안내원을 붙들고 애원을 해야겠다고 하신다.

‘정말 얼마나 보고 싶으면 3살 먹은 어린 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나는 매일 부모님과 같이 지내다가 얼마전 2박3일로 수학여행을 갔다왔는데, 그 때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한 민족 하나의 땅이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로 3·8선이란 경계선을 그어놓고, 50년이 되어도 엄마의 얼굴 한 번 보시지 못했으니 말이다.

작년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 회장이 북한에 소를 보내실 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고향이 그리워 방북 소를 부러워 한 일이 생각난다.

“내가 차라리 방북 소가 되었다면 고향에도 가 보고 부모, 형제도 만날텐데...” 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니 이산가족이 되어 우리 외할머니처럼,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며 사시는 모든 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금강산 개발과 소떼를 보내는 정주영 회장님처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며, 가난에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고 대화와 화합으로 남북회담을 하면, “열 번 짝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란 우리 속담처럼, 북한의 김정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세계지도에선 아기 호랑이 같이 작은 나라지만, 만남과 기쁨의 웃음소리는 저 넓고 파아란 하늘 높이 하루 빨리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철마가 달리는 그날...

김 대 원

일산저동초등학교 6학년

‘통일’이 글자를 위하여 우리민족은 아픔과 함께 사십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어렸을 때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엄마의 아들인 내가 아직도 이런 주제로 글짓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이런 주제로 글짓기를 하지 않도록 꼭 통일은 되어야 한다. 2000년 대에는 꼭 통일이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통일이 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우선 제일 먼저 꺼내고 싶은 말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가족없는 설움이 얼마나 크고 무엇보다도 슬픈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슬픈일인지.....

통일이 오면 어떤가? 40여년 동안 슬픔을 간직하고 있던 이산가족이 ‘통일’ 그것으로 40여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이산의 아픔과 슬픔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

백두산, 금강산 우리가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북한의 관

광지도 통일이 되면 언제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며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로만 듣던 백두산 천지도, 금강산 단풍도 까다로운 절차없이 마음대로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리운 금강산' 노래도 제목과 가사가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다. 통일이 되면 생활환경도 많이 바뀔 것 같다.

북한의 말과 남한의 말이 섞여서 당분간은 언어장애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정말로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매일 집에 들어앉아 컴퓨터만 하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과 같이 밖으로 뛰어나가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환경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건 내 생각인데 혹시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은 남한의 놀라운 산업발전에 매료되어 모두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한사람들은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꼭 북한 사람이 만든 '진짜' 북한 랭면과, 손으로 만든 개성 만두를 먹어보고 싶다. 통일이 되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향토 음식도 많이 맛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된다.

통일이 되면 세계 열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경제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을 합친다면 우리나라는 기필코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이 될 것이다.

난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중 축구를 매우 좋아한다. 얼마 전 북한과 남한이 친선축구와 친선농구를 했다고 한다. 예전에도 남북한 축구를 한 적은 여러번 있었다. 남북축구도 북한이 이겼고 여자, 남자 농구도 모두 북한이 이겼다. 요즘 한국축구가 조금 열세라고 하는데, 통일을 계기로 축구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의 강대국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지금 IMF가 터진 직후의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예전의 IMF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을 경제가 나아지는 2000년대가 되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TV에 나오던 북한에 굶주린 꽃제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 TV를 보았는데 북한 꽃제비라 불리우는 아이들이 시장을 헤매며 떨어진 음식 조각을 주워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같은 민족이면 서도 한쪽은 음식을 버리는데 한쪽은 버리거나 떨어진 음식을 주워먹다니...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이 되어서 이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나는 얼마나 기쁠까?

또 통일이 되면 군인아저씨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북한에 대비하고 있는 국군 아저씨들. 매일 힘든 훈련으로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시는 군인 아저씨들... 우리는 언제나 생각도 안하지만 이 군인아저씨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생활일까?

나도 군인이 되면 알겠지만 군인생활이란 것이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묵묵히 할 일만 하는 군인아저씨, 통일이 되면 군인 아저씨들도 이제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조그만 나라를 또다시 둘로 나누어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몽땅 안고 있는 우리나라. 그 아픔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통일' 뿐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창피한 나라이다. 같은 민족이 두갈래로 나뉘어진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남한 말도 가르켜 주고 싶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다.

동독과 서독의 예처럼 우리가 먼저 서독이 되어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술선수범한다면 철마가 힘차게 기적소리를 내며 북으로 달릴날도, '북한' '남한' 이 아닌 당당한 '한국'으로 불리울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천 해 선

의정부중앙초등학교 6학년

임진강이라는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바라만 볼 수 있는 곳, 자유로이 갈 수 없는 곳, 북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북한 아이들의 생활은 어떤지, 언어는 어떤지…….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의 궁금증을 안고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진다.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은 아주 다양하다. 비록 어린 나이에 철부지 생각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몇몇 친구들에게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많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서로 헤어져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이산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야.” “우리가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질거야.”

“글쎄, 북한이 잘 살아야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은 이루어져야지.”

통일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 한번쯤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바로 우리가 통일 1세대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통일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북한의 생활, 언어, 정치 등 북한에 대해 잘 알아두고 이해한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떨어져 있으면서 남한과 북한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우리에게만 자유가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정치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서로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 자세히 잘 아는 일이 꼭 필요할 것이다.

둘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우러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각자 다르지만 통일을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는 모두 같을 것이다. 북한을 잘 이해하고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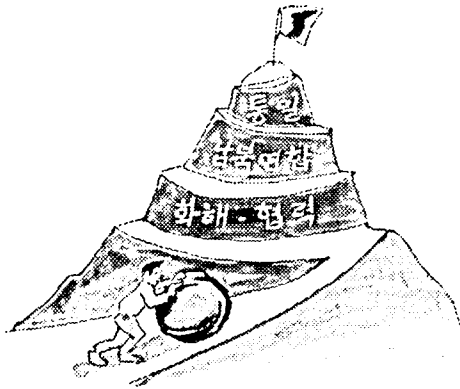
저 임진강 너머 북한땅을 바라보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 가족을 생각하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지난번에 내가 만난 택시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

다.

“이 아저씨는 어머님과 4남매를 두고 6살 때 이곳으로 왔단다. 어릴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보니 어머님이 보고 싶구나. 지난번에는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이 택시에 타서 고향이 보고 싶다고 술주정을 하길래 아저씨가 호통을 쳤지. 기차 3~4시간만 타면 고향에 갈 수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50년 동안 고향을 바라만 보면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허허허…….”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이산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통일에 대비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글짓기를 하지 말고 북한에 직접 가서 글짓기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북한의 학생에게 보내는 글

박 은 비

의정부호동초등학교 6학년

안녕? 북한의 친구들아? 나는 남한에서도 너희와 가까이 살고 있는 신도시 일산에 사는 친구야.

오늘 난 너희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위해서 또 글짓기 대회로 인해서 이 통일전망대에 오게 되었어. 아빠의 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 왔어. 통일전망대에 오려고 올라가는건 버스를 탔어. 오르막 길을 달리는데 길가에 코스모스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 코스모스가 모여서 활짝 피어 있으니 더 예뻐보였어. 언뜻 나는 너희 북한의 친구와 우리 남한의 친구들이 모여서 저 코스모스들 처럼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지?

나는 이렇게 통일전망대에 도착해서 먼저 엄마와 북한의 사진 자료와 옷 교과서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에 갔었어. 최고급 옷을 보았는데 우리에게 보통 옷가지들이 너희에게 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았어. 스웨터……. 지금 나도 입고 있는 걸 그리고 외출복, 달린옷, 백화점 전시품도 보았어. 이 중에서 달린 옷은 원피스지? 학교에서 배웠어. 나도 간단한 말은 알고 있어. 노크가 손기척, 주스가 과일단물, 도넛이 가락지빵, 도시락이 껍밥……. 놀랍

지 않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너희와 우리의 언어, 말의 차이가 5만개 이상이라는 거야. 얼른 통일을 해서 말의 차이를 극복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들이 다니는 인민학교 교육과 교과서를 보았는데,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너희보다 계산, 도형이 더 어려워 보였어. 그 중에서도 수학, 나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또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반성하게 되었어. 심부름도 청소도 열심히 하지 않거든. 마지막으로 의식주 생활을 보았어. 의, 옷은 보아서, 주생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식생활을 보기로 했지. 그런데 풀을 뜯고 옥수수 죽을 만들어 들고 있고 굶는 모습은 보기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그리고 난 이제부터 새로운 결심을 했어. 행복한 내가 하는 반찬투정을 하지 않겠다고,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이야. 이제 난 엄마와 전시관 구경을 다 했어.

내가 어제 엄마께서 빌려주신 책 한 권을 읽었어. 학교 선생님이 쓰신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왔대요' 라는 책이야. 그런데 이 책에서 너희와 우리를 갈라 놓고 있는 휴전선을 담장이라고 표현하고 두 아파트를 잇지 못하게 하는 쓸데 없는 담장을 두고 이야기를 쓰셨더라. 우리들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자. 어느 아파트들이 있었대. 두 아파트는 사이 좋은 이웃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파트 사이에 커다란 담장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왕래에 불편이 생기고 지나다닐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아이들만은 그 담장을 설 새없이 넘고 넘어져 무릎을 다친 아이도 많았대. 계속 이러니 그 담장에

작은 구멍이 생겼고 나중엔 오토바이, 자전거가 가야 한다며 더 큰 구멍이 생겼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

‘저 구멍으로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찌지? 그걸 대비해 만든 담장인데……’ 하고 말이야. 무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고 남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담장을 헐어버려야 겠다고 생각했지. 결국 담장은 허물어졌대. 좋은 일이지? 우리도 너희와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 담장인 휴전선을 헐어버려야 해. 우선, 우리의 마음의 벽은 허물어졌어. 봐,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음악회를 하고, 쓰루가 항에서 연습도 하지 않고 아리랑을 부르며 춤추고 울고……. 또 이번에 체육대회도 함께 열었잖아.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벽은 허물어졌고 휴전선이라는 벽을 헐어버리는 일만 남았어.

6. 25전쟁으로 인해서 멈춰져버린 철마, 그 철마가 수십년 동안 달리고 싶어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임진강 위가 북한, 아래가 남한이지만 우리는 한 민족 한 마음이니까 통일하여 협동, 봉사, 친절하도록 노력하자. 통일이 되어 서울에서 평양까지 달리는 기차,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리를 잇는 자유로를 놓자.

나는 지금 너희가 사는 곳을 바라보고 글을 쓰고 있어. 지금 임진강에 비치는 햇살은 더욱 밝아보여. 저 멀리 울룩불룩한 산이 보여. 우리 꼭 통일을 해서 우주 속에 하나뿐인 지구, 지구속에 하나뿐인 한국을 만들자. 통일이 되는 그 날, 우리 서로 어깨동무하

고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어보자. 그 날을, 그 날이 꼭 오기를 약속
하며 이만 줄일게.

안녕

- 통일을 염원하는 친구가 -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

송 보 나

고양시 냉전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할머니께서는 간절한 소원이 한가지 있으셨다. 제발 죽기 전에 남·북이 통일이 되어 북녘의 흙 한 움큼을 만지시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통일이 된 것도 못 보신 채, 돌아가셨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어머님께서 북녘 땅은 보고 가셨어야 했는데…….” 하시며 안타까워 하신다.

우리 할머니의 고향은 북한의 함경도 부근이다 보니 추석날이나 명절때가 되면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이산 가족에 대해 나오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럴 때마다 나도 가끔씩은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그 아픈 기억은 여기부터 시작된다. 625 전쟁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셨다. ‘이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며…….’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북쪽에 한 핏줄의 부모, 형제를 모두 모두 두고 남쪽으로 오셔야 했다.

그 때는 모든 것이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에 시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파괴된 건물, 황폐해진 산. 이렇게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진 것이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 때

마다 나에게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면 통일이 쉽게 될텐데…….’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되면 한 핏줄 한 민족이 모여 서로가 손 잡고, 지난 날의 아픈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몇 끼니를 굶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이 모두가 굶주림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북한과 또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남·북한의 통일은 그리 멀지 않았다. 그 동안에 무관심 때문에 통일이 늦춰진 것은 아닐까? 지금 당장이라도 강 건너 가고 싶은 북한 땅, 하지만 우리는 통일의 그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나는 가끔, “어머니, 아버지. 그럼 우리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지!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을 앞당기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밖에는 없겠지. 안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뒤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할 21세기. 그 21세기를 대한민국 모든 민족이 같이 할 수는 없을까? 대한민국 민족 모두가 단합되어 7천만의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꼭 지켜드려야 겠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할머니 대신 고향의 흙 한줌만 묘 앞에 놓아다오. 알았지?”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않고 꼭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소원 꼭 이루어 드릴게요!’

통일전망대에서 본 북한

정 지 용

하남동초등학교 6학년

내가 5학년때 난 속초위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 가게 되었다. 그곳 중 난 통일전망대에 문득 가게 되었다.

내가 그 통일전망대에 가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원하고, 내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남북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북한 땅을 실제로 밟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망원경을 통해 북한의 땅을 구경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그곳은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달랐다. 난 그곳에 가기 전 난 통일전망대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리 분단된 나라라 할지라도 통일전망대는 남북이 같이 소유하겠지?’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나는 실망 또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남북이 같이 관리하기는 커녕 남북이 서로 충돌을 겨누면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고 긴 철조망이 우리 통일의 길을 막고 있었다. 통일전망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곳 통일전망대서 북녘 땅까지 약 200m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 짧은 거리를 갈 수 없다니 참으로 원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통일전망대를 둘러 보면서 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저 푸르고 아름다운 북녘 땅의 금강산과 해금강,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우는 모습. 또 북한 공산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경을 지키시는 국군아저씨들,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북녘의 어민들과 공산군. 마지막으로 금강산에 써 있는 북한 푯말과 라디오 방송 등……. 하지만 그 많은 것들중 내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우는 모습과 장엄한 금강산이었다. 그 6·25전쟁만 아니면 서로 이렇게 적대관계를 이루지도 않고 서로 협력하였을 것인데……. 그 일 때문에 이산가족이 생기고, 또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며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모든 세계가 우리 나라의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예날 대예언자였던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제3차 세계대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터져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그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겠다.

그리고 난 그 장엄한 금강산을 보고 놀라움을 그치지 못하였다. 금강산을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일부만 보고도 난 놀랐는데 그 속은 얼마나 신비로울까? 그런 그 장엄한 산을 눈앞에서만 볼 수 없다니 너무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다. 남북분단이 된 것은 남한만의 잘못만은 아니요, 또 북한만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이다. 이제부터는 서로가 잘 타협해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통일전망대에 다녀와서 느낀 점은 남북한 모두가 타협하여 우리 민족 모두의 소원인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실향민의 고통을 없애고 남북이 협의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겠다고 난 생각하였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장 애 규

뫁탄초등학교 6학년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벌써 가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심으시고 가꾸셨던 앞 뜰의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어제 목포에 계신 고모 집에 가셨어요. 감도 따시고, 콩도 넣으시고, 고구마도 가지고 가셨어요. 고모께서 아이를 낳으신다고 하세요.

보고싶은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금강산의 단풍이 더욱 빨강게 보였어요. 생전의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할아버지의 고향, 금강산 근처의 조그만 마을, 그 곳에 단풍이 들었다고 금강산 구경을 갔던 한 여행객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을 갈 수 있어요. 비록 금강산 밖에 갈 수 없지만 우리나라 배를 타고 동해를 지나 바다의 38선을 넘어 금강산을 구경 갈 수 있어요. 아마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리던 할아버지의 고향을 다녀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남한의 소들이 판문점을 지나 북한에 가다가 하면, 우리의 기술자들이 북한에서 원

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요, 여러 가지 운동도 나누어서 대회를 하기도 해요. 축구도 하고요, 농구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자꾸 남한과 북한이 왕래하면 언젠가는 할아버지께서 그리던 조국통일도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보면 슬퍼져요. 왜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누나도 다이어트한다고 저녁을 먹지 않아요. 그럴 때 마다 나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요.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면 해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비밀 한가지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저녁마다 할아버지 사진을 닦으시며 “당신은 좋겠슈, 고향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보고싶은 사람들도 날마다 볼 수 있고..., 나도 빨리 당신곁에 가고 싶소.” 이러신 겁니다.

할아버지, 그렇지만 할머니는 오래 오래 사셔야 해요.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을 정말로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할아버지 오늘은 이만 쓸게요.

안녕히 계세요.

1999년 11월 1일

- 할아버지를 보고파하는 손자 해규 올림 -

이름모를 북한 친구에게

조 은 비

광주문화초등학교 6학년

안녕? 난 광주 문화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은비' 라고 해
나는 지금 푸른 잔디가 넓게 펼쳐 있고 소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주는 삼일운동 기념탑 앞에 와있어.

너를 위해 편지를 쓰려고 말이야. 난 해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
는 6월이 되면 꼭 너희들을 생각하곤 해.

먼 50년 전에 살았지는 않지만 그 때의 상황은 다 공부하다 보
면 알게 되는 법이지. 이산가족의 아픔들을 말이야.

우리나라의 지도에 붉은 선이 그어졌을 때 갈라진 이산 가족들
은 땅을 치고 통곡했었지.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산가족의 울음소리는 변함없이
그치질 않고 통일의 욕망은 더해가고 있잖아.

너에게 꼭 한번 편지를 써보고 싶었는데 오늘 너에게 편지를 쓰
게 되어 정말 좋다.

북한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모습, 뼈만 앙상
하게 남아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
어.

그래서 나는 꼭 통일이 되어 너희들과 같은 집에서 같은 학교에

도 다니고 재미있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한 민족, 한 겨레, 한 핏줄끼리 이렇게 갈라져 살아서야 되겠니?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이런 노래도 있잖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난 이 노래의 가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다행이도 작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으로 소 500마리를 몰고 가셨지?

나도 정주영 회장처럼 북한에 큰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아직 어리잖아.

이름 모를 친구야!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만나자

항상 저녁마다 통일이 되기를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야돼!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1999년 10월 29일

- 남한에서 친구 은비가 -

통일의 꽃 무궁화

김 련 아

창원시파초등학교 6학년

6월!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가슴에 맺힌 사람들이 국립묘지를 찾아 한을 달래는 달이다.

우리 학교에서 6월 1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실천하고자 태극기·무궁화 그리기를 하였다. 이 날은 마침 6월 15일 민방위 훈련일이다. 오후 2시부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되어도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전 10시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과 우리 고속정이 전투를 벌였다는 민방위 가상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었다.

하지만 설마하며 두려움을 접어두고 통일안보 학예행사를 실시하는 데 나는 나라의 꽃인 무궁화를 그리고 싶었다.

6월이면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궁화를 그리면서 우리나라 꽃이 화려하지 않지만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꽃 중에서 무궁화가 왜 우리나라 꽃이 되었는지 궁금하였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이 들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아마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순결함과 숭고한 정신, 끈기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 것 같았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식이었다. 놀라서 귀를 기울여 들으며 신문에 실린 북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일에 스크랩 하였다.

며칠이 지나 또 사건이 벌어졌다. 금강산 관광을 하던 중 가정주부가 북한 안내원에게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가정주부의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아니 그 가족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긴장을 하고 있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좋지 못한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나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어린이들에게 사랑스런 우리의 꽃 무궁화를 보여주고 무궁화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무궁화는 우리의 따뜻하고 순결한 마음과 피고지고 또 피는 끈기력을 가진 무궁화를 사랑하고 아끼자는 말을 해주고 싶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이 무궁화 노래를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모두 부를 수 있다면 좋겠다. 다가오는 새 천년 21세기를 위해 후손들에게 무궁화를 알리고 그 무궁화가 더욱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겠다.

무궁화

박 다 정

도계초등학교 3학년

‘딩동딩동’

쉬는 시간이 끝나고 3교시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애들아, 조용히 해. 선생님 들어오셔”

따가운 여름 햇살을 뒤로 하신 채, 기다리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한아름 안아 들은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시며

“오늘 미술 시간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그려보자꾸나 무슨 꽃이든 좋아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꽃을 그린 뒤, 친구들 앞에서 왜 그 꽃을 좋아하는지 발표도 해 봅시다.”

선생님 말씀이 끝나시자 교실안은 갑자기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졌다.

“다정아, 넌 무슨 꽃 좋아하니? 무슨 꽃 그릴거야?”

유난히 눈이 큰 내 짝 수지는 왕방울만한 두 눈을 꿈뻑이며 물어보았다.

“글세 무슨 꽃을 그리지? 넌 무슨 꽃 그릴건데?”

말꼬리를 흐리는 나에게 두 손을 탁치며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난 키 큰 해바라기를 그릴거야. 해를 바라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쑥 크는 노오란 해바라기 예쁘지 않니?”

그릴 꽃을 결정한 내 짝 수지는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려 나갔다.
'무슨 꽃을 그릴까?'

곰곰히 생각하던 나는 학교 정문 앞에서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던 보라빛 무궁화가 생각났다. 하얀 도화지 위에 꽃잎을 그린 뒤, 보라빛, 분홍빛, 하얀빛 고운색을 칠하면서 무궁화 꽃을 완성해 나갔다. 다른 친구들은 재잘 재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나라꽃 무궁화를 그리는 나는 웬지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경건해 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들의 그림이 완성되자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앞에 들고 나와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꽃을 그리게 된 이유를 발표했다. 봄을 알리는 노오란 개나리 꽃을 그린 민경이, 학교를 대표하는 하얀 목련을 그린 경필이, 그리고 학교 담장을 칭칭 감고 빠알간 자태를 뽐내며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장미가 좋다는 현주까지의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내가 그린 무궁화를 보여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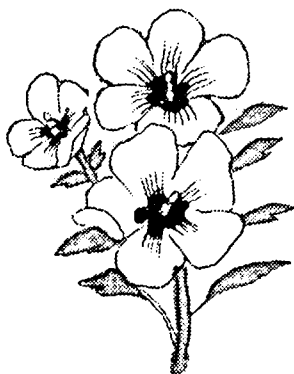
“전 무궁화를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지요. 저는 무궁화를 보면 지난달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강경이란 곳인데 살아계실 때 무궁화 꽃을 좋아하셨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통일전망대를 간 적이 있는데 고향을 가까이 두고도 가고 오지 못하여 눈물을 삼키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만 하시다가 고향

에 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픡니다. 여러분도 통일을 생각하며 우리 겨레 꽃 무궁화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끝나자 선생님과 친구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 주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금강산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남북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으니 다행이지. 우리가 한 민족이며 같은 동포라는 것을 느끼며 사람이나 편지 물자 등이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통일은 결코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닐거야.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기원해 보자꾸나.”

하시며 나의 등을 톡톡 두드려 주셨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할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내가 그린 무궁화 그림을 놓아 드려야 겠다. 지금쯤 할아버지께서는 새가 되어 나비가 되어 그리운 고향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시겠지.



무궁화

정 경 봉

용연초등학교 4학년

작년 여름 아침나절 활짝 핀 무궁화를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외할머니댁 뒷마당 한 모퉁이에 여러 가지 나무와 꽃들과 어울려 피어있는 꽃 무궁화이다. 한 눈에 눈길을 끄는 꽃은 아니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피었다가 지고 또 피어나는 꽃이었다.

그 긴 여름내내 피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

우리는 무궁화를 많이 닮은 민족인가 보다.

여름내내 따가운 햇빛과 거친 폭풍우도 견뎌내고 피어난 꽃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성장한 우리 민족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된 민족이 지금은 엄청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

6·25 동란이라는 민족의 비극 앞에 헤어져 살아야 했던 우리는 통일이라는 한 길을 닦아야 한다.

여태껏 그 동란 때문에 갈라져 살아온게 너무 서럽다.

우리는 남과 북이 계속 긴장속에 대치를 하고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머나먼 우주까지도 왔다갔다 하면서 가장 가까운 북한에만 못간다는게 안타깝다.

내 또래의 북한 어린이들과 축구며 야구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라도 같이 하면 좋겠다. 나뉘어져 살고 있는 동안 달라져가는 문화들. 패스는 연락, 헤딩은 머리막기, 코너킥은 구석차기란다.

언어 외에 그들의 생각도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안타까움과 함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햇볕정책이란 잘 알수 없지만 이름도 생소한 정책을 펴고 계신다. 우리 한 거래 한 핏줄인 북한의 우리 민족을 끌어 안으려는 이름에 맞는 정책을 하고 계신다.

유일한 단일민족인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마음껏 세계에 펼쳐야 한다. 하나된 우리민족이라면 경쟁자가 없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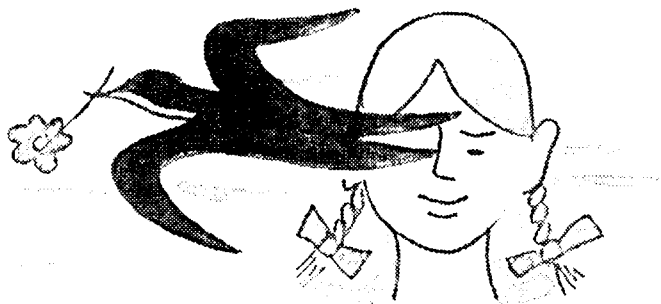
세계 모든 나라가 참석하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볼 때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한', '북한'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러웠다. 전세계에 대한민국(KOREA)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져야만 한다.

몇 해전에 독일이 통일 됨으로써 지구상에 유일하게 둘로 갈라져 있는 나라. 통일의 물꼬를 터야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통일은 이루어져야만 된다.

나는 '북한 동포들에게' 라는 편지를 학교에서 몇통이나 썼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백두산도 구경하고, 한라산도 구경하며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통일을 위해 힘써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이루어야만 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도우면서 이해하면서 이웃간의 정을 쌓듯이 풀어나가

야 한다. 우리 민족만이 풀어야 될 매듭이 아닌가? 저마다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을 민족의 한을 우리는 풀어주어야 한다. 한 동안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다. 정주영 할아버지의 통일소 등등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이렇게 서로가 노력한다면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하고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 얻어진 것이 있다면 과연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통일이 라는 도로를 내도록 힘써야 된다. 그 도로 양옆에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어보면 어떨까?



무궁화를 사랑하는 아이들

류 승 태

밀양삼랑진초등학교 6학년

같이 뛰놀고 싶은 친구들아, 안녕?

난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를 가슴에 달고 너희들과 같이 뛰놀고 싶은 류승태야.

여기는 햇볕이 짙게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인데 그 곳 북한은 어때니? 통일이 되어 있으면 차 타고 당장 가고 싶은 곳인데……. 섭섭하구나.

너희들도 무궁화꽃 알지? 하긴,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모를리 없겠지.

우리 집 앞 길가에는 무궁화 묘목이 많이 있어. 그래서 흰색, 보라색, 분홍색, 아름다운 무궁화가 많이 핀단다. 나는 흰색 무궁화가 제일 좋아. 왜냐구? 우리 민족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흰 빛깔을 좋아하고 태양을 숭상해 왔잖아. 흰 빛깔은 우리 겨레의 맑고 깨끗하며 순수한 마음의 표상, 그리고 태양은 밝음의 근원으로서 모근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이지? 그래서 우리의 개국 이야기에 나오는 '배달', '단군', '박혁거세' 등은 모두 '크게 밝음'이란 말 뜻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흰 빛깔과 태양을 닮은 꽃이 우리의 나라꽃 무궁화 아니겠니? 너도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사는 민족이니 잘 기억해 뒤!

요즈음 금강산 유람선이 동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지금은 죄없는 아줌마가 너희 땅에 불모로 잡혀서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나도 금강산 관광을 가게 된다면 꼭 무궁화 묘목을 두 그루, 아니 열 그루라도 들고 가서 그곳에 심고 올거야. 금강산 관광에 외국인들도 가잖아. 그들에게 아무데서나 잘 자라고 오래 꽃 피우며, 질 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깨끗한 기상과 닮은 이 무궁화꽃을 보여주어 우리 나라를 자랑하고 싶어.

북한의 친구들도 나처럼 무궁화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북한 친구들아, 너희들은 옛날 여학교에서 유행한 '무궁화 자수본'을 본 적 있니? 열세 송이의 무궁화와 여덟 개의 봉우리만으로도 대한민국 지도에 무궁화를 수 놓았더구나. 그 때는 남북 사이에 휴전선이라는 선이 없을 때지?

우리 외할머니도 육이오 전쟁으로 부모님을 북에 남겨두신 채,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급하게 임진강을 건너셨다고 해. 임진강이 그만 막혀버리자.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계속 내려 오시다 결국은 거제도 까지 내려가 거기서 미군부대 통역관으로 근무하시던 외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어. 그런데, 애들아!

외할머니께서는 북에서 딴 무궁화를 책 사이에 간직하고 내려오셨는데 지금도 책갈피에는 북쪽에서 딴 무궁화 꽃잎이 예쁘게 간

직되어 있어.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무궁화만 보면 북쪽에 남겨두신 부모님이 생각나시는지 눈물 고인 눈으로 머언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곤 하셨어.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던 외할머니는 올 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외할머니의 무궁화 이야기가 생각나서 무덤 앞에 조화지만 무궁화 한 송이를 사다 놓았어.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

우린 새 천년 시대에 대비한 꿈나무잖아? 그러니까 우리부터 통일이 되길 기원하고 대한민국의 상징 무궁화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른이 되는 날, 아니 더 일찍 통일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니?

지금부터 노력하자!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여 하루빨리 통일을 하도록 하자꾸나. 초등학생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구? 힘들다고? 아니야, 우리가 무궁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모습을 남북한 어른들이 보아 깨우쳐 회담도 성사시켜 하루빨리 통일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난 통일이 된다면 무궁화 한 송이를 가슴에 달고 통일로를 힘껏 달릴거야. 힘들더라도 우리 반 아이들과 뛰도록 노력할 거야. 무궁화를 가슴에 달고

북한 친구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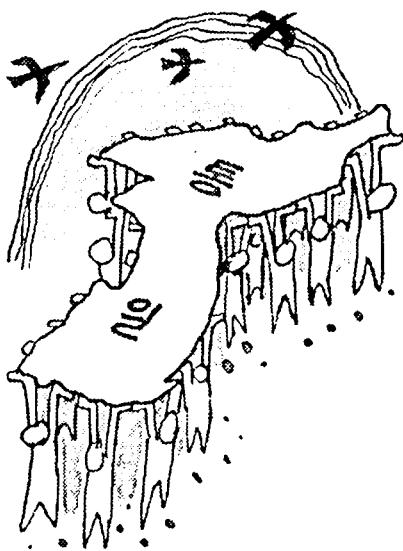
너희들도 꼭 노력해, 통일이 되길!

통일은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마! 그러니

까 무궁화도 사랑하구……. 이것이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민족화합의 나라사랑이란 걸 잊지 말아 줘. 안녕!

1999년 6월 25일

-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고 무궁화를 사랑하는 류승태가 -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조 아 라

북대초등학교 6학년

새로운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한국은 부끄럽게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등을 지고,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이다. 다른 나라들은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통일을 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라는 말을 들으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한 민족, 같은 조상의 자손인데 그 동안 왜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서로가 합치면 더 잘 살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가끔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아이들을 보면 방 안에서 안타까움을 한숨으로 내 쉴 수밖에 없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 지금은 '북한 어린이들 돕기'의 성금밖에 못내는 상황이지만 만약 통일을 한다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같이 슬픔을 나누며 도와줄 텐데, 우리 민족의 마음을 콕콕 찌러 눈물을 나오게 하는 뾰족한 삼팔선이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있다.

어른들은 왜 통일을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어린이들의 마음이면 의논도 할 것 없이 삼팔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마음을 잡고 더 강한 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텔레비전에서 보면 남북이 같이 축구를 하고 서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행사를 많이 할수록 통일의 앞날은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 질 것이다. 그리고 몇 달전에 금강산 관광여행을 뉴스에서 크게 보도하였다. 금강산 여행을 다녀와서 웃음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갔다온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북한 땅이 고향인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고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설레고 들뜰까?

다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유명한 산이나 강 바다에 놀러올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남북을 많이 돌아다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서로 친근해 지고, 정이 들어 통일의 그 날이 더 가까워 질 것이다. 어차피 통일을 하면 남한에게도 북한에게도 모두 좋은 일이 날 것이다.

남한은 더 강한 나라로 발전되어 좋고, 북한의 아픔을 위로해 주며 슬픔을 나눌 수 있어 좋고, 북한은 굶는 백성들도 없어져 남한의 위로에 용기를 내어 힘차게 살아나갈 것이다. 사이도 좋아져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을텐데 왜 통일을 망설이는 것일까?

21세기에는 꼭 나의 소원대로 아니 우리 민족 모두의 소원대로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21세기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더라도 북한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좋겠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이다.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플까? 그 슬픔도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해서 망정이지 직접 겪는 사람은 매일마다 통일이 되기를 빌 것이다.

그 슬픔이 빨리 행복으로 바뀌려면 통일의 순간도 한 발짝 더 앞서야 할텐데...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한국을 보면 매우 한숨을 질 것이다.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유행가, 공부 수준 등을 가르쳐 주고 싶다. 나도 북한의 유행가, 말투 등이 무척 궁금하다.

북한에는 남녀차별이 모두 없어졌을까? 빌딩이나 공장이 있을까? 공공시설은 잘 되어 있을까? 유승준, H.O.T의 노래를 불러주면 랩이 어지럽다고 하는 구세대일까? 멋지다고 하는 신세대일까?

통일이 되면 무척 신날 것 같다. 한달간은 뉴스에서 통일에 관한 얘기만 나올 것이고, 이산가족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로 삼팔선은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책들도 '드디어 이루어진 통일'이라고 하는 책들로 서점과 도서관을 꽉꽉 매울 것이다.

나도 내 나이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커서는 훌륭한 작가가 되어 통일에 대한 좋은 글을 많이 쓰겠다.

통일을 하면 한국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겠지?

통일의 그 날을 위하여 큰 소리로 외치겠다.

"남과 북! 통일이 되기를 빌며, 통일이여~ 화이팅!"

아직 해결되지 않는 숙제

정 구 연

수곡초등학교 5학년

“아이씨. 애 왜이리 안와?”

30분째지만 영주는 오질 않았다. 모처럼 일요일에 친구들과 잡은 스케줄인데 친구 중 한 명이 오질 않았다.

“애들아!”

그때 멀리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야, 빨리와 왜 이렇게 늦었어?”

“진짜루 미안해 얼른 들어가자”

우리가 간 곳은 북한관이었다. 북한관에 들어가자 여러 사진과 자료들이 있었다. 관람 후, 우린 어린이 회관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놀이기구도 탔다. 신나게 논 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물었다.

“빨리 말해봐. 왜 늦은거야, 평소엔 안 그러면서…….”

“실은 여기 오는 버스를 탔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노려 보잖아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무서워서 다른 자리로 갔는데, 따라오잖아. 그때 그 아저씨 차림새를 보니까 간첩생각이 들어서 신고해서 경찰서 가고 난리였지.”

“그래서 그 아저씨가 진짜 간첩이었어?”

“당근 아니었지.”

원래 당돌하고 좀 엉뚱한 영주라서 그런 일은 사소하게 느껴졌다.

간첩. 북한관. 내 생각엔 모두 통일만 하면 없어질 것들인데 50년이라는 세월을 길게 붙잡아 온 우리 민족들을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외국인이었어도 한심하게 봤을 것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보면 한 민족이 두 민족으로 나뉜 나란 우리 나라 뿐이다.

서로 협동하여 잘 살아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며 살아온지 벌써 50년. 50년이란 세월을 만약 싸움도 하지 않고 협동하며 살아왔다면 우린 지금쯤 미국보다 더 발전한 선진국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한 핏줄이 두 핏줄로 나뉘어 고통스런 50년을 보내며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민주적인 우리에게 비해 정반대인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우리와 한 나라로 어우러지긴 힘들지도 모른다. 그치만 우리 모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 북한을 받아들여 준다면 좋지 않을까. 북한도 아주 조금씩만 우리를 받아 준다면 어떨까.

아마도 우리의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큰 숙제는 통일이라는 한 송이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일일 것 같다.

할머니의 눈물

한 애 리

운천초등학교 6학년

울고 계신다. 오늘도 울고 계신다…….

“49년전, 눈보라 세찬 바람에 온 세상을 추위와 공포로 떨어야 했던 나날들…….”

조심스레 열어본 할머니의 방에는 한 방울, 두 방울의 눈물 소리와 지지직 거리는 라디오에 힘없이 흘러 나오는 6·25 전쟁의 대한 몇 마디의 설명 뿐이었다.

뭐가 그리 슬프신지 흐르는 눈물을 거친 손으로 감추시던 할머니. 한 발짝 더 다가가 어깨 넘어로 보인 것은 초라한 앨범 속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할아버지의 형제 사진이었다.

언젠가 큰할아버지께서 일사후퇴 때 철공소 기술자로 끌려가셨다는 생각이 텅빈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했지만, 오늘은 왠지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다음날 아침. 따스한 가을 햇살을 맞으며, 우리 가족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항상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우리를 깨워 주시던 할머니께서 오늘은 다르셨다. 뒤늦게 나오신 할머니의 부은 눈

을 보곤 난 어제 늦게까지 울고 계셨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할머니께서는 아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셨다.

어제는 어려웠던 인사를 할머니께 드린 후,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탁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나는 그렇게 이야기 꽃을 피웠다.

“할머니, 6·25를 겪어 보셨어요?”

“암, 겪었지. 이젠 그때 기억도 하나, 둘 사라져 가는 것 같구나……. 지금은 돌아 가셨을게야.”

“큰할아버지요, 어쩌다 그런일을 당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렵게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셨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우리 가족들은 무서움에 서둘러 집을 챙겨 피난길을 떠났지만, 큰할아버지께서는 다르셨어. 평생 아끼시던 기계를 끝까지 지킬려고 하시다가 그만…….”

간절한 마음이 묻어있는 할머니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혀 버렸다.

“커다란 무기와 탱크를 몰고, 같은 가족의 가슴에서 피를 빼어 휴전선이란 표시를 해놓고, 평화로웠던 하나의 나라를 둘로 만들었지.”

할머니께서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며, 지친 손으로 힘겹게 눈물을 감추셨다.

그날 밤, 나는 책상위에 일기장을 펴놓고, 그날 할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적어 나갔다. 그리곤 할머니의 고귀한 마음도 읽어 보았다.

‘나도 그때의 전쟁을 겪었더라면 지금쯤 할머니처럼 쓰디쓴 아픔을 겪고 있겠지. 참 다행으로 생각 해야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힘없이 잠자리에 누워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보았다.

에디슨이 수업시간에 말했던 1더하기 1에 대한 답변에서도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글을 읽어 본 기억에 한참을 멍하니 생각해 보았다.

‘그래. 이젠 알 것 같아. 피보다 약한 물도 하나가 되는데,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어떻게 둘이 될 수 있냐고…….’

다시 일어나 책상 위에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다시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질 않기를…….



전쟁 기념관의 상처

정 수 경

용담초등학교 5학년

오늘 학교에 가 보니 친구 민경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나 지난주에 전쟁기념관 다녀왔는데 엄청 재미있더라. 이전 거기
에서 찍은 사진들이야.”라며 자랑을 하고 있었다. 나도 그 사진을
보았는데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아빠께

“아빠, 민경이가 전쟁기념관에 다녀왔대요. 우리도 이번 주말에
전쟁기념관 가요 네?”라고 말씀드려 보았더니

“그럼 한 번 가 볼까? 6·25 전쟁의 아픔도 느껴 볼 겸 말이야.”
라며 쾌히 승낙해 주셨다.

나는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다.

드디어 일요일! 나는 아침부터 가족들을 깨우러 다니며 전쟁기념
관에 갈 준비를 하였다.

6·25 전쟁의 아픔을 후손들에게 직접 느끼게 하기 위해 세운 곳
이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전쟁기념관에 도착하였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 6·25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
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보고

‘이처럼 6·25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척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곳에는 6·25 전쟁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그렇게 한참 그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째 아빠께서

“아라야 이것을 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 주는지 알았지?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의 겨레를 이루어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관람실에는 전쟁 때 사용했던 비행기와 탱크가 진열되어 있었고 그 때 입었던 옷들도 진열되어 있었다. 전쟁기념관을 모두 둘러보고 난 후, 나는 전쟁의 깊은 상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곳에서 6·25 전쟁 때의 상황과 피해,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원인 등을 알 수 있었는데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라는 게 가장 안타까웠다. 그 전시물들을 보고 나니, 사회시간에 6·25 전쟁에 대해 배우면서 선생님이 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6·25 전쟁은 우리민족의 큰 상처가 되었어. 아직도 6·25 전쟁 때문에 서로 생사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얼마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에 대해 자세히 나온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전쟁이라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것이 몹시 아쉬웠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어느덧 반세기나 흘렀다.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에 금강산 구경도 갈 수 있고 같이 스포츠를 즐길 만큼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통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쟁기념관에서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원하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공산에게

이 민 주

안덕초등학교 6학년

공산아 안녕? 나는 민주라고 하는 말괄량이 소녀란다. 왜 나를 공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하지? 남한에서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난 민주고 넌 북한에서 공산주의 속에 살고 있으니까 공산이라고 붙여보았어.

참! 공산아, 내 소개가 빠졌구나. 너의 모습을 상상하느라 내가 정신이 달나라로 여행을 갔나봐. 난 13살의 말괄량이 소녀란다. 어렸을 때, '쇠똥구리는 쇠똥을 먹으니까 바퀴벌레는 바퀴를 먹겠네' 라고 말했을 정도란다. 성격말고도 키, 몸무게, 생김새 등 소개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내가 너를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공산아! 내가 며칠 전 동네 친구들과 야구놀이를 하다 우리집 유리창을 2개나 깨뜨렸지 뭐야~ 엄마는 나에게 인내심 테스트 하냐면서 매우 속상해 하셨어. 나도 아주 화가 났었던단다.

입이 하늘 끝까지 뻗어 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탈무드가 생각나 한장, 두장 넘기고 있을 때 '거울이 아닌 유리로'라는 제목이 있는거야.

아까 있었던 일이 생각나 난 누가 볼세라 얼른 이야기를 읽어보

왔어.

그 이야기는 유리는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되지만 거울에는 거울 테두리에 수은이 칠해져 있어 자신만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공산아! 통일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거울같이 걸만 번지르르하게 차리면서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권세를 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리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굽주림에 허덕이면서 '김정일 만세!' 라고 외치는 자유없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바라보아야 만이 통일이 앞당겨 질꺼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냐. 내가 살고 남한에서 과다소비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마 난 너희들이 날개 없는 새라고 생각해. 새가 날개가 없으면 불행하듯이 사람이 자유를 잃으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북한에서 생활해야만이 알 수가 있을꺼야. 그럼 오늘 꿈나라에서 서로 바꿔보는건 어떠니? 좋다고? 그럼 약속했다.

공산아 자꾸 골목길로 이야기가 새어 나가는데 나 '거울이 아닌 유리로' 라는 책 이야기 계속할게.

탈무드의 그 책에는 걸치레만 번지르르 하지 말자고 나타나 있었지만 난 거꾸로도 생각해 보았어.

유리에 보듯이 다른 사람의 헛점만 보며 트집잡는 고집을 씻어버리고 거울에 보듯이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고쳐나간다면 아름

다운 사회로 변하면서 너희에게도 우리 사회가 좋게 인식되어 평화통일을 앞당기지 않을까?

휴~ 이렇게 요모조모 생각을 하면서 책을 덮었어. 정말 평화통일이 되려면은 거울과 유리의 장점을 다 갖추어야 될 것 같아. 공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구나.

이렇게 너와 내가 만날 날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 남과 북의 이해, 협력이 필요할꺼야.

어떻게 보면 참 속상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까?

만약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통일이 되어있지 않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어, 88올림픽을 치룬 자랑스런 국민!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실속있는 국민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룰게.

통일이 되어 우리가 만날 때까지 몸건강해. 어서 빨리 만나길 바랄게.

공산아! 안녕~ 나에게 통일이란 숙제를 내준 선생님이로 기억할게.

정말 안녕~

1999년 10월 2일

- 너의 친구 민주 -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친구들에게

양 동 현

신례초등학교 6학년

안녕?

늘 TV나 신문에서만 보고 들었던 너희들에게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쑥스럽구나.

나는 너희들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남한에 사는 '양동현'이라는 사내 아이야. 지금은 하늘이 높고 살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 계절을 지내는 지 모르겠구나.

1950년 6월 25일 우리 같은 단군의 핏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 세워진 휴전선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 지구상에 통일이 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야. 21세기 주인공이 될 우리들이 없애도록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우리는 'IMF'로 경제가 아주 힘들어. 아마도 너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친구들보다는 배고파 울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눈꼽만큼도 몰라. 지금 내게 능력이 있다면 당장 너희들에게 쌀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야.

이 굶주림의 고통으로 무모한 결심을 한 너희들. 바로 감시원들의 눈과 총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오는 너희들.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해. 그런데 무사히 건너가는 사람도 있겠지

만, 사살된 사람도 있겠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통일의 문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 '금강산 호'가 생겨 금강산을 여행할 수도 있잖아. 지금쯤 너희 금강산에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는지 궁금하다. 너무 일찍인가? 금강산! 말로만 들었지 나도 무척이나 가보고 싶어. 일만이천봉이 너무 멋있을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거긴 하늘도 무척 맑고, 물도 진짜 깨끗할꺼야.

아참! 내가 사는 이 섬에도 한라산이 있는데, 거기도 무척 아름다워. 산등성이는 매우 멋있고 통일이 되면 너를 초대하고 싶어. 나도 꼭 한번 말로만 듣던 금강산에 가 보고 싶어.

또 있다. 너도 알겠지만 요즘에 '통일농구' 대회가 열린 것. 난 농구경기의 재미보다는 남·북한이 한 자리에서 경기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을 더욱 기쁘게 했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내 친구들아 우리가 한 약속 알지! 통일 말이야. 우리 이 약속 꼭 지키자. 따스한 가을 햇살 맞으며 잘 지내.

휴전선이 없어지는 그 날에 어깨동무하고 들판에 나가 신나게 뛰어 놀자.

앞으로 나는 공부 열심히 하며, 너희들을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게. 너희들도 몸 건강해야 해. 우리 만날 때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자. 그럼 이만 글을 줄일게.

안녕

- 서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남한친구 동현이가 -

통일, 그날을 기다리며

작 아 영

신창초등학교 6학년

“자! 지금부터 가족 중에도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의 사랑을 펼쳐보도록 하겠어요!”

난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을 볼 때면 앞이 캄캄해진다. 친구들이 할아버지 사랑을 하고 있을 쯤이면 난 어떤 거짓말을 내세울까 고민한다.

8년 전에 바다에 고기잡이 가셨다가 폭풍을 만나 우리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군대에서 할아버지 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할아버지 손잡고 놀러간다 할 때면 할아버지 손도 잡아보지 못한 나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부럽게 느껴지며 5년 전에 아들 사형제를 모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외로워 하시며 평생을 사시던 왕할머니 모습이 떠 오른다.

어느날 신문 기사를 열심히 읽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셨다.

“아영아! 얼른 이리와 봐라!”

“아버지 왜요?”

“글쎄 중학교 3학년 6·25전쟁 때 학도병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북한괴뢰군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신 작은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는구나!”

아버지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말씀하셨다. 난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서는 기쁜 일인줄은 알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읽으시던 기사를 철저히 읽어 보았는데 좌씨 성을 가진 '좌공수'라는 이름이 한 눈에 띄었다. 아직도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 명단을 읽은 우리가족 모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감추시지 못하셨다. 하얀 손수건으로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시며

“아이고! 그 양반이 살아 있다니……”

하시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영아! 우리 가족은 아주 훌륭한 유가족이다. 옛날 할아버지 형제가 네 명이었는데 그 중 세 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꾸고 또 너희 큰 아버지도 군에 가서 이제는 사진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며 지난날 가난한 생활 살림 속에서 밭일, 해녀일 다 마다 하시고 애지중지 큰 아버지를 키우시면서 힘들게 살아온 옛 일들을 눈물로써 다 지우시려는 할머니 이마에 주름과 희여만 저가는 새하얀 머리는 할아버지를 팔년 전에 보내실 때 처럼 다시 또 늘어만 간다.

우리 가족은 그래서 매년 6월 6일 현충일 날이면 충혼 묘지를 찾아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묵념을 드리고 있다. 매년 찾아 갈 때면 이끼 돋은 비석을 어루 만지시며, 눈물을 감추려 애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그 무엇보다도 더 슬프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은 북한에 살아 계시다는 작은 할아버지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신지……”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북한 동포들처럼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서 40여년간 제사를 지내던 작은 할아버지가 북한에라도 살아 계시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만족하였다.

성질이 급하신 아버지께선 당장 병무청과 이곳저곳을 확인하시고는 귀순 할아버지와 전화 통화까지 어렵게 나누셨다.

그 귀순하신 할아버지께선 우리 작은 할아버지와 북한에서 40여년 동안 탄광에서 노동과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어릴적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 친척들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다면 너무나 우리 가족을 잘 알고 계셨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북한에서 형제도 낳고 편안한 삶을 누리시고 계시다고 귀순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안심시켜 주셔서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엔 희망이 보였다.

어제 아버지께서는 전화 통화를 끝내시자 울먹이시는 목소리로 중국에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 보겠다고 하셨다. 북한에 계셔서 만나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를 통일이 되어야 만날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를……”

난 항상 통일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우리나라 허리의 선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슬픔도 참고 견디어 낼 수 있을텐데……”

내 책상 한구석 조그마한 수첩 속에는 먼 훗날 나의 과제물이

들어 있다. 얼굴도 모르고 본적조차 없는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는 일, 북한 동포와 손 꼭 잡고 뛰어 놀기, 금강산 가보기, 난 이 과제물을 꼭 풀고 싶다. 아니 풀어내고야 말 것이다. 통일이 되어 할아버지와 형제들 손 꼭 붙잡고 뛰어 놀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북한 땅 어느 곳에서 힘들게 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단 한번 만이라도 만나 보고싶다. 아니 한복 곱게 차려 입고 큰 절 한번 올리고 싶다.

통일이 되어 친척 아이들과 손잡고 뛰어 놀 그 날을 기다리며 비둘기 처럼 통일의 길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새 천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통일

한 행 민

삼성초등학교 6학년

옛그제는 많이 뵈고 싶었던 외할아버지댁에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TV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하던 방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과 일본 선수들의 축구경기가 방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운동장이 떠나 갈 듯이 온통 빨간색으로 단풍이 물든 것처럼 응원석에서는 어깨동무를 한 채 악을 쓰면서 “코리아(Korea) 코리아. 이겨라 이겨라!”

를 외치는 장면이 나오자 저절로 온 식구가 손뼉을 쳤습니다.

응원소리에 깜짝 놀라신 듯 할아버지께서

“어느 색깔 옷이 우리나라 팀이고? 저기서 응원하는 저 사람들은 무사 몽딱 빨갱하게 옷 입영덜 외비시니?

옛날 북한 빨갱이들 고찌록...”

하시더니 할아버지께서는 가쁜 숨을 몰아 쉬시면서 6·25전쟁의 아픈 기억을 더듬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TV소리가 작아지더니 한쪽 안경테에 때가 묻어있는 반

창고를 붙인 돋보기 안경을 끼시면서 그 때 전쟁 당시 생생했던 상황을 이번 참에 전쟁을 잘 모르는 손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온몸으로 이야기 하시는 동안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을 쏘고 폭탄이 터지고 피난민들이 집과 고향을 순식간에 잃어 여기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섰던 슬픈 이야기를 하실 때는 마치 온 방안에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빨간색으로 물들었던 전쟁의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시고 '죽기 전에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을 보고 죽어야 될텐데...' 하시면서 전쟁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왜 할아버지께서는 빨간색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 머리 위에 빨간 꽃이 피어 있고 학생들마다 목에 빨간 스카프가 매어져 있는 것이 모두 예쁘게 보이는 손자손녀처럼 할아버지께 빨간 꽃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빨간색의 북한을 원수가 아닌 모두 우리 가족처럼 하나가 될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저 또래 아이들이 배가고파 울다가 지쳐 쓰러지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해요.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는 힘세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보다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친구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6·25전쟁을 거울삼아서 두 번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가 북한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면 차가운 얼음이 사르르 녹는 것처럼 북한도 어느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새 천년에는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 때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의 합성을 보낼 거예요.

통일이 되는 그 날, 남과 북이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노래를 불러요.



6월의 하늘에

권 지 예

덕천여자중학교 2학년

장마로 접어든지 사흘째. 오랜만에 탁트인 하늘에서 화창한 햇살이 내 머리위로 쏟아져 내린다. 이제 완전한 여름 기운에 때미 소리라도 들릴 듯이 푸른 6월 하늘이다. 그러나 실눈을 뜨고 자세히 바라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군데군데에 어둡고 시커먼 자국이 어렴풋이 보인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자문해 보지만 내가 알리 만무하다. 짧은 내 상상력의 한계를 타하고 있노라니 언젠가 읽었던 한 신문기사가 생각났다. 어느 할머니께서 사회에 헌신하신 일을 담은 아름다운 기사이다. 그 할머니는 젊었을 때 육이오로 인하여 가족을 모두 잃고 여지껏 혼자 살아오셨다. 외로운 한평생 동안 음식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셔서 한푼 두푼 모은 돈 몇천만원을 사회에 기증하셨다고 한다.

신문에서는 이 일에 대해 온갖 좋은 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나도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내 머리속에서는 육이오라는 말이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렇다. 이제야 해답이 나왔다. 6월 하늘의 그 시커먼 얼룩은 육이오 때 멍들고 피땀한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다. 대체 얼마나 아픈 상처였길래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매년 이 달만 되면 들려오는 구호 '잊지말자!'가 말해준다. 형제끼리, 그것도 모자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그 아픈 기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소련, 미국 등의 강대국들 때문이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강했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25 때 목숨을 내던지고 빗발치는 총알 속으로 뛰어들었던 우리 대한의 전야 참전 용사들, 그들이라고 해서 싸우고 싶었을까? 같은 모습을 한,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인을 죽이고, 또 죽어야 했던 그분들은 지금 허리가 잘린 한반도의 땅속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이를 잊어도 된단 말인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점점 잊어만 가는 현대인들에게, 언제나 사용하던 젓가락을 처음 보듯이 한번만 보라고 부탁하고 싶다. 끼니 때마다 유용하게 쓰이는 이 젓가락이 한짝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누구든 한번쯤 이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남북 통일의 문제와 연관시켜 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원래 하나였던 땅이, 하나이어야 할 땅이 분단되어 있는 지금, 한쪽 젓가락만으로 식사하려고 애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잊지 말자'가 담고 있는 마지막 내용은 이산가족이다. 모두들 자신이 이산가족이 아니면 외면해 버린다. 나도 지금껏 나와는 정 말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전 친한 내 친구가 이산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빌린 책을 돌려 주기 위해 오후 늦게 친구 집에 갔었다. 초인증을 누른지 한참 지나서야 두 눈이 퐁퐁 부은 친구가 나왔다. 무척이나 놀랐던 나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오자마자 그 친구에게 영문을 물었다. 친구의 할머니는 육이오 때 남으로 피난 오시다가 할아버지를 잃으셨다고 한다. 살아계신지, 어디 계신지 깜깜 무소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할머니는 가끔씩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보시면서 눈물 지으신다고 한다. 어제는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이지만 슬퍼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자기도 울고 말았다고 한다. 갑자기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동안 이산가족을 남의 일로만 여기고 통일을 아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나였기 때문이다.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 이산가족이었다면 얼마나 헤어진 가족이 그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기주의에 물든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기다림과 희망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잊지 말자!' 의 뜻을 더듬어보면 볼수록 왜 잊지 말자는 것인지, 왜 통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진다.

'박광수'가 쓴 만화 '광수 생각'에선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도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해 본적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를 왜 사랑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나요?"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웬지 이말을 한번도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된다면 민족의 긍지를 뺏어내는 백두산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6월 하늘에 얼룩이 지워지길 바라며.....

6.25로 빚어진 일들

박 은 진

동명여자중학교 3학년

해마다 돌아오는 6월 25일, 그 날의 사이렌 소리가 나에게 특별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여름의 일이다.

그때까지 나에게 6월 25일이라는 날씨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날일 뿐이었다. 그러나 작년, 6월 25일을 하루 앞둔 그 날, 외할머니 댁을 다녀오면서부터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라서, 나는 아침부터 외할머니댁에 가겠다고 부모님을 졸라댔다. 바로 48년전 내일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이 메어질듯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채 말이다.

드디어, 나와 동생은 외할머니댁을 향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지하철역 앞에 다다랐을 때, 6월 25일의 엄숙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나와 동생,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는 그 자리에서 목념을 해야 했다. 나는 속으로 '바쁜 사람들도 많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마음속으로 투덜거렸다. 목념이 끝나자 우리는 곧 밀양에 계신 외할머니댁으로 달려갔다.

기차를 타고 내려서, 울퉁불퉁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걸었다. 땀 죽뻘죽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누런 보리 물결과 아름다운 산

과 강을 보며, 우리의 농촌 아니, 우리의 국토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바다가 된 국토와 형제끼리 총을 쏘아뒀던 6·25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내머릿속 한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렇게 걸어서 저녁 무렵에야 마을에 도착한 나와 동생은 정말 놀라고 말았다. 겨우 예닐곱 가구가 살고 있는 시골마을이 6·25를 기념하는 하얀 태극기로 출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귀찮다고 태극기를 달지 않고, 6·25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반면 이 시골 마을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태극기를 달며 그날의 아픈 상처를 되새기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생각에 잠긴 나에게 동생이 갑자기 어서 가자고 재촉을 했다. 그런데 마침 외할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우리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파란 기와를 인 황색 돌담집 사이를 걸어갔다.

외할머니택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정말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집을 들여다보니, 한 아주머니께서 녹이슨 철모를 붙들고 울고 계셨다. 나와 동생은 놀라서, 할머니께 저 아주머니가 왜 저렇게 슬프게 우시는지 여쭙어 보았다.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곤,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외할머니택에 도착하고 한참 뒤에서야 외할머니께서는 우리를 까만 먹지에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는 마당으로 불러 내셨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눈이 뚱그래진 우리들의 손을 잡으시곤

“얘들아, 이 세상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단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외할머니께서는 아까 전 그 아주머니의 슬픈 이야기를 해주셨다.

1950년,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의 기온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던 48년 전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전쟁의 바람 때문에 밀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갔다고 한다. 그 아주머니의 남편도 씩씩하게 전장에 나아갔지만, 한달 후 아주머니께 돌아온 것은 전사를 알리는 통지서와 녹이 슬어버린 철모였다고 한다.

그후로 매년 6월 25일이 되면 그 아주머니께서는 그 철모를 붙잡고 그렇게 구슬프게 우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생도 벌써 고개를 파묻고 울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6월 25일을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죽어간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날의 가슴 아픈 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맞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족간의 전쟁으로 떠나보낸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는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6·25라는 전쟁으로 많은 일들이 빚어졌다.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많은 전쟁 고아와 유가족이 생겨났으며 휴전선이라는 높은 담과 함께 4천만 겨레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 중에는 그런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관

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6·25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아픔과 상처 뿐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날을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몇 억년을 이어내려온 한반도 역사에 남은 하나의 오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년 여름의 시골 여행은 나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어 민족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나를 깨우쳐 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외할머니댁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며 앞으로, 나뿐만이 아닌 이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6·25의 사이렌 소리가 특별하게 들렸으면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밤도 나는 밤하늘을 보며 아주머니의 슬픈 울음소리와 6·25의 사이렌소리를 떠올린다.

우리 다시 하나되어

이 지 영

덕천여자중학교 3학년

얼마 전, 특집으로 꾸며진 '남과 북' 이리는 프로를 보았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그랬던지 이산가족을 찾아주고 있었다. 각자 안내판을 들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사회자들은 각자가 들고 있는 안내판을 보며 찾는 사람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특징 등을 말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사회자들과 연결되어 이산가족을 찾기도 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을 묻고 확인해서 보고싶던 이산가족을 찾는 사람이 하나, 둘 늘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울면, 그 통화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다. 사회자까지도 말이다. 그리고 쪽 지켜보던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흘렸다.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자꾸만 가슴이 찡해오며 안타까운 마음에 그만 눈물이 나왔다.

나는 6·25도 겪지 않았고 이산가족도 없다. 하지만 TV에 나오는 이산가족들에 동화되어 나도 모르게 울어버렸다. 그렇다면 직접 6·25라는 전쟁을 겪고 헤어진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 아니, 그들은 슬픔이 쌓이고 쌓여 한이 되었을 것이다.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진 채 그들은 그렇게 한 평생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이다.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이산가족들은 거의 50~60대 후반이 많다. 그들은 이산가족을 한번만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는 그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는 없을까?

올해로 6·25가 일어난지 50년째 되는 해이다. 그렇게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때 그대로이다. 여전히 휴전선을 경계로 둘로 나누어진 채 말이다. 그간 많은 일이 있긴 있었다. 비료며 옥수수며 쌀 게다가 소까지도 우리 측에서 건네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잠수정을 침투시켰으며, 얼마전에는 우리와 포탄을 쏘며 격투를 벌이기도 했다. 꽤 씹하고 화도 났다. 우리가 북한에게 준 그것들은 생색내려고 준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여서 준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들을 한 민족으로써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거기에 담아 전해준 것 뿐이다. 소가 떠날 때 어땠는가? 그 이른 새벽에도 우리 국민들은 일어나 소를 배웅했다.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소를 두세번 두드리며 소와 북한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렇게 소를 보내고, 우리는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금강호를 타고서 정해진 시간에 또다시 돌아와야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금강산 관광길이 단지 관광길만이 아닌 남북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마음만으로는 될 수 없다.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어

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가 빈약한 북한과 합쳐도 국가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들과 많이 다른 의식주 생활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또, 언어도 통일을 해야 한다.

또, 우리측의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해서 선입견들은 버려야 한다.

남과 북.

훌륭한 우리 조상님들이 남기고 간 이 거룩하고 숭고한 겨레정신, 민족정신으로 역사에서 가장 큰 아픔인 6·25라는 전쟁을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과 불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월드컵도 같이 치르고, 하나되어 응원하고, 올림픽을 치를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진다면 그것만은 꼭 같이 치르고 싶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나 자신감있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선수들임을 밝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시 하나되어 우리 민족의 기상을 온누리에 펼쳐보자. 하나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있는 친구에게

명 슬 기

동명여자중학교 1학년

안녕? 나는 남한에 사는 슬기 라고 해! 여름이라 많이 덥지? 북한도 여기 못지않게 덥긴 할거야 그치? 그런데 말야 사실은 나 어렸을 때 까진 북한을 나쁘게 봤어 사람들 정겹게 잘 사는 멀쩡한 땅을 철조망으로 확~갈라버리는 나쁘고 못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두 북한에 대해 배우지도 못했을 뿐더러 배웠다 해도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니까… 한심하지? 하지만 중학교와선 생각이 달라졌어. 왜 그런지 아니? 우리학교 과목중에는 사회라는 과목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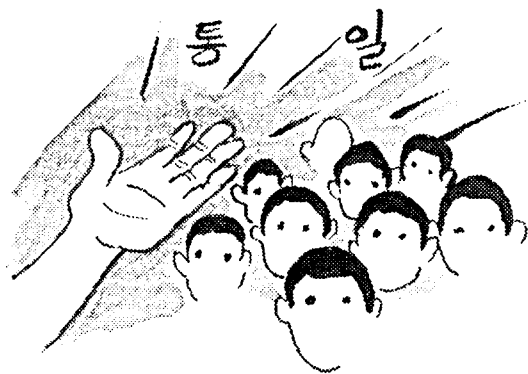
그 과목에서 이젠 북부지방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배우거든. 북한에 대해 배우면서 난 북한이 그리 나쁜것 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 하지만 아직도 북한엔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남한이 언젠가 쌀을 보내준 적이 있을거야.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이 많다니 정말 슬프다. 아마도 언젠가는 굶주리는 아이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올 날이 꼭 있을거야. 그런데 요즘들어 뉴스를 보니까 북한군과 우리쪽 남한군이 바다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 순간 나는 좀 무서웠어. 혹시 6·25가 다시 터지는 건 아닌지 말야. 나 말고 그장면을 뉴스에서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줄 알아? 뉴스 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건 아니지만 쌀을 사고 먹을 식량준비 해서 피난갈 준비를 하는거야 그만큼 6·25,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공포감을 준거지. 전쟁이 말야, 만약에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또, 우리나라 역사에 큰 전쟁으로 남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전쟁과 고통을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통일인거 같애.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은 많아. 그 사람들 모두 북한에서의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남한으로 온거잖아. 그리고 6·25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이산가족 들은 얼마나 슬프겠어? 6·25 전쟁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을 가져다준 정말 악마와도 같은 존재야. 정말 통일을 한다면 모든 슬픔들이 사라질텐데 말야. 그치? 우리 남한 TV프로에 '진달래꽃 필 때까지' 라는 드라마를 한적이 있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북한의 피바다 무용단의 한 여자가 무용단에 들어 갈 때부터 남한으로 귀순하기 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는데, 북한의 규칙은 매우 엄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사실에 어긋나는 그런 규칙이 있어 북한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 괴로울것 같아. 그런데 요즘들어 북한 금강산,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어. 북한이 드디어 조금은 문을 연거지. 하지만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말야. 남한 사람은 물론 외국인 까지도 백두산, 금강산에 찾아가서 북한 사람은 잘 가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나라가 자기 나라 풍경을 돈주고 보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러니까 북한, 남한 통일해서 우리다시 예전처럼 평화, 자유를 되찾을 날이 왔으면 좋겠어.

어쩌면 전쟁이 우리 서로를 멸망시킬지도 몰라. 이산가족이 서로 가족을 찾고 지도 찾을 때 이제는 북부지방까지 찾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손 맞잡고 금강산, 백두산 여행할 그날까지, 북한 사람이 남한의 제주도를 여행할 그날까지 친구야! 우리 통일의 그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 그럼 우리 통일이 되어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그땅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1999년 6월 19일

- 남한에 사는 친구 슬기가 -



통일을 꿈꾸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노 원 진

동인천중학교 3학년

안녕?

나는 너희들에겐 남한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에 사는 원진이라고 해. 지금 여기는 연일되는 쾌청한 날씨속에 사람들은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만 요즘에는 IMF라는 우리에게나 너희에게 조금은 생소한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 약간은 침체되어 있기도 해. 너희도 그리 편치는 않지? 계속되는 식량난에다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도 너희나 우리나라 똑같이 소망하는 것이 통일인 것만은 같을거야. 바로 '통일'이란 단어는 우리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말일거야.

요즘 들어서 계속되는 국난속에서 '통일'에 대한 나의 소망은 더욱 간절해진단다. 너희들은 안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텐데 말이야. 불과 몇 년전만해도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논의도 활발해져서 우리도 머지않아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 말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아~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몰라.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로 어떤 소식을 접해 들었니? 너희들이 어떤 소식을 듣던 정말로 진솔한 소식만을 접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은 없었으면 하는게 나의 바램이다. 나는 너희 나라에 대해서 몇가지 안좋은 소식을 몇가지 접해 들었어. 우선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진 식량난 문제였어. 너희 부모님들께서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기후사정도 좋지 않고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기구나 비료등이 턱없이 부족해서 식량난이 무척이나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런 고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에겐 굉장히 위협한 탈북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어. 이럴 때 우리가 하나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식량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도 있고 목숨을 내건 탈북문제도 많이 줄어들텐데 말이야.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야. 너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도덕' 이라는 과목이 있어. 나는 이 과목에서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어. 그런데 통일에 대해 배우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란다. 우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통일이 되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들었어. 같은 말이지만 속 뜻이 다른 말도 있고, 걸모습부터 다른 말도 있더라. 하지만 일단 통일이 되면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잖아? 나는 이 글을 쓰면서 한가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너희들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믿어주었으면 해. 그래서 간첩을 우리나라에 몰래 보

내는 등의 일이 앞으로는 없어졌으면 해.

몇 년 전에 통일 전망대에 가본 적이 있었어. 눈으로 봐도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망원경으로 보니 마치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같았어. 그리고 그보다 더 가슴 뭉클했던건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북녘 땅을 바라다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던 장면이었어. 아마도 그 할머니의 고향이 그곳이었나봐. 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차례야. 적어도 우리 만큼은 과거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던 일들은 없어져야 할거야. 그렇다면 우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없어져서 좀 더 서로를 믿고 살 수 있을거야. 하지만 과거처럼 또다시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거야. 그리고 서로에 대해 좀 더 올바른 소식을 듣고 알려고 해야 할꺼야. 그래야만 서로 서로가 자기 나라를 우월하게 보지 않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좀 더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어 불신이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 어른들이 아무리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들 만큼은 그러지 말자. 그래야만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인 '통일' 이 이루어지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인 학생의 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올바른 배움을 받아서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때는 반드시 '통일' 을 이룩하도록 하자.

'통일' 을 꿈꾸는 미래의 주역들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서로를

믿어야 해. 단일 민족인 우리가 서로를 못 믿는다면 누가 우리를 믿어 줄 것이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니?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가르침만 배워야 하고 진정으로 올바른 소식만 전해들어야 할거야. 그래야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조금이나마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니?

친구들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합쳐야만 해. 그래서 우리민족의 높은 기상과 이상과 꿈을 전세계에 퍼뜨려야 해.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의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거야.

친구들아! 우리 만큼은 우리의 전 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통일'의 꿈을 이뤄보자.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보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보자.

우리는 아직 젊잖아.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 우리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면 죽어서도 한이 맺힐거야.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어. 아니 이룩해야만 해. 그럴 수 있자?

그럼,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이 담긴 답장을 기다릴게. 우리 꼭 '통일'이 되는 그 날 만나자.

그럼 안녕

1999년 5월에

- 대한민국의 통일을 꿈꾸는 아이가 -

통일은 답 없는 문제집

김 성 조

송도중학교 3학년

일주일전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문득 신문을 보았는데 종합면에 북한의 사정과 바랍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나라와 대화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도 우리 나라와 긴장감이 돌지만 하나가 되길 원하는 뜻이었다. 아버지도 잠깐 같이 보시더니 할아버지의 고향인 북한의 이야기와 지금의 북한과의 관계,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을 가족끼리 자리를 마련해 들려주셨다. 우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북 교류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셨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그동안 분단의 아픔으로 만나 보지 못했던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남북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한 것이 물론 우선이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남북간의 개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버지께서는 예를 들어 우리 나라는 들녘과 논, 밭이 많고 공업이나 무역도 활발하지만 북한은 들녘과 공업이 활발하지는 않아도 아름다운 강과 산이 많아서 관광업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태주면서 평화적인 화합을 맞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갑작스런 통일은

의식주 정치 등 모든 면에서 달라서 관계가 모호해지므로 서로 남북 교류를 통해 서서히 통일의 열린 마음과 준비를 하여 평화 지향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했던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던 이산가족과 실항민들의 상봉이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북한의 지금 상황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아버지께서는 북한은 지금 모두 알다시피 식량난에 허덕이면서도 한국의 지원이나 구호물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지원해 주어도 북한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거나, 군사용으로 식량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많은 문제가 되었던 북한 잠수함이나 간첩 사건이 우리의 소망인 통일을 늦추고 있다고 하셨다.

북한은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나 주변 공산국의 개방추세에 역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강하지 못하는데다 러시아의 지원 중단이나 중국의 지원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하나라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이산가족과 실항민들의 가슴에 분단이라는 아픔의 못을 박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아버지께서는 통일이 되어 할 아버지의 고향 냄새를 맡고 싶다고 하셨다. 동생이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좋은 모습은 없었는지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요즘들어 남북간의 운동경기가 벌어질 때 남한은 북한을 북

한은 남한을 응원하여 감동의 하모니가 가슴을 뜨겁게 적셔 주었고 또 어떤 때는 우리나라가 홍수의 여파로 어려워 어깨의 힘이 없었을 당시에는 북한의 구호 물자 전달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깨에 힘을 불어 넣어 동포애라는 느낌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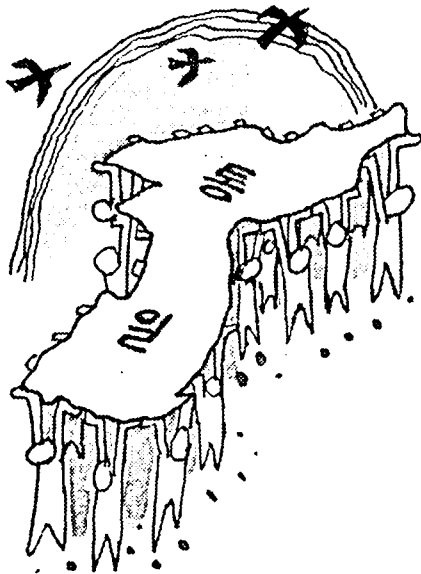
이어서 아버지께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같은 민족의 피를 나누어 가졌고 그동안 분단으로 겪어왔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두 나라간의 나쁜 감정도 씻어내어 자유와 평화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 한국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우리 민족이 동질성을 가진 이유와 동질성의 회복 방법을 여쭙어 보았다. 아버지께서 동질성을 가진 이유는 우리 나라는 본래 동일한 조상과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며 공동체로 지냈고 같은 핏줄로 이어 왔으므로 남한과 북한이 동질성을 가진 이유라고 하셨다. 동질성의 회복은 정치, 경제, 문화의 유지와 발전도 있지만 이보다 정치, 경제, 문화라는 고기위에 민족 의식이라는 소스가 곁들여져야 조화로운 통일이라는 음식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과 방송의 교류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남북간의 지금 안 좋은 감정과 인식을 좋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여쭙어 보았다. 우선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민족은 민족의 존엄을 세우고 살아 숨쉬는 윤리의식을 통해 온 인류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평화 지향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고 어머니께서는 우리들 시대에서
는 통일의 중요성을 깨우쳐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하
셨다.

비록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금 분단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한간의 통일의 소망과 소망을 위한 노력을 끝
임없이 한다면 또 같은 민족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한 핏
줄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장애물은 없어지고 태극기의 중심에
있는 태극무늬는 한가지 색으로 변화되고 무궁화도 싱그러운 얼
굴로 통일의 기쁨을 알릴 것이다.



임진각을 다녀오며...

나 선 애

부평서여자중학교 3학년

5월 햇살이 제법 따갑게 비추던 어느날 이었다. 우리 가족은 쪽뻥은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다. 고속도로 만큼이나 넓고 쪽뻥은 도로 위에 각양각색의 차들이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내기라도 하듯이 서로 속력을 내며 달리고 있었다.

자동차들의 경주도 구경하며, 주변 경치도 구경하며 나는 즐거움에 젖어 있었다. 초여름 못지 않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짜증스럽지 않고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비단 놀러간다는 기쁨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껏 한번도 가지 못한 임진각을 둘러보고 한번도 보지 못했던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설레임과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다.

말로만 들어보고 TV로만 보아온 북녘땅을 직접 바라볼 수 있다니.....

그 이유 때문에 이번 나들이는 여간 설레이고 기쁘지 않았다.

그 기쁨을 한껏 만끽하고 있을 무렵 무심히 이정표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 이정표의 맨 윗 부분에는 너무나도 낯설은 지명이 쓰여 있었고 그 지명 위를 빨간 가위표가 살짝 덮어 놓았다. 그 지명은 바로 '개성' 이었다.

'개성' 분명 자주 보고 들어오던 지명 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그 자리에 '서울'이나
'부산'이 쓰여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낯선 느낌을 가졌을까?

'개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내 마음 속에서 먼 나라의
도시가 되어 버렸다. 말로만 우리 국토라고 외쳐왔을 뿐 내 마음
속에는 이미 저 북녘 땅이 남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보다 서울에서 개성
까지 가는 거리가 더 가까웠다. 하지만 부산까지는 수십번도 더
오고 갈 수 있지만 개성까지는 단 한번도 오고 갈 수 없다.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
게다가 나는 태어나서 한번도 북한에 가보기는 커녕 본 적도 없으
니 내 마음에서 저 북녘땅이 멀어지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
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임진각에 도착했다.

나는 제일 먼저 망원경을 찾았다. 북녘땅을 바라보기 위해서였
다.

네모진 통 안에 500원을 넣고 둥그런 부분에 두 눈을 갖다대니
내 눈 앞에 둥근 화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둥근 화면 안에는 산도 있었고 들도 있었고 강도 있었다.

산이 조금 험벗어 보이긴 했어도 그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내 눈앞에 펼쳐진 난생 처음 보는 북녘땅은 조금도 신기하거나
이상하지 않았다. 모두 우리 땅에 있는 것과 꼭 같았다.

저 철조망 너머로 펼쳐진 땅에서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구나. 저 철조망이 없다면 우리랑 똑같이 생긴 그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을텐데…….

아쉬움을 남기며 임진각에서 나와 그 주변을 둘러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책에서 보아왔던 기차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뜻말과 함께…….

기차가 서있는 철도는 저만큼 앞에서 끊어져 있었다.

끊어진 철도를 보면서 나는 아까 자유로에서 본 이정표가 생각이 났다. 개성 위를 살짝 덮었던 그 가위표. 만약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개성 위에 빨간 가위표가 그려질 일도 없었고 끊어진 철도 위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뜻말과 함께 기차가 외롭게 서 있을 일도 없었다.

우리 국토의 갑갑한 허리띠인 철조망이 팍 조이고 있는 바람에 철도도 도로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끊어져야 했다.

잠시 북녘 땅을 생각해 보았다. 텅 비어있는 듯한 그 땅위로 도로와 철도가 다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로와 철도 위로 자동차와 기차가 오가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시 이어질 수 있을텐데…….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숨막히게 허리를 죄고 있는 저 허리띠부터 풀어야 한다. 그 허리띠는 비단 철조망뿐은 아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도 허리띠 안에 포함된다.

그 모든 허리띠가 풀어져서 우리 국토가 고른 숨을 내쉴 때, 그

때 비로소 꿰어진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덧, 해가 서쪽 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나는 스투스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어느새 꿈을 꾸고 있었다.

통일이 되어서 우리 국토의 허리띠가 풀려진 꿈을…….

그 꿈에서 꿰어진 철도와 도로가 북녘땅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둥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

최 보 애

부일여자중학교 2학년

우린 한민족은 5천여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 순수한 한핏줄로 이어져 있으며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단일 민족인 것이다.

이런 우리 나라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더욱 안타깝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 바로 국토 분단이다. 6·25 전쟁을 계기로 결국에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면서,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분단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그렇게 분단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량의 쌀을 보내며, 심지어는 누런 소까지도 보내고 있다. 한핏줄, 한민족이기에 대량의 쌀도 누런 소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얼마전에 '북한의 실정'이라는 주제로 꾸민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밥도 못먹는 실정에 신발이란 것은 상상도 못하고 맨발인 채로 시장 이곳 저곳을 헤매며 먹을 것을 구하는 아이들, 한참을 헤매다가 음식 파는 곳에서 먹다 흘린 음식 찌꺼기를 보면 진흙탕에 빠진 것도 상관없이 재빨리 주워 입에 넣는다. 북한에서는 그릇에 밥과 야채를 섞어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0원이라고 한다. 월급

을 100원정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하루 3끼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푼도 없이 굶주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말이다.

그에 반해, 북한 군인들은 섭섭치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산 수단의 사회 소유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에서 주민들이 대접받고 살 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쌀과 소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전쟁에 대비해서 총과 핵폭탄 열심히 만들어 승리하면 뭐하나? 승리한 후 좋은 국가 만들려고 해도 그땐 너무나 황폐화되고, 많은 국민이 죽어서 큰 후회를 할텐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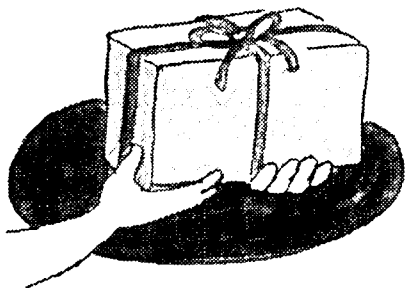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통일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진않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 단군의 자손이며 한민족의 자손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평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한 북한과 통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통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이 있다. 이산가족으로 애태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다. 경제적인 발전, 전쟁에 대한 불안감 해소, 이산 가족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다. 또 통일의 이유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이다.

쌍둥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쌍둥이 중 한명이 아프면 덩달아 다른 한명도 아프다는 것이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나라 반쪽이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고 고통받으면, 바라보는 나머지 나라 반쪽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비록 요즘들어 북한과 우리 남한이 전쟁을 할 우려가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설사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사랑의 씨앗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허물을 더 알고 더 미워하기 전에 하루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을 해서 50여년간 나누지 못한 사랑을 서로의 가슴속에 한없이 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통일의 꿈

권 지 원

일산대화중학교 1학년

물살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찻던 물이 강물이 불었는지 차츰 가슴까지 차 올랐다. 여름철이라지만 밤이 되니 물은 몹시 차가웠고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워 나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야, 괜찮네?” 앞서가던 형들이 걱정이 되는지 돌아보며 물었다.

“응 일 없으니까 걱정말어”

나는 뒤따라오던 동생의 손을 잡아끌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9살 짜리 동생은 나이보다 작고 여위어서 거의 목까지 물 속에 잠겨있었다.

“형, 아무래도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애 우리 다시 돌아갈까?”

잔뜩 겁에 질린 동생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겁에 질려 울먹였다.

“이새끼레 미쳤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소리가?”

나 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공포를 억누르며 간신히 말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던가 도중에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강을 건너다가 총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지금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을 건너는 길이었다. 앞서

가는 두 형과 기차를 훑쳐타고 함께 국경지역까지 온 뒤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가슴 졸이고 두려웠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게다가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물에 떠내려가 죽는 아이들도 있고, 초소의 보초에게 잡혀 죽도록 맞거나 총살을 당했다는 소문은 어린 나를 소름끼치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배가 너무나 고파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딱 한달치 배급밖에 받지 못했다. 배고프면 주워먹고 빌어먹고 도둑질도 해가면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나는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배가 고파 걸을 기운이 없는 동생을 억지로 데리고 함께 나선 것이다.

“식아. 중국에 가면 순대 실컷 먹게 해 줄게.”

언젠가 시장 통에서 주워 나눠먹은 한 조각의 순대를 떠올리며 동생을 달랬다. 동생은 못 먹어 부황이 든 노란 얼굴로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군침을 삼켰다. 가엾은 동생... 아홉 살 먹은 동생의 키는 100cm가 채 안되었다. 영양실조였다.

문득 중국에서 잡혀와 매를 맞아 두팔이 부러진 채 통통 부어있는 친구를 보고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자 몸서리가 쳐졌다. 이것은 정말 재미없는 일이다.

친구의 말로는 구걸로 얻거나 조선족이 모여사는 시장의 밥집에서 잔심부름을 해서 중국돈으로 2백원이나 벌었다고 했다. 그 돈이면 다섯 식구가 두달은 너끈히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옥수수 가루를 사 죽을 쑤어먹는다면 우리 세 식구가 어찌면 세 달도 넘

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줘요.” 우리는 때로 몰려다니며 남조선 관광객들에게 매달렸다.

조선족 아줌마는 어린것들이 고생한다며 현 옷도 얻어주고 구걸한 돈이 섞이지 않게 일일이 종이에 적어 맡아주었다. 덕분에 동생과 나는 이곳에 와서 키가 2cm나 더 자랐다. 제대로 먹으니 금방 키가 쑥 자란 것이다.

“맡아매(아줌마), 물 길었수까?” 나는 아침 일찍 조선족 식당에 나가 물을 길어주었다. 이것이 나의 주된 일이었다. 하루는 아줌마가 팔다만 순대를 썰어주었다. 나는북에서 먹은 순대를 떠올리며 몹서리를 쳤다. 회령에 나갔다. 주워먹은게 사 램고기로 만든 순대였다고 한다.

워낙 배가 고파서인지 그 때는 아니할 말로 진짜 맛이 있었다. 그런데 것이 바로 내 동무의 살로 만든 순대였다니... 결국 그 아줌마는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조국 북조선 인민 공화국인 것이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 어제 만난 남조선 방송국의 기자 아저씨가 사준 신발을 신었다.

“잊지 않았습네다.”

내 머리를 쓸어주며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던 취재원에게 한 말이었다. 정말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신어 본 새운동화를 사 준 그 아저씨를... 갈곳 없는 우리 탈북 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잠자리를 주고 일을 시켜 준 조선족 만어매들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가슴졸이며 살아가는 일
도 이제당분간은 끝이었다.

마침 물이 줄어 강은 그다지 깊지 않았으나 달빛도 없는 검은
하늘은 이상한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초소의 위치는 여기 여기다. 요령껏 잘 피해서 건너야지. 그렇
지 않으면 돈을 다 뺏기고 무지막지하게 맞는 수가 있어. 그래도
혹간 걸리면 아까 사온 먹을 걸 툭 찢러줘.”

나보다 세 살 위인 덕철이 형이 우리에게 당부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오마니 이젠 아무 걱정마시라요 내
레 돈 많이 벌어 아바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탕탕!! 그 때
였다. 귀를 찢을 듯한 총소리가 들린 것은...

“들켰다. 물 속으로 숨어.”

총소리가 두어 번 더 들렸다. 숨이 막혔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위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내 이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날아와
박혔다. 얼굴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더니 이내 아무런
감각도 없어졌다.

“형!”

동생의 비명이 들릴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허
우적거리기 시작했으나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죽었다.

“지원아 정신차려. 웬 잠꼬대를 그리 심하게 하니?”

세상에, 내가 꿈을 꾸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나 생생한 악몽에서

아직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뿔뿔 떨어졌다. 책상 위에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 온 소년들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사에 나온 탈북 소년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울 힘조차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아들이 거기 있었다. 눈물이 나왔다. 그 아이들은 바로 나와 내 동생-꿈속의-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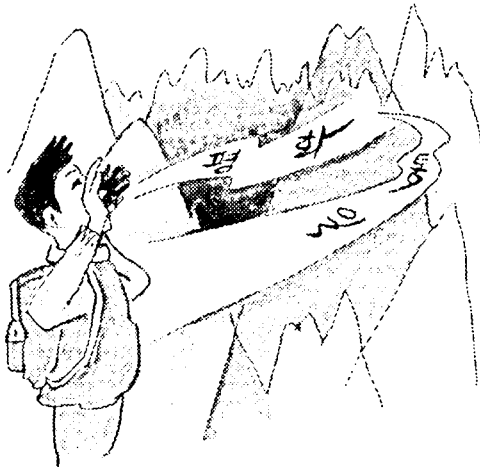
남과 북 어디에 살든지 다같은 형제일 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살게 되었을까. 아무리 통일후의 문제가 많다해도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경제와 생활방식, 그리고 이념이나 교육수준이 통일 후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도 모든 조건과 이익에 앞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 비록 50여년의 세월을 나뉘어 살고 있지만 수천년 동안 같은 역사와 문화를 누리며 살아온 한 핏줄, 한 민족이 아닌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을 보면 정말 싫다. 강냉이죽으로 목숨을 이을만큼 어렵게 살아 온 동포들인데 더불어 사이좋게 살 수 있다면 그 고통쯤은 기꺼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우수한 인력이 합쳐진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빨리 이겨낼 수도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반 백년을 헤어져 살아온 내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우월함이 아니라 마

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사랑인 것이다.

오천년을 이어 지켜온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친다면 저 옛날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동방의 고요한 해 뜨는 나라'는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력을 발휘할 것이다. 통일한국에 힘차게 뺨어나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가올 통일을 완벽한 준비 속에 맞아야 한다.

통일의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고 남·북한의 동포가 하나되어 열싸안고 춤추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이 통일전망대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



통일로 가는길

최 슬 기

일산백마중학교 2학년

지난 토요일, 학교에서 전일제 클럽활동으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왔다. 그 곳은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잡아 가두고 온갖 잔인한 고문과 처형을 일삼았던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기관 중 하나였다.

그 곳에서 고문이나 사형을 하는 장면을 재연해 놓은 것도 보고, 직접 형무소와 사형장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오직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수많은 애국지사들께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겹게 되찾은 나라를 지금 우리는 반으로 나누어서 50년 가까이 살고 있으니 그분들께 얼마나 죄송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곳에 다녀와서 통일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어릴 때에만 하더라도 '북한'을 너무 무섭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북한과 하나가 되는 통일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에 각종 대중매체에서 보도하는 북한의 실상을 많이 접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단지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태어났다

는 이유로 판이하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북한에서 노예 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또 그곳을 탈출했다 하더라도 '꽃제비' 라고 불리며 거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생명권'조차 그들에게는 없었다.

'통일' 하면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수년전에도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요즘도 그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임진각이나 이곳 통일전망대에서 지척에 두고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던 순간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들의 고향땅을 밟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통일이 되면 남한쪽에서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들의 문화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한형제이며 자매이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타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민족이 떨어져 지내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임을 알고 이를 해결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반으로 나누어진지는 반세기, 무려 50년이 나 지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이나 남과 북의 생활은 큰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막상 지금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땅덩어리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민족 서로간의 하나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진정한 통일은 겉으로 보이는 면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간의 화합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이런 남과 북의 차이는 국민들에게 통일을 이루어서는 안된다고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이 때문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더욱 힘겨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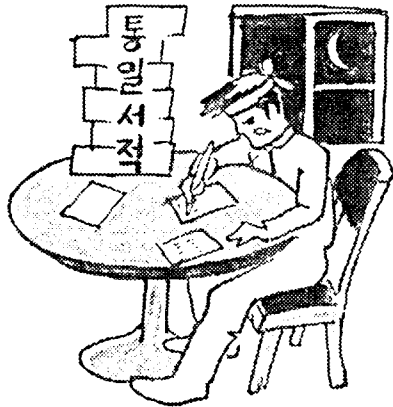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준비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맡아야 할 사항이지만, 통일은 정부끼리의 합의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들 각각의 의식이 전환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분단이 되어 지내온 시간 만큼이나 사람들은 점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엄마, 아빠가 태어났을 시기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이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쯤에는 한국전쟁이나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은 지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도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는 등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통일을 이루려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루 아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성급함 보다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꾸준하고 꼼꼼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어져서도, 지체되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작게는 개개인이, 크게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50여년간 굳게 묶여왔던 호랑이의 허리를 자유롭게 풀어 주어 호랑이의 힘찬 기상을 세계속에 널리 펼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보낼수 없는 편지

김 미 정

성남상원여자중학교 3학년

친구야, 안녕?

너는 누구니? 아마도 북녘땅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 나는 남한에 사는 너의 친구란다. 친구야, 보렴. 나는 지금 네가 보이는 곳에 와 있단다. 지금 이 곳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네가 사는 곳, 북녘땅이 내려다 보여.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저 강만 헤엄쳐 건너면 될 것 같은데 어째서 그리도 멀게 느껴지는 것일까? 친구야. 저기 저 새는 자유롭게 너를 향해 날개짓하는데 왜 나는 그럴 수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통일이 된다면 너를 만날 수 있을터인데, 너는 그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난 통일이 우리들 앞에 놓은 절대적인 과제이지만, 성급히 그냥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거지. 너 혹시 신라의 삼국통일을 아니?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한반도의 최초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깊어. 하지만 통일 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던 점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 그 통일로 우리는 잃은 것이 너무 많았거든. 어느 책에선가 이런 말귀가 있었어.

'통일이란 한데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통일이다. 그런데 신라의

통일은 합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 넘기고, 땅덩이마저 없었는데도 참된 통일이라 할 수 있을까?

그 책에서는 신라가 외세의 힘을 업고 대책없이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통일을 이룩한 사실에 대한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었어. 난 그 책의 의견에 너무도 공감이 되더라. 역사가 좋은 점은 지나간 뒤에 그 사실을 보고 반성할 수 있다는 점이지. 우선 통일을 해 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 그것은 잘못된거야.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막상 통일이 된다면 생기는 문제점은 매우 많을 테니까. 신라와 같이 비극을 겪게 된다면 오히려 안 되는 것만 못하니까. 그렇다면 안정되고 준비된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젠가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언어가 모든 것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먼저 남북한의 공통어 사용에 힘써야 할 것 같아. 즉, 언어 동질화를 위해서 얼마 전 우리 남한 정부에서 대규모의 국어 사전을 편찬했는데 그 사전에는 북한말도 표기되어 있어. 통일 된 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거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교류도 필요해. 특히 스포츠 교류의 확대가 중요할거라 생각해. 스포츠는 경쟁이기도 하지만 친밀감 역시 조성해 주잖아. 너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남한의 현대와 북한 팀의 농구경기가 있었고, 또 노동자 축구경기도 있었잖아. 난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 승패를 떠나서 남북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에 말이야. 안정

된 통일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생각이 들었어. 언젠가는 남북 단일 팀이 구성되겠지? 그 날이 기다려진다.

또 남북이 같이 합작하여 다큐멘터리같은 것을 만드는 게 어떨까? 남한에 서는 북한의 자연 생태계를, 북한에서는 남한의 공업 등을…….

그렇게 된다면 서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을텐데 말이야. 안 그러니, 친구야? 그 밖에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은 많을거야. 특히 상호보완적인 교류가 서로에게 도움되고 좋겠지?

지금까지 내 의견들이 어떠니, 친구야? 네 의견도 듣고 싶구나. 이 편지를 종이배 접어, 강물에 띄워 보내면 너 이 편지 받을 수 있을는지, 이 편지를 종이 비행기 접어 날리면 바람타고 너의 손에 놓일런지, 그건 나도 몰라. 내가 통일에 대한 네 의견을 물어볼 수 있을 때 짚으면 그 질문도 필요없게 되겠지. 왜냐하면 너와 나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 날을 위해 노력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지금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그 곳의 흙을 밟고 싶어라. 그곳의 공기로 숨쉬고 싶어라. 나의 이런 간절한 바람이 너에게 가서 닿았으면 좋겠어. 친구야.

나의 형제야! 너와 나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마렴. 머지않아 너와 나는 만날 것이다.

남북, 우리 나라

정 찬 미

전남중학교 1학년

보통 북한이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진다. 붙어 있으면서도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없는 곳, 주민들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정반대 되는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라고만 느껴진다. 사실 북한에 식구들을 두고 오신 나이드신 분들이 통일을 애타게 바라시고 있지, 학생인 우리는 그 다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북한에 친근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잘 먹고 씹스럽게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굶어서 뼈만 남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굳게 닫힌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을 돕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으며 차츰 우리 나라도 북한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금강산도 유람할 수 있게 되어 머지않아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북한의 얼어붙은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나 보다. 금강산 유람 중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일이 일어나고 북한이 심심찮게 무기를 들고 경계선을 넘어오고 있다. 얼마 전 서해에서 일어난 북한과의 총격전을 우리 나라를 한바탕 떠들썩 하게 만들기도 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이 아닌가. 우리 나라에게 온갖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남한을 깔보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에 나는 분노를 느꼈다. 이렇거면 아예 북한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에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 같은 선조가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며 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끼리 서로 총칼을 들고 눈을 부라리며 싸워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인 것이다.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도 통일이 되었다. 독일이 통일 하였던 것은 두 국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힘을 합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나라 간에는 자유로운 왕래도 있었고, 서독이 동독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동독의 물건을 비싸게 사들이고 자기 나라의 물건을 싼 값에 판다는 식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회 선생님은 우리 나라도 이같이 해서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얼마 전까지 가졌던 북한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졌다. 한 집 아래 사는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 싸우고 혈뜬고 냉기가 흐르면 안 되듯이 한반도에 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같은 나라로서 저 쪽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해도 더 큰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나라도 맞대응 하려고 북한을 무조건 미워하고 똑같이 으르렁 거려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6·25 전쟁으로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진지 벌써 50년이 흘러가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창피스런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나라라고 한다.

통일을 이루려면 청소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일은 우리 세대 때 올 것인데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으면 무리 없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살아온 가족을 바로 위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고 생사도 모른채 힘겹게 살아가는 이산가족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필요하다. 다가올 21세기를 행복하게 맞이하려면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먼저 사소한 것부터 남북한을 가깝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신세대 연예인이나 가수들을 북한에서 공연하게 한다든지 북한에서 인기가 있는 배우들을 우리 나라에 선보이게 한다든지 하여 서로의 문화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통일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통일을 꼭 이룰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고 북한 친구와 같이 공부할 수도 있는, 북한과 남한을 합쳐 우리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우리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 손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 봉 선

나산중학교 2학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 노래를 배우고 불러오게 되었다. 한 핏줄, 한 형제인 우리가 서로의 끌어오르는 피를 막고 숨통을 끊고 만이 현실에서 서로를 그리워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실로 안타깝고 한탄스러울 일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 민족의 우리는 지금껏 수 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된 힘으로 꺾끗이 이 땅을 지켜왔다. 하지만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아름다운 이 강토를 두동강이 낸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만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가고 있다. 불신과 적개심으로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혈육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수십번……. 이제 더 이상의 분단 국가는 용납될 수 없다. 통일! 그것만이 이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일 것이다.

얼마전, 3교시의 도덕 시간에 나에겐 이런 일이 있었다. 마침 통일에 관한 새로운 단원의 공부를 시작할 무렵, “20번 일어나서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 보도록”

선생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교실에서 20번인 나는 어쩔줄 몰라 당황해 했다.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만 것은 물론이었다.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지금껏 분단된 조국은 있을 수 없기에 마땅히 통일 되어야 한다고 줄곧 말해 오면서도 진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며 그것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듯하다.

냉정하게 말해, 남한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는 탈북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어려운 식량난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버린 듯한 북한 어린이들을 볼 때에만 안타깝고 도와 주고픈 마음을 느낄뿐 그 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 버린다고 할까? 모든 일은 먼저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 그렇기에 통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깨우치고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개개인의 가슴속에 싹 틔워져야 한다.

약 1년전 우리는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 했던 나누어진 절반의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바로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삼엄하고 철저한 경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처음 금강호가 50년의 설움과 한을 저 푸른 동해물에 떠나 보내려 는 듯 유유히 북한을 향해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난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기뻐는지 모른다. 바로 그때에 통일된 조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최근 북한도 이제 더 이상의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점차 보이고 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움트는 북한과 경제적·문화적인 교류를 활발히 추진한다면 수십년의 무정한 세

월이 쌓은 크나큰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빚어질 혼란과 마찰을 줄이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미리부터 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측에서 대대적인 북한어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희망도 가져본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구호식량을 비롯한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무력도발'을 예고하는 듯한 간첩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때론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한다. 이제 정말로 늘 남한에 비해 통일의 노력이 부진했던 북한이 지금까지의 비협조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열과 정성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우리도 그들을 너그러이 포용하면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우리, 튼튼한 기반 아래 빛나는 '통일조국'을 이룩하도록 하자.

지구촌에 남은 단 하나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를 가로 막았던 저 차디찬 휴전선도 사라져야 하고 헤어진 가족을 애타게 그리며 수없이 흘렸던 가족들의 눈물도 거두어 주어야 한다. 나는 간절히 꿈꾼다. 통일된 조국의 땅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롭게 누비게 될 그 날을!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우리는 하나 만나야 할 한 핏줄!'

젓가락의 비밀

박 현 민

광주 진흥중학교 2학년

1950년 6·25전쟁을 시작으로 남녘과 북녘으로 나누어졌다.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통일은 우리에게 목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만 통일에 목말라 있을까? 과연 북녘 우리 동포들도 통일을 원하고 있을까? 21세기를 바라다 보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 통일이 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통일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동독과 서독도 90년대 들어서며 통일이라는 인상을 세계 역사에 남겼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할 때 정식으로 대한 민국이란 자랑스런 꼬리표를 달고 갈 수는 없는 것일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국민들의 화합과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서로 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문물 교류가 왕래하게 되어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세계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잘 살고 있더라도 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아직 우리는 반쪽 국가인 것이다.

3·8선 앞에서 북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북쪽에서 똑같이 총을 겨누는 동포들도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북측에 가해야 하는 총·비행기 등 많은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IMF라는 경제적 위협 상황까지 와 버렸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 어서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발전도 빨라지고 우리나라도 완전한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밀레니엄 시대에 앞장서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기업체인 현대에서 친선운동 등을 개최하면서 북한과의 왕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구팀과 북한의 농구팀이 승패를 떠나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매우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얼마전 북한 사람이 직접 보내온 비디오에서 “꽃제비”들이라는 가슴 찡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너무나도 말라 빠진 손과 발을 보며 우리가 그들의 살을 빼앗아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과연 우리들이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우리들이 뻗을 수 있는 손은 그들을 위해 위로하는 마음밖에 없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다면 나에게 세상을 휘둘러 줄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꼭 통일을 이루어 주고 싶다. 마음속이 답답하다. 어느덧 중학교 2학년이 된 나에게 꽃제비들이 주었던 충격은 생각 이상이었다. 장날만 되면 떨어져 있는 콩깍지 등을 주워먹고 구걸을 하러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안쓰

럽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쓴다. 점점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작은 나라 하나 조차 통일할 수 없는 정부의 무기력함에 화가 나기도 한다.

젓가락은 두 짝이 모두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하얗은 젓가락도 두 개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 한짝만 있는 젓가락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젓가락 한 짝처럼 짝 잃은 나라이지만 언젠가 남은 한 짝을 찾아내어 하나를 만들면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한쌍의 젓가락이 세계를 잡는 거대한 민족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되는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잊은 우리나라 이제는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적 발전도 우리에게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직 한 쌍의 젓가락은 화해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화해한 밝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앞에 다가설 것이다. 통일 글짓기를 쓰기전에 잠시나마 마음에 접어두었던 통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통일이 된 후 앞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통일이 하루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금강산

조 영 경

대방중학교 2학년

나의 친구 미란에게

안녕?

날이 갈수록 햇살이 그 따뜻함을 더해가는 보훈의 달 6월이구나
몸은 건강히 있는지……. 나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도 알겠지. 요즘 매일 뉴스와 신문에서 보도되는 금강산 주부
관광객 억류 사건 말이야. 한때는 코소보 사태로 들떠있던 공간들
이 이제 우리나라 남북의 문제로 매꾸어졌구나.

민영미씨라고 했던가. 북한측의 주장으로는 북한 안내원에게 귀
순 설득을 했다지. 안내원들이 말을 유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
이야. 난 처음에 그 사건을 뉴스를 통해 들었을 때, 단순히 북한이
또 억지를 부리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주부, 그냥 평범한 주부
관광객이 공작원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이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얼마 뒤였어.

금강산 일만이천의 봉우리, 낮익은 말이지만 그와 함께 웬지 신
비스러운 느낌마저 드는 산이었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통일이 되
면 꼭 가보겠다는 고운꿈을 접었던 대상이었기도 하고 말이야. 그

금강산에 가는 것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그 때의 그 누구도 몰랐을거야.

어쨌든 어렸을 때의 나에게 금강산이란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땅 같은 곳이었어. 그런 곳에는 언제나 모험가들이 찾아가게 마련이지. 나도 그 중의 하나가 되어 일만이천봉 하나하나에 통일의 깃발을 꽂는 그런 꿈을 꾸었다. 이제 그것이 비록 나에게 의해서 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이 금강산 관광이 마치 풍선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처음에는 공기가 팍 채워진 풍선같았는데 이제는 슬슬 바람이 빠져 작아지고 있는 풍선인 것 같아. 그리고 이번 민영미씨 사건은 그 풍선에 들이댄 바늘같은 기분이야.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독후감 발표회가 있었다. 그 중 3학년 언니가 쓴 독후감 속에 매우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있었어.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동이가 왼손에 든 채찍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연결고리로 표현했었지.

금강산이 바로 그 동이의 채찍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남과 북의 대립이고 말이야. 지금 남한과 북한은, 허생원이 동이가 자신의 아들인 줄 몰랐었던 것처럼,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거야.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라는 채찍이 계기가 되어 좀 더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없앨 수 있을 거 같아. 휴전선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물론 쉽진 않을거야. 얼마 전 서해교전이 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하지만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허생원과 동이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니. 그것처럼 남과 북의 앞날도 아직은 백지 상태인거야. 우린 얼마든지 통일이라는 대작품을 그 종이에 그려낼 수 있을거야. 금강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민영미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금강산이 동이의 채찍이 될지. 또 다른 어려움이 될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6학년 음악책에 '금강산'이라는 노래가 나와 있었지. 대수롭지 않게 불려지는 노래지만 그 금강산에는 너무나 큰 뜻이 숨어있다고 봐.

너희 학교에서도 매년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 글짓기, 포스터 행사를 하겠지. 포스터 그리는 애들의 작품을 보면 남은 파란색으로, 북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어. 우리나라가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진 보라색이 되려면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금강산에 관심을 돌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만 쓸게.

안녕

- 너의 친구 영경이로 부터 -

금강산에 핀 평화의 메아리

이 상 예

창원여자중학교 3학년

선배님께!

우리의 가슴을 쓸어 내리게 하고 호국 영령들의 참 뜻을 기리며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되돌아 보게 하는 날 6월 25일입니다. 그 씩쓸함을 하늘도 아는지 구름 낀 하늘을 내보이며 제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런 제 마음을 더 우울하게 하는 것은 진전없는 남북 교류입니다. 15일에 있었던 남북 전투함간의 포격전, 21일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 차관급 회담의 결렬,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억류……. 최근의 진전없는 남북 교류에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낄 뿐입니다.

선배님!

짙곳은 날씨 속에서도 통일을 위해 흘리시는 선배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선배님께 저의 응원이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글을 띄웁니다.

선배님!

한반도가 분단의 길을 걸어온지 벌써 반세기를 넘었습니다. 분단! 한반도에는 세 가지의 분단이 존재합니다.

국토 분단, 민족 분단, 체제 분단…….

한반도는 분단 후에는 38선으로, 6·25 전쟁 후에는 휴전선으로 서로를 먼 녀에서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한반도는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절경들은 하나되지 못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던 이들은 하나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질성을 잃어가고 이질화된 모습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남과 북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민주주의 체제를, 북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여 남과 북의 체제는 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체제로 인해 우리들의 사상마저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상의 차이는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통일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통일 - 우리 모두의 비원!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좀 더 나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흡수 통일을 막기 위해 북의 경제 사정을 돕고, 그들에게 포용 정책 - 햇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해 남북 농구 시합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남한의 공연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는 등 많은 문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지금보다 더 많은 교류와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을 때, 자주적인 통일의 빛이 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달라진 서로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져 올 고통과 희생을 사전에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배님!

어느새,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던 맑은 하늘에 6월의 싱그러움이 한반도를 감싸 둥니다. 남북한의 미래도 6월의 싱그러움만 같다면.....

지금 남북한의 교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순간의 고비라 생각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넓은 평지로 향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배님의 쉽 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학생이라는 저의 신분에 충실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금이 사라지고, 금강산 1만 2천봉 계곡마다 평화의 메아리가 끊이지 않는 그날을 기다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님의 건투를 빕니다.

한민족의 가슴

박 지 원

충무여자중학교 2학년

“산여운 구백하니”

“산과 구름이 다함께 회니.”

“운산 불변용이라.”

“구름과 산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어라.”

“운귀산 독립하니.”

“구름이 걷히고 산이 홀로서니.”

“일만이천봉이라.”

“일만이천 봉우리라.”

“자, 이 한시는 조선 숙종 때 송시열이라는 분께서 쓰신 것으로…….”

선생님의 말소리가 귀에 울렸다. 조선대 어느 한 선비가 쓰신 한시에 대해 배우면서 문득 머릿속에 금강산을 그려 보았다. 한적하고 고요한 그 곳, 금강산에 드리워진 구름 한 조각과 그 구름이 걷히고야 비로소 드러나는 일만이천봉의 장엄한 경치가 두 눈 가득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아, 아…! 금강산, 맑은 계곡이 드리워져 있고 햇살 쏟아지는 숲을 간직한 그곳……!

여름이면 탁 트인 푸르름을 지닌 봉래산으로, 가을이면 오색으

로 물든 풍악산으로, 겨울이면 온통 하얀 개골산으로, 그리고 봄이면 수줍은 빛깔의 금강산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우리의 산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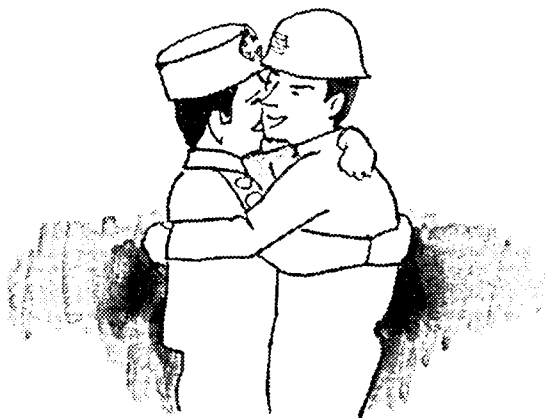
금강산은 단순히 경치가 빼어난 산으로서가 아닌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고 느껴오던 민족의 마음속 고향으로 자리잡아 있다. 한반도에 우리 조상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고난과 역사의 시간이었던 일제치하나 광복의 그 순간까지 수많은 시인과 선비들의 글감이요, 수많은 이들이 자연을 노래하고 슬픔을 달래는 안식처 역할을 해 왔던 금강산, 이제는 그 금강산이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시련 앞에 통일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 주고 있다. 금강산 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절로 취해 통일에 대한 의식을 한껏 드높이게 되었고 온 국민과 나 또한 금방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비해 북한에서는 자꾸만 깜짝깜짝 놀래킬 일들을 벌이고 있다. 금강산을 관광하던 한 평범한 가정주부를 '남한에 귀순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수일째 북한에 잡아두고 있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패씹하고 안타까워지는 이야기이다. 또한 지난번 서해안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던 사실에서도 우리를 마냥 적인 양, 남인 양 생각하는 북한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아직도 통일의 길은 먼 것일까? 두꺼운 장벽을 쌓아두고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으려 하지 않는 북한, 왠지 슬픈 생각이 든다. 언젠가는 한민족이 열싸안는 그 날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운 금강산은 그러한 우리 민족의 뜨거운 동포애를 한층 더 달

구어 줄 영원히 식지 않는 남북 만남의 장소이자, 잠시 두동강난 한 민족, 한 핏줄을 이어 줄 교차점인 것이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은 곧 우리 백의민족의 모습이며 넓고 한없는 금강산의 모습은 너그러운 한 민족의 가슴이다.

어서 빨리 금강산 일만이천 봉우리에 우리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통일의 그 날을 고대 해 본다.



금강산 기행

박도영

양곡중학교 2학년

평소엔 9시가 넘어야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겨우 일어나지만
오늘은 6시 30분 밖에 안됐는데 벌써 옷도 다 갈아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거울 앞에 섰다.

“자, 이제 준비 끝! 엄마, 내 도시락은?”

“식탁위에 있으니 니가 알아서 챙겨라.”

“내 참! 엄마, 내 기차표는 잘 챙겼죠?”

“그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너라.”

“네, 걱정 마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다. 처음으로 금강산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머리도 식힐 겸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볼 겸해서 가는 것이다. 아직 출발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소란스럽다. 아,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 금강산은 어떤 곳일까? 한국 명산 중의 하나라는데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안갔다. 아침부터 들떠서 안절부절 못하는 내가 걱정스러우신지 엄마는 계속 몸조심하라고 하신다.

처음엔 들떠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막상 집을 떠나려니깐 걱정이 되어서인지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

안하시게 씩씩하게 걸어갔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동안 기차는 벌써 저만큼이나 와 있었다. 기차가 멈추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었다. 서로 발을 밟고 난리였다. 하지만 금강산에 간다는 기쁨으로 아무도 화를 내진 않았다. 여기서 금강산까지는 꽤나 멀었다. 동해안을 따라 기차는 쉬지 않고 달렸다.

나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인지 피곤해서 곧 잠이 들었다.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땐 밤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저씨께선 계속 창밖 풍경을 구경하고 계셨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북한 땅이란다.”

“와~정말요? 근데 어두워서 밖이 잘 안보이네요.”

“하지만 곧 내릴테니 너무 섭섭해 하지 마라.”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금강산 가는 사람들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한다고 한다. 곧 기차는 멈췄고 난 부푼 가슴을 안고 기차에서 내렸다. 늦은 밤이라 밖은 굉장히 조용했다. 난생 처음 와보는 북한땅이다. 북한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이제 고층 빌딩도 눈에 많이 띄었고 아파트도 꽤 있었다. 역앞에는 택시들이 가득했다. 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택시를 타고 근처 호텔로 갔다. 호텔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 내가 자는 방엔 큰 침대가 놓여져 있고 정말 없는게 없었다.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했다. 난 그냥 샤워만 간단히 하고 잠이 들었다. 처음 와보는 곳이지만 꼭 내집처럼 느껴졌다. 북한 안내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주민들도 관광객들에게 이것 저것 자세히 가르쳐 줬다.

정말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아침을 먹고 산에 올라갈 준비를 했다. 나는 여러 관광객들과 어울려 산에 올라갔다. 여기저기 구경하다 명연담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명연담은 수심이 수십미터나 되는 깊은 연못이었다. 그 앞 정면에는 큰 불상 3체가 조각되어 있고 양쪽 옆면과 후면에는 작은 불상 63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난 멍하니 그 바위를 쳐다보았다.

‘이런 큰 바위에 누가 불상을 새겼을까? 정말 대단하다. 어 저건 뭐지? 이런 곳에 무슨 집이 있나? 관광객들이 잠시 들어와서 쉬어가라고 지은 건가? 완전 새집이네 정말 집 좋다.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거기 누구 안계세요?”

집에 들어가니 굉장히 조용했다.

“아무도 없나”

“우리집엔 무슨 일로 왔는지...”

“네. 안녕하세요. 전 금강산에 놀러온 박도영이라고 하는데...”

“도영이라고? 누추하지만 이쪽으로 오너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죄송해요.”

“괜찮다.”

그 아저씨는 한복을 입고 계셨다. 집안을 둘러보니 꼭 사극을 보는 것 같았다.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어쨌든 아저씨가 친절하시니깐 좋다.’

“자 여기 과일 먹어라. 넌 남한에서 왔니?”

“네. 아저씨가 이집 주인이신 가 봐요.”

“그렇단다. 넌 이곳에 관한 전설을 들어봤니?”

“아니요. 아저씨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아저씨가 얘기해 줄까?”

“네. 빨리 해주세요.”

아저씨 애긴 이러했다.

이 집엔 원래 금동거사라는 분이 살고 계셨는데 나쁜 사람의 꾀에 걸려들어 이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그 부인과 두 아들이 따라 죽었다. 그때 갑자기 한차례 폭풍우가 쏟아지더니 그 연못 속에서 큰 바위가 솟아올랐다. 그 가족들의 시신이 바위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바위가 바로 연못에 서 있는 4개의 바위들이다. 나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유적지에 설화가 전해오듯이 북한에도 설화가 전해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설화는 바로 북한과 우리의 공동조상님의 이야기라는 생각과 함께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았다. 지금까지 나는 북한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같이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일행들을 만나기 위해 급히 서둘러 산을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잘못 짚어 몸이 공중으로 뜨는가 했더니 이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 놀라 깨어보니 집이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다. 그리고 그 전설 이야기와 친절하게 대해준 그 주민들

의 모습이 자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꿈속에서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너무 즐거웠고 북한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깨달음이 강하게 내 마음에 남았다.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좋은 여행이었다.

왜 나는 그동안 북한을 외국인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 북한과 우리의 차이점만을 TV나 교과서에서 알게 모르게 가르쳐 왔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는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널리 알려 북한 사람들과 우리는 한 민족임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일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평화를 지키는 손

김 정 주

부강중학교 2학년

“아, 맛있다. 예지야, 이 빵좀 먹어볼래?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온 빵인데 정말 맛있어.”

“고마워. 우와! 정말 맛있다.”

“맛있지?”

“어? 정주야 선생님 오신다. 얼른 치워.”

“어. 어. 알겠어, 어떻게 하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버리지 뭐 집에 많은데…….”

“그래도 정주야, 아깝잖아. 그걸 왜 버려?”

“뭐 어때? 괜찮아”

훅~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무심코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침자습 시간 내내 분주한 시장통처럼 왁자지껄 시끄럽던 교실이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 마치 쥐죽은듯이 조용해졌다.

“자, 여러분, 오늘 조회 시간에는 최근 북한의 모습을 담은 비디

오 테잎을 보여줄테니 조용히 시청하도록 해요.”

선생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북한 동포 돕기, 사랑의 쌀 모으기’ 라고 쓰여있는 노오란 비닐봉투를 한 장씩 나누어 주셨다.

“이게 뭐야? 또 쌀 가져오는 거야?”

“이거 작년에도 했었잖아. 어휴~ 뭐 이런걸 이렇게 자주해?”

교실 여기저기에서 북녘의 동포들에 대해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불만 섞인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교실 안이 웅성거렸다. 그때 TV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며 장마당 식당 주위에 떨어진 국수가락을 주워 먹는 모습이 나왔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 산을 돌아다니며 식용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모습들은 마치 초식동물 같아 보였다. 이렇게 나무껍질과 뿌리, 풀 등으로 연명하는 북한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머리카락, 쑥 들어간 눈, 올챙이처럼 볼록한 배를 가진 아이들은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자동차로 불과 몇 시간만 달리면 갈 수 있는 북녘 땅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이런 식량문제만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공장, 몇날 며칠을 끄적앉고 서있는 트럭들이 북한의 경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계를 돌리지 않아 문을 닫은 공장이 많고, 트럭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 운행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병원에는 약이 없어 아픈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도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고나서야 나는 '우리 남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돌이켜 나의 생활을 반성하게 되었다. 아침자습 시간에 먹던 빵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린 나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나의 짝꿍 예지가 나를 한심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 생각없이 습관처럼 그런 행동을 했으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낭비를 하며 생활했는지 짐작이 갔다. 빵 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 심지어는 매일 아침 엄마께서 정성스레 싸 주시는 도시락 까지도 버린 적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무심코 버렸던 음식들을 북녘의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이렇게 절약할 줄 모르고 낭비하는 생활 속에서도 한 핏줄, 한 민족인 북한 동포를 돕는 것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행동했는지 내가 '사랑의 쌀 모으기' 봉투를 받고 나서 투덜거렸던 모습이 창피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말로만 '통일이 되었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비로소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바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포근한 인정을 갖고 단 돈 천원이라도 선뜻 내놓을 수 있

는 사랑의 손길을 북녘의 동포들에게 내미는 것이다. 얼마전 내가 TV를 통해 남한의 우직한 소 때들이 판문점을 거쳐 북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소떼들의 발걸음처럼 우리들이 통일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한의 비행기가 북한의 상공을 날 수 있게 되었고 남한에서 북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도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며 피땀흘려 노력한 일들로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아갈 때 우리가 기다리던 통일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들의 눈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다시금 믿게 되었다. 작은 청소년인 나 한 사람이 통일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은 종이 쪽지라도, 딱다 남은 빵 한 조각이라도 버리지 않고 북녘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나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아끼고 절약해야겠다. 그 작은 실천이 바로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통일이 언제 오더라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북에 있는 나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북한 동포 돕기, 사랑의 쌀 모으기.' 봉투에 나의 마음을 푹푹 눌러서 가득 담아야겠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 바로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따뜻한 나의 손길로 통일을 이루어 하늘 아래 첫 동네 백두산에 북녘의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오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남북을 잇는 끈, 믿음

이 민 정

충북여자중학교 1학년

“뉴스속보입니다. 서해안에서 벌어진 남북한의 총격전이 한민족의 이질감을 더욱 실감나게 해 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우리 반 교실에서는 온통 서해안 격전 얘기로 떠들썩 했다. 물론 우리가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의견은 한 가지로 통일되었다.

“북한, 이 나쁜 사람들 전쟁이 그렇게 좋나?”

이렇게 북한이 나쁘다는 얘기로 독서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모두 이 얘기 뿐이었다.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까지도 “신탁통치로 남북한이 갈라졌지만, 서로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긴 것은 6·25 동란 이후지. 그 때 받은 피해로 서로의 어두운 점만 보게 되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북한에서도 좋은 점이 있을거야.”

항상 북한은 공산주의에, 가난하고 자유도 없어 하루에도 수십 명씩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등 나쁜 점만 들어왔고, TV에서도 간첩이 내려왔느니, 서해로 내려와 총격전을 퍼부었느니 하는 보도만 보아왔던 나로서는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은 나도, 북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믿어 왔었다. 가난하니까 뭐든 못하겠나 하는 생각에 측은했었다. 그런데 계속 나쁜 소식들만 들으면서 북한은 나쁘다는 생각이 저절로 뿌리박혀 버렸다.

‘통일이 거저 되는 게 아닐거야. 무엇보다도 북한의 태도가 그런 걸, 아무리 믿으려고, 좋게 보려고 노력해도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 치가 떨려.’

물론 내가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다던지, 그에 관한 뉴스나 신문 기사를 특별히 관심있게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아까 이해가 되지 않던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었다. 북한에도 좋은 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만일,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북한의 나쁘고 어두운 면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계속 이런 상태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두운 면만 얘기한다면 통일이 더욱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통일이 된다는 것은 그저 땅 덩어리가 하나되고 휴전선이 허물어 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사상이 하나가 되고 이제까지 서로 있었던 모든 감정들이 정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로 나쁜 점만을 가르치고, 적대시 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은 나쁜 나라’ 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다 못해 나무가 되었다. 그런데도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치고 먼 남의 나라 보듯이 관심도 갖지 않는데 곧 통일이 된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다. 금강산 관

광, 이산 가족의 교류, 식량 지원 등 정부에서는 일명 '햇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IMF인데, 남의 일 봐줄 새가 어딴어? 우리에게 피해만 줬는데.”

이런 반응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북한을 눈감아 줄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은 꼬집어 줄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서해안 격전 때도 북한의 태도에 대해 최대한 관대하게 회의를 이끌어 갔으니 북한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생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북한을 한 번 믿어 보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을 것이다. 북한을 믿고, 북한을 지원해 주는 정부를 믿을 것이다. 북한을 믿고 이해해 줘야만이 다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테니 말이다.

‘그래. 사람들이, 아니 남북한이 서로 믿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이야. 한 번 끊어졌던 믿음이라는 끈이지만, 그것을 잇는다면,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이 된다면 틀림없이 통일도 금방 이루어 질 거라구.’

이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하는 내 등 뒤로, 햇님이 기특하다는 듯이, 오늘 일을 알고 있다는 듯이 너무도 밝고 환하게 웃어 주었다.

통일의 꽃

김 보 라

남성중학교 2학년

남북통일, 이제는 그리 낯설게만 느껴지는 말은 아니다. 수많은 언론매체에서 또 주변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접해 온 말과 이야기들……. 6·25, 그 아픔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 사이엔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높이 가지를 뻗으며 자랐다. 그 때는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 속을 울리며 깊이, 아주 깊이 파고들어 왔을 것이다.

또 사람들은 그 아픔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꾸만 뻗어가는 뿌리가 주는 고통이 지금은 익숙한가보다. 이제는 제법 질려버릴 듯도 한 그 말이 점점 모두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머릿 속에서 조차 잊혀져가고 있다. 하지만 무엇때문인지 나에게 있어 그것은 자꾸만 피어오르고, 자꾸만 크게 울려퍼지는 민족의 외침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한 책상에 글을 그어놓고 싸우는 어린 짝궁들을 종종 보게 된다.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 꼭 그렇다. 휴전선이라는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총칼을 겨누며 으르렁거리는 모습, 잠시도 경계의 눈빛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가끔은 그 모습이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다. 전쟁으로 생겨난 수 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 역시, 빼놓을 수는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 또 그들에 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다. 이제서야 알아버렸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슴 아픈 이별이 얼마나 흔하게 널려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한다. 한 민족, 한 핏줄, 그리고 한 겨레인 우리들이 고작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 많은 산물 중의 하나에 불과한 철조망에 얽매어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이다.

귀를 기울여 보아라. 혹시 들리는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이 지하에서 울고 있다. 수많은 영혼들이 흐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한다. 그저 '소리없는 외침' 정도로 가볍게 여기어 무관심하기만 할 뿐,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는 너무도 쉽게 말한다. 그 말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는 줄도 모른 채, 잘도 떠들어 대고 있다. 상처입은 그들의 눈이 무얼 바라보고 있는지 나 역시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에서는 아직도 그 처절한 오욕의 역사가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우지 못한 기억,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되새기며 그들은 오늘도 저 멀리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통일 전망대라는 곳에 가 본 일이 있다. 물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곳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 곳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글자 그대로 그 무엇보다 통일을 바라고 위하는 곳이며 가까우면서도 멀기만 한 북녘 땅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곳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것이라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통일 전망대' 라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적으로 수치스런 일인 것이다.

알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가? 오래 전 멈추어 버렸다는 통일을 위한 열차. 자유로이 남북한을 오가던 그 열차가 지금은 빛 바랜 낡은 간판과 함께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역에서 그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버린 시간의 열차. 철마는 달리고 싶다. 그리고 예전처럼 저 강산 너머로 힘차게 달려 가고 싶다.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하나, 남북 통일이다. 경제적인 부와 눈앞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하나된 통일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하지만 먼 훗날에라도 꼭 아름답게 피어 그 자태를 뽐낼 그 꽃을 위하여.

그리운 친구에게

이 유 진

옥산중학교 2학년

여기는 무엇하나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남한이야. 나 또한 사람들과 어울려 넉넉함과, 편안함으로 살고 있어. 이 곳 사람들은 온갖 사치를 누리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 마음 속 어느 한 곳이 텅 비어 있는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반쪽의 친구인 너희들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여웠는지 몰라. 한 민족이 분단되어 한쪽은 부유하고 다른 한쪽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는 현실이 안타까워.

얼마전, 북한에서 귀순한 분의 강의를 들었어.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콩 한알도 감사히 먹으며 하루를 지내야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저려온다. 또한 나 자신을 꾸짖게 되었어. 엄마가 해 주시는 맛있는 반찬도 먹기 싫다며 투정 부린 일, 음식을 낭비하는 생활 태도를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잘못된 생활방식을 가졌다는 것에 반성하게 되었어.

요즈음 거리를 나가면 '북한 어린이 돕기'라는 행사를 하고 있어. 굶주림으로 울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걸어 놓고, 뜻 있는 사람들이 "북한 어린이를 도웁시다."라고 외치며 도우려는 행사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명, 두명씩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 나도 툼툼히 저 축한 돈을 너희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성금으로 내놓았어. 날이 갈수록 가득차고 있는 상자안의 작은 노력들을 보고, 너희들이 함박 웃음을 지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 아른 거린다.

우리집에서도 가족들이 성금을 모으고 있어. 너희들을 생각하며 절약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부모님께서서는 푼푼히 모은 돈을 내놓으셨어. 너희들을 도와 주겠다는 선량한 마음들이 조금씩 모아졌지만, 아직까지는 그 아픔을 헤아리고 이해하기엔 시간이 걸릴 거야.

아직도 어른들간의 미움과 전쟁으로 상처받고 희생되어야 하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통일을 이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한편으로는 너희를 생각해 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에 그 가벼운 모습도, 언젠가는 희망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웃고 있을거라 믿어. 너희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힘이 되고 싶어.

헤어지면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니.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그 아픔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고 믿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줘. 언제나 너희들 가슴 한 구석 어딘가에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은 반쪽, 아니 영원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래.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말아 줘.

희망을 잃지 않는 너희들의 웃음을 생각하며 굳은 신념을 갖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그럼, 안녕!

신이시여!

한 화 순

추자중학교 3학년

당신은 보이십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 만나지 못해 50평생을 눈물로 얼룩진 세월과 남북은 항상 꿈이 없는 눈동자가...

당신은 들리십니까 갈라진 민족이 아닌 하나의 민족이 되길 바라는 한탄의 아우성이...

심장의 반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이 피어 희망의 내일은 빼앗긴 텅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의 반은 누군가가 인간들에게 준 허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신이시여 이것이 당신이 바라는 세상입니까. 이제 저의 소원 아니 800만 여명이 바라는 소원을 이젠 당신의 귀를 가리우지 마시고 우리의 애痛的 소리를 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맨 처음 우리에게 깃발을 달을 수 없는 곳까지 공중에 달아 놓은 이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끈은 깃발을 향한 이념과 간절함을 꺾지마소서: 사망의 그늘에서 슬퍼하는 이산가족을 그냥 두지 마소서 마치 누군가의 저주가 내린 듯 싶지만 이제 그 저주가 진실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그리워 사랑이 메마른 무서운 불치병을 고치소서. 이산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기다리다 힘에 겨워 지친 사람

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의 손에 있게 허락하소서.

우리 이제 모두가 일어나 맘을 홀리게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소서. 풍성한 통일의 열매를 위해서... 제발.

너무나도 이상하다. 나에게 이산의 슬픔을 가진 가족도 없으며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은 더구나 없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나를 감동케 함으로 된 것 같다.

며칠 전 난 하루를 물 한 컵 마시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때 왜 그리 눈시울이 적시고 가슴이 아프던지 알 수 없었던 무엇인가가 나를 북한의 형제들을 생각나게 했다. 이런 것이 한 핏줄의 정기인 것일까. 난 단 하루를 굶었지만 북한의 형제들은 매일을 하루처럼 지내다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게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우리 학교에 최병국 귀순자께서 오셨었다. 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분의 앙상히 남은 모습으로 38선이 우리 남북한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비참하게 하는지 짐작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 아파와 난 함께 모아둔 저금통을 찢어 74600원의 작은 정성을 북한에게 보냈다.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난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선 하나로 갈라져 참혹한 짐을 지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민의 해결책은 단 한 길 통일.....

통일의 길은 우리 800만 여명이 바라는 소원이기에 더욱 간절히 느껴진다. 우리 남한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대책과 생각을 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 할지라도 식량 원조를 하고 있음도 잘 안다. 인육을 먹고 마치 식인종 처럼 되어 버린 북한…….

그들을 더 이상 살인자로 만들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일으켜 주고 손을 내밀어 주어 그들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맘이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잃어버린 정과 보지 못해 사랑의 봉사가 된 우리 민족에게 가슴 깊이 묻어 둔 것을 펼치게 하고 싶다.

통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미국과 소련의 결정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다시 남의 손에 맡길 것인가. 결코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원한 적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주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얼마 멀지 않는 곳에서 통일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더욱 더 조급해진다.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자.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만주와 발해까지 펼친 위대한 업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하나가 되자.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런 다울정신을 계승해 더욱 큰 세상에 소망을 두고 발을 뻗어야 할 것이 아닌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감격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남지 않았다. 휴전선이 없어져 바다와 하늘에 채울 수도 형용할 수도 없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린다.

‘아기 비둘기의 소원’

서 지 영

고산중학교 1학년

저는 작고 귀여운 아기 비둘기랍니다. 전 지금 넓은 들판과 높은 산, 맑고 푸르른 강을 지나 북으로 가고 있어요. 저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인 할아버지의 소중한 편지를 가지고 북으로 북으로 간답니다.

저의 주인 할아버지께서는 실향민이세요. 가족을 남겨두고 고향을 뒤로 한 채 혼자 남으로 피난와서 홀로 외로이 사시는 분이지요.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고 고향의 정겨운 내음을 느끼고 싶으실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시며 북녘 하늘을 지긋이 바라보시죠.

그러던 어느날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손수건 한 장에 편지를 쓰시고는 제 다리에 그것을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애야, 네가 나 대신 저멀리 내 고향집에 다녀오려므나. 그 편지 좀 전해 주려므나……”하고 부탁하셨어요. 저 철조망 때문에 못가겠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전 북으로 간답니다. 얼른 철조망 장벽을 지나 할아버지 고향에 가고 싶네요. 얼른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네요. 아, 저기 멀리 철조망이 보여요.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었던 고통이었던 철조망이 보이네요. 이제 북한땅이

예요. 저기 금강산도 보여요. '내가 너처럼 새였으면...' 했던 할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생각나요. 짐승들도 휴전선을 넘고 버젓이 북으로 가는데 사람은 갈 수 없었으니 말이예요. 여기 저기에 빨강 글자도 눈에 띄어요. '위대한 수령' 이라고 써진 바위가 자연환경을 망치고 나의 가슴까지 정말 슬프게 만들어요.

어, 저기는 시장인가 봐요. 물건 사는 사람과 장사꾼들. 그런데 저기 저 꼬마는 누구죠? 너무 불쌍해 보여요.

땅에 떨어진 음식 자투리를 주워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는 저 어린이는 도대체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즘 TV의 북한 방송을 보면 굶어 죽는 어린이가 주민들이 참 많던데... 남한의 편식하는 어린이, 다이어트 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편한 생활만 했었나 봐요. 저런 어린이들도 있는데...

아! 고향이예요! 할아버지의 고향이예요! 과연 할아버지 가족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날아오면서 다 너덜너덜해진 낡은 손수건을 얼른 떨어뜨리고 와야 겠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할아버지께서도 무척 기뻐실 거예요.

이제 다시 저는 남으로 날아 간답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남으로 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그들을 내버려 둘 건가요? 우리는 그들과 단군의 피를 함께 이어 받은 한민족이요, 형제요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잊은건 아니겠죠?

원래 하나인건 두 개로 나뉘어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꼭 언젠가는 하나로 다시 통일될 거예요.

통일!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지금 제가 지나가는 이 6·25의 흔적인 철조망이 없어지는 날 서로 생사를 모르며 지내던 이산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는 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통일 대한민국'으로 변하는 날, '통일'이 더 이상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닐 날. 그날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거예요. 양보와 이해, 협동, 신뢰를 배우며…….

벌써 집이에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함박 웃음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푸른 하늘에 황금빛 햇빛이 합쳐져서 더욱 아름다운 석양이네요.



평양에 살고 있는 친구 슬비에게

조 은 영

귀일중학교 3학년

슬비야! 안녕? 나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통일이라고해. 이름이 조금 특이하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소원이 통일이 었대.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이름도 할아버지 소원처럼 통일이 되어버렸지 뭐!

너도 알다시피 너희 평양중학교와 우리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 난 평소에 평양중학교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너희 학교랑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 너도 이름이 참 이쁘던데 누가 지어준 이름이야? 이름처럼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얼마 뒤면 월드컵 준결승이 펼쳐질거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브라질과 격돌하게 되는데... 하지만 무슨 걱정이야. 아무리 브라질이 세계 최강이라도 천하무적 우리나라에게는 패할게 뻔한데. 안 그래? 난 요새 너무 행복해. 몇 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통일이 되었으니 말이야.

슬비야! 아직도 난 통일이 되었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단다. 통일이 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흘러나오자 난 동생을 껴안고 폴짝폴짝 뛰었어. 할아버지께서도 이제야 편히 갈 수 있겠다며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려 하셨어. 통일은 정말 우리들에게

커다란 꿈을 주었다. 50여년 동안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우리나라 국토에 이제는 무궁화가 심어져 있겠지. 휴전선이 철폐되던 날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까지도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정말 시원했거든... 아차!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던데 미국 사람들 신경 좀 쓰이겠는데. 우리나라 왜 이제야 통일이 되었을까? 좀더 일찍 통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슬비야! 이번주 일요일날 평양에서 음악회 열린데, 너 갈꺼니? 거기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나오는데, 나도 가고싶지만 어쩔 수 없지. 언제 제주도에서도 음악회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가볼텐데 슬비야! 너 한라산 와 봤어. 금강산도 아름답지만 한라산도 무척 아름답단다.

한라산에는 희귀한 식물들이 많아서 식물의 보물섬이라고 하잖아. 제주도에 놀러오게 되면 나랑 꼭 한라산 백록담까지 등반하자. 약속!

밖에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니까 갑자기 너 생각이 난다. 지금 내리는 비도 이슬비거든... 정말 우연이다.

슬비야! 우리 학교 수학 여행에서 금강산이랑 평양에 가게 될 것 같아. 수학여행으로 가고 싶은 곳을 조사했는데 금강산이 가장 많았나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봐야 하는 곳 금강산을 여행할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되는거 있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그 쪽으로 수학여행 가게 되면 연락해줄게.

슬비야! 너 남자친구 있지? 우리 학교 남학생중에 아주 괜찮은

애들이 많거든. 니가 원한다면 소개시켜 줄게.

그 대신 너두 남자 소개시켜 줘야 해. 평양 남자들은 여자에게 잘 해 주는걸로 유명하잖아. 내 이상형이 매너 좋은 남자거든...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하게 됐는데 난 거기에서 춤추기로 했어.

쟁피하기도 하지만 중학교를 다니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하기로 했어. 너도 내 모습 보면 참 좋을텐데. 아차! 학교에서 비디오 촬영하니까 그걸로 보면 되겠구나! 네가 볼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출게.

너도 마음속으로 나 응원해줘야 해. 알았지?

어느덧 창밖의 비가 멈췄구나! 지금 하늘엔 너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있어. 꼭 너와 나의 만남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아. 우리의 소중한 만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아프지않게 몸조심하구 우리가 월드컵 우승할 수 있게 기도하자.

“대한민국 파이팅”

2002년 8월 8일

- 제주도에서 통일이 -

소금이여(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최 영 민

양정고등학교 3학년

며칠 전, 온 가족이 둘러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TV를 시청하던 중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프로그램이 며칠 뒤 방영될 것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가족 모두 '이제 통일에 또다시 한 걸음 내딛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고, 나도 내심 즐거웠다. 하지만 곧이어 방송된 9시 뉴스의 첫소식은 '남·북한의 서해 교전'이었다. 북한 경비정이 잇단 북방 한계선 침범에 밀어내기식 충돌로 대항하던 우리나라 해군이 북한 경비정의 어뢰 발사로 인해 무력으로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한편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협조하고 한 편으로는 무력 도발을 시도하다니…….

북한의 이중적인 행보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와 더불어 부풀었던 기대감도 사라졌다. 잠시뒤에 방영된 한 프로그램도 이러한 실망감을 더해 주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강원도 구석에 휴전선을 마주한 채 실향민 2000여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이 마을의 표정을 방영하던 프로그램은 한 할아버지를 인터뷰했다. 할아버지는 "이젠 기대도 안 해요. 소 주고, 쌀 주고, 비료도 주고 이야기 하자는데 그러니……. 생전에 고향 땅 한 번 밟아보려 했는데……." 하시며 말끝을 흐리셨다. 이처럼 통일을 열망해 온 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어떠한 자세로 통일을 준비해 왔고, 앞으로 통일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이제까지 남·북한의 관계는 화해 분위기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냉전, 또다시 화해 분위기로 이어지는 순환을 거듭해 왔다. 60·70년대에 8·15선언과 7·4남북공동성명 등으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는 북측의 잇따른 땅굴이 발견됨으로써 깨졌고, 80년대에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운동 등으로 재조성된 화해 분위기는 북한의 끊임없는 휴전선 도발과 간첩 남파로 와해되었다. 그리고 최근들어 대북 쌀 지원과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금창리 지하 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서 조성된 화해 분위기도 연평도 인근 서해 도발로 인해 또다시 무너져 버렸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우리의 무조건적이고 감상적인 통일관이 반영된 '통일 지상주의'에 기인한다. 막연히 감상적으로 통일이면 무조건적 희생을 감수하려는 태도가 북한의 또다른 도발을 불러 올 수 있다. 그리고 대북 쌀·비료 지원, 소 때 방북 등 이른바 현 정부의 '햇볕 정책'도 안보 의식이 전제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즉, 햇볕과 바람, 당근과 채찍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식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국가의 성립 전제이고 조건이다. 따라서 물론 통일도 중요하지만, 투철한 안보 의식과 국가 체제에 대한 신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이질화된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 시급하다. 분단 이대로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시도는 정부시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이 시는 내가 종종 애송하는 고은 시인의 ‘성묘’란 시다. 이 시는 남북분단에 이은 민족 동질성의 상실을 아버지의 죽음에 비유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얀 소금’이라는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시에서 조차 간절히 바란 통일과 민족 동질성의 회복은 정보·언론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전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정보·언론매체를 통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언어의 동질성 역시 더불어 추구되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한 단원 정도로 단순 취급하는 '북한의 말과 글'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언어의 동질화를 꾀해야 한다. 작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0대 개혁 과제를 선정하면서 북한 TV, 라디오 등 통신 매체 부분 개방과 언어 동질성 회복을 포함시킨 점을 감안한다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그리 멀지 않은 않다. 아직도 백두산 관광은 중국측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조그만데서 다시 한 번 분단 아픔을 느끼는 지금, 우리의 통일에 대한 자세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통일은 무조건적인 '통일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준비가 선행될 때 비로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소금이여"를 외치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고은 시인의 모습을 그리며 통일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그리고 북측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아바이 마을의 그 할아버지 얼굴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그려 본다.

참 만남을 위하여

전 예 지

부산서여자고등학교 3학년

지난 설에 엄마와 함께 마산 큰 댁에 갔다. 고속버스를 타고, 주위 풍경들의 변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나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아마도 불안함이었을 것이다. 5년만에 만나는 큰 댁 식구들, 언니, 오빠……. 5년이란 긴 시간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나를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나는 떨고 있었던 것이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묻고 오던 날,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는 크게 다투셨다. 서로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알고 있었지만 혼자 남으신 할아버지의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등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아버지께서는 여지껏 큰 댁 식구들과 담을 쌓고 계신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다. 할아버지께는 극진한 며느리로, 큰어머니께는 일 잘하는 동서로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오셨다.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에는 빠지지 않으시고 큰 댁에 올라가시곤 하셨다. 그 때마다 아버지와 집을 지키던 내가 5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깨고, 큰 댁에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곧 고3이 되기 때문이었다. 10대의 마지막... 난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냈던 나는 마산을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도 모

르게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새 도착한 마산. 5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듯 했다. 아니, 낯익음 속의 낯설음이었다. 큰 댁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어렵פות이 떠오르는 가게의 모습…… 바로 큰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구멍가게가 이제는 어엿한 간판을 달고 제법 큰 규모로 손님을 맞고 있었다.

“이게 누구고? 예지 아니가?” 나의 불안을 한꺼번에 씻어주신 큰어머니의 인사…… 다정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웃었다. 5년이라는 공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긴긴 시간,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친척이라는 끈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잊지 않고 그리워하면 그 만남은 곧 오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 방영된 「이산가족찾기」 방송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다. 금강산 관광, 북한에 비료보내기 등 지속적인 햇볕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도 전에 발생한 14분간의 교전. 북한의 이번 선제공격은 다가올 통일에의 기대로 들떠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했다. 햇볕정책만으로는, 북한과 우리 사이를 묶어두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해 준 셈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통일 전망대에 올라 피맺힌 절규를 하는 이들, 금강산에 갈 여비가 없어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의 손을우리는 잡아야 한다. 그들이 절망을 던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보살피 주어야 한다.

햇볕정책만이 통일의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고 다방면에서 통일의 전망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우리와의 동질성 회복이다. 이번 서해에서의 교전을 계기로 북한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아직도 두터움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효과적인 방법은 문화나 예술, 그리고 종교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일종의 미신으로 취급되었던, 종교에 대한 규제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북한에도 현재 교회나 불교단체가 건립되어 있고, 종교행사도 열리고 있다. 우리와의 정기적인 종교행사를 통해 이념을 뛰어넘은 진정한 화합을 구축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게 될 것이리라.

또한 음악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사상적 내용만을 가사로 하여, 사상적 교육을 철저히 해온 북한의 노래들이 현재에는 서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점차적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행한다고 하니, 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서정적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음악 -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 - 을 통하여 사상성을 중시하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고취에 큰 기여를 하리라 믿는다.

이러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염원인 통일은 그리 멀지 않으리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 날, 진정 우리는 참만남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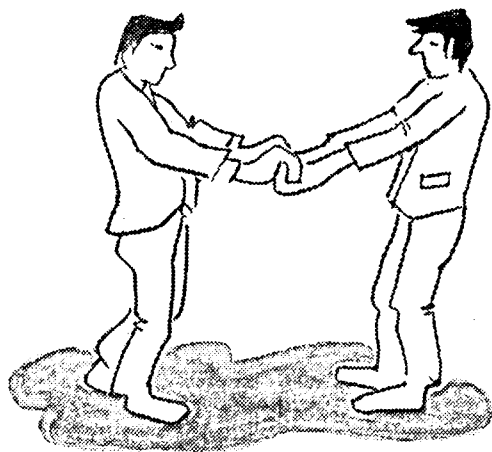
리의 아름다운 눈물이 이산가족의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그 날
분명 우리는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내가 참만남의 의미를 깨닫고, 주위의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듯
이 벽을 쌓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도 참만남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를 바란다.

아버지의 참만남을 위하여,

남과 북의 참만남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내 삶을 반성해 본다.



통일의 그림

남 화 정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학년

우리 옆집엔 할머니 한 분이 사신다. 할머니께서 이사오신 후부터 우리가족은 모두 할머니에 대한 궁금함으로 할머니를 살펴본곤 했다. 처음엔 몰랐는데 할머니에겐 가족이 1명도 없는 듯 했다.

새벽 일찍 교회로 나가시고 늦게 돌아오시는 할머니. 이미 연세 탓에 걷는 것조차 힘들시지만, 교회를 거르시는 적은 없었다. 몸이 편찮으실 때나 비가 몹시 올 때도 말없이 교회로 가시곤 했다. 우리가족의 궁금함은 더해 갔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찮게 듣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에겐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은 그 생사여부조차 모른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의 고향은 저 멀리 '이북'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난 알 수 있었다. 할머니의 외로운 뒷 모습에, 그리고 어설픈 미소에 그리움이라는 향기가 배어 있음을.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안타까운 눈물이 흐르는 이유를... 그리고 며칠전, 할머니께서 판문점에 다녀오셨다. 얼핏 듣기론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러 가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울고, 또 울고, 복받쳐 흐르는 감정에 계속 우셨다고 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도 계속 우셨다. 성큼 가까워진,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그곳에 대한 연민에선지, 할머니의 눈물

은 그칠줄을 몰랐다. 고향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일까. 나는 할머니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 우리나라엔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을 이산가족이라고 부르려니 죄스런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는 1950년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을 치뤄야만 했다. 같은 동포끼리 미친 듯이 총칼을 들이댔던 그 전쟁... 다른 이익국가들의 사냥감이 되어 빚어진 슬픈 전쟁이었다. 전쟁은 우리에게 감내하기 힘든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엄청난 물질적 피해, 무고히 죽어간 사람들, 38선,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 -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 아프게 무너져 갔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이요,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강대국의 입맛에 맞게 잘 그려진, 6·25전쟁은 아슬아슬한 작품이었다. 그 작품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울었던가.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나 자신마저 잃었다. 반만년을 일궈온 조상들의 정신을 무참히 쓰러뜨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남한과 북한이 여기에서 있다. 그 동안 남한은 북한과 통일을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쌀과 식량을 보냈고, 소까지 보냈다. 차라리 북으로 가는 소가 되고 싶다고 울부짖던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북한은 우리를 너무나 실망하게 만들었다. 화친의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순간 땅굴을 파고, 잠수정을 침투시켰다. 우습지 않은가. 지금 동해에는 북으로 가는 금강 유람선이 떠 있는데 서해에는 전투함이 떠 있다는 것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따스하게 품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겨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단일민족 국가이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이제 머지않아 다시 하나가 될 것임을...

며칠전, 나는 이응노 화백의 미술전시회에 다녀왔다. 주로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린다는 데 흥미가 끌려 그곳을 찾았다. 그림들은 모두 수묵화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 뿐이었다. 내가 그림에 실망을 느낄 때 쯤, 내 눈에는 내키를 넘는 거대한 그림 하나가 들어왔다. 멀리서 보았을 땐, 그저 거친 실 같은게 이리 저리 엉킨 듯 했다. 그러나, 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군상'이었다. 단순하지만 그 역동적인 힘에 숨이 막혀왔다. 이 힘찬 기운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 나는 알 수 없는 흥분속에 그림에 다가섰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남북한이 서로 손을 잡고 기쁨과 감격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의 통일된 광경이었다. 손을 잡은 사람들은 꿈일줄 몰랐다. 그들은 기쁨의 춤을 추고, 감격의 환호를 올렸다. 내귀에도 그 환호가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오직 검은 사람과 흰 여백뿐인 그림이었지만, 그림은 빈데 하나없이 완벽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내기에 충분했다. 나도 어느덧 그 흥겨운 외침과 춤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통일이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이 그림을 타고 내 맘을 타고, 뜨겁게 뜨겁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아! 통일이 된다면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속에 귀가 먹고, 흙먼지로 눈이 멀고, 흥분에 불타는 가슴으로 심장이 터진대도, 그들은 웃을 것이요...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해할수 없었던 할머니의 눈물까지도, 두사람이 손을 잡고 합성을 지르며 춤추는 그림이 있었다. 마치 하나가 된 느낌이다. 아니 벌써 하나가 됐는지도 모른다! 내가 미술관을 나서면 이미 통일이 돼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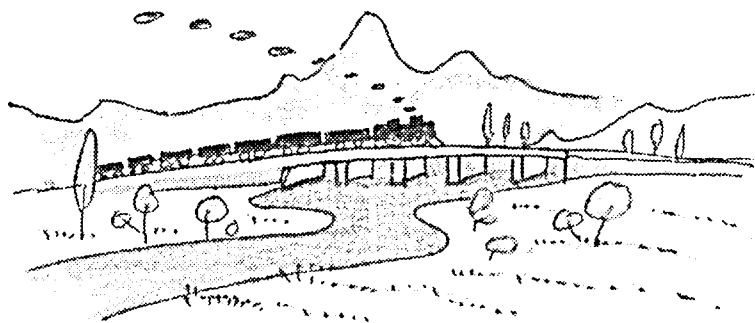
나는 너무나 감격했다. 그림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부등켜 안았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흥겨웠다. 남북한이 이렇게 부등켜 안을 수만 있다면 이 그림들은 모두 살아 뛰쳐 나오리라.

그림 앞에 서 있는 난, 느낄 수 있었다. 합성이 천지를 메우고, 기쁨의 눈물이 바다가 되어 그렇게 내 맘을 흔들며 흐르고 있음을.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의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50년을 지우기 위해서,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역사의 흐름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빛나는 민족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고,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전쟁의 작품이, 끔찍하고 비참한 작품이, 이
응노의 그림처럼 감격의 웃음으로 승화하게 될 것이다.

전시장을 나오는 나의 눈에 비친 하늘은 더 이상 핏빛 기억으로
물든 6월의 하늘이 아니었다. 이젠, 푸르게, 푸르게, 더 푸르게 피
어 온 천지를 적시고 있다.



모 자 이 크

김 수 경

기정고등학교 3학년

이틀째 계속되는 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그래서 친구들은 무덤덤한 날과는 달리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사방이 닫힌 것을 무척 싫어하는 나와 몇몇 친구들의 요청으로 단 한 개의 창문을 열어 두기로 했다.

내가 단 한 개의 창문으로 볼 수 있는 밖의 모습은 귀여운 송아지의 엉덩이, 이제 막 자라는 벼와 작은 산의 일부가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청소 시간에 창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었다. 그리고 밖을 보았다. 어미 소와 함께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귀여운 송아지와 넓은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가 보였고, 우리 마을을 둘러싼 들판 산이 보였다.

북한과 남한이 하나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창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야 하는 조심스런 과정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듯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창문을 조금씩 열어가야 할까?

우선은 우리 민족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비록 반세기동안 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민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지난날 함께 겪어온 우리의 오래된 역사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뿌리를 같이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무도 우리가 지난날 함께 해온 역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북한과 남한의 문화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이다. 하지만 앞으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서로 많은 이질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서로 다르다고 배척하기 보다는 개방적인 자세로 그것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포용적인 자세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 오랜 시간의 장벽을 쉽게 허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 서로의 방송이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간혹 텔레비전에서 북한의 방송을 보는데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때로는 공정해야 할 방송에서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에 남한의 방송은 북한의 방송보다 좀 더 진솔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방송만큼 정확하게 그 사회를 표현해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방송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방송의 개방이 필요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되어 있다가 하나가 된 독일에서는 이미

통일 전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방송을 보면서 강한 민족 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방송 개방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시사해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한가지. 바로 북한을 기다리는 것이다.

얼마전 서해안에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아까운 생명을 많이 잃었다.

우리 정부의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감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평화적인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포기할 일이었으면 시작도 해서는 안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휴전 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튼튼한 안보속에서 평화 정책의 노선을 유지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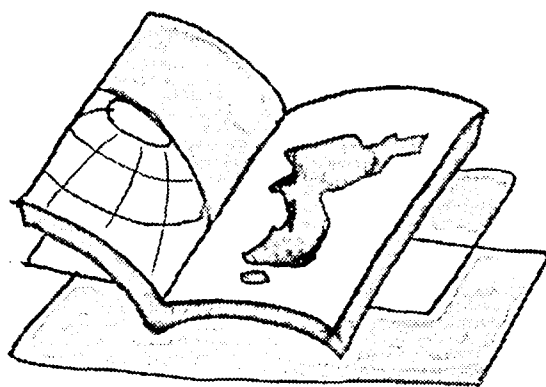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가 원하던대로 밑그림이 완성되면 우리 나름대로의 통일의 색종이를 하나씩 찢어 붙여야 한다.

아직은 미성숙한 우리의 민주 정치를 더더욱 발전시키고 북한과 남한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등등의 우리의 통일적 역량을 가득 담은 색종이를...

비록 찢어진 종이 한 장 한 장의 모양은 일그러져 있지만 모자이크 작품을 완성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의 노력 하나 하나는 비록 일그러진 모퉁이지만 완성된 모자이크 작품은 우리의 노력을 결코 헛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자이크 작품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 동안 단절되었던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다시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머지않아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며 우리가 완성한 모자이크 작품을 고운 액자에 걸어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되는 그 날에는

이 예 민

신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2년 전, 나는 가족들과 영국에서 1년 동안 지낼 기회가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정된 세상 속에서 제한되고 걸려진 것들만 전해오던 나에게 좀 더 깊은 안목과 세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곳에서 깨달은 여러 가지 사실중 하나는 국가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 얼마만큼의 커다란 존재인지 하는 점이었다. 몇 되지 않는 동양인이다 보니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고, 또 그 대답 여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 나의 조국. 내가 속한 운명공동체. 나무들 속에서는 숲을 보지 못하듯이, 나는 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도 모른다.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했고, 그런 피상적인 이미지마저 대개는 전쟁의 상처를 겪은 나라, 혹은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 정도였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나는 한국에 대한 사소한 기사 한 줄,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었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이란 나라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분단국가'라는 사실은, 나에게 실제적인 아픔으로 다가왔다.

나는 우리나라가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단일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더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민족이, 한 핏줄이, 서로에게 증오섞인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다. 그 원인이 식민지배였든, 강대국의 이념대립이었든 말이다. 그러나 그 상태가 지속되어 서로 미움으로 상대방의 앞길을 막으며, 50년을 거쳐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은 차라리 더한 아픔일 수밖에 없다. 그 50년 동안, 우리는 너무도 다른 길을 걸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 많은 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오랜 미움의 뿌리는 이제는 어찌면 깊은 골이 되어 남아있는 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굶주림으로 수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굶기야는 식인(食人)까지 벌어졌을 때, 우리의 과소비와 향락, 그리고 방관은 절정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IMF같은 것으로 대신했다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한달 전, 영종도에서 개최된 간부 수련회에서는 한 탈북자의 강연과 함께 질문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렸을 때 한번 '통일촌'이라는 휴전선 근처의 마을에 가서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몇 년 전이어선지 북한에 대한 비방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북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북한에서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아 대학교육 까지 마치신 그 분은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

이 주임무였다 한다. 그러다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탈북자들을 몰래 탈출시켜 주시다가 체포되었고, 사형의 위기에서도 망치신 것이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어쨌든 그분은 죄 값을 하신다며 통일의 그날을 위해 강연을 다니고 계신다 했다.

길에 미쳐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눈에 띄고 농촌의 처녀들이 비합법적인 도시행을 꿈꾸다 몸을 버리다 살해되는 일이 있고... 그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곳 주민들은, 평생을 그러한 이념에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굶더라도 전쟁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전쟁이라는 가장 처참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말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동안 4자회담을 열고, 3억 627만불의 식량지원을 하고, 경제협력 강화와 경수로 건설, 금강산 관광 등을 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막상 통일의 주체가 될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통일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의 모순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의문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은 아직 너무나 힘들고 길지 못하다. 어쩌면 통일이 된 후에는 독일 통일의 예처럼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을 감히 '조국'이라 부르는 한 사람으로써, 통

일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통일이 온다면, 프랑스의 한 박물관에서 마주친 북한 뺏지를 단 사람이 외계인인 듯 프랑스 사람 보다는 낯설게 느껴졌던 부끄러운 기억도, 유럽의 국경을 통과할 때 마다 South Korea 입을 강조해야 했던 아픈 기억도 더 이상 없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되는 그 날에는, 우리가 증오쉬인 총을 겨누는 일도 우리의 귀한 젊음들이 청춘을 낭비해야 하는 일도, 그리고 우리의 찢어진 몸에 대한 아픈 눈물도, 그날에는 없으리라 믿는다.

그 날을 기다리며...

박 충 이

충덕여자고등학교 1학년

5월 25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의 일이다. 학교에서 갑자기 3교시에 통일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 일학년 전체가 강당으로 모였다. 무슨 교육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우리들에게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남지분을 소개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분은 지난 95년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는 ‘탁영철’ 씨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마냥 좋아 소리지르며 기뻐했다. 그러나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장내도 그 분의 말 한마디에 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인사와 재치있는 유머로 서두를 시작한 우리의 귀순자님께서서는 아직도 낯설은 말투와 억양으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셨다. TV나 신문으로만 전해 들던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하신 분에 의해 들어보니 정말 가슴 아프고도 안타깝기만 하였다. 실제로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서 인육을 먹은 일도 몇번 있었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끝내는 죽음까지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그 분의 말씀을 들

으면서 난 집에 계신 우리 할머니를 떠 올렸다.

남한으로 피난 오시기 전까지는 평양에서 할아버지와 우리 이모 그리고 세분의 외삼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셨다는 할머니. 그런 우리 할머니에게도 막내였던 우리 이모와 작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소박한 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6·25의 발발로 인해 그런 우리 할머니의 작은 소원은 깨지고 말았다. 미처 작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똑같은 경험을 하신 다른 할머니들과는 다르다. 아들 생각으로 목이 메어 식사를 못 하신다거나 날마다 하루 하루를 눈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 가족들에게 - 이북에 계신 막내 외삼촌을 위해 기도하자고 묵묵히 말씀하신다. 그러나 난 그 침묵 속에 감춰진 우리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한다. 이것은 그런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내 친구들도, 그분의 자식인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나는 더더욱 모를지도 모른다...

지금은 중풍으로 거동이나 언어가 불편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학교에서 돌아와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내 자신은 할머니의 그런 눈빛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

그런 할머니가 며칠 전 입을 여셨다.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할머니의 입에 내 귀를 갖다대고 들어야만 했다.

“꿈에서 니 외삼촌이... 옛날의 그 어린 모습으로 ‘엄마!’ 하고 부르더니... ‘사랑해요!’ 라고 손을 흔들면서 밝게 얘기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강인하셨던 우리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구나...

그 때 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꿈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 얼마나 듣고 싶으셨던 말이었을까... 할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왜 우리 할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아파해야만 하는지, 할 수만 있다면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 막 따지고 싶고, 때려주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모두들 통일을 바라고 또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그 분들이 겪은 아픔과 고통의 세월만큼 참고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를 다져나가야 한다. 그 밀알이 썩어질 때에 비로서 새 열매를 맺는 것 처럼 우리도 밀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곳!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요, 동포다. 아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말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음 좋겠다.



통일을 꿈꾸며

한 경 혼

연수고등학교 2학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 역시 윗말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실 전후세대이며 80년대에 태어난 나로서, 전쟁의 비극이나 분단의 아픔에 대해 절실히 느끼기란 어려웠다. 또 내 주변에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실 나는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더 의아하게 느낀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역시 통일에 대해 막연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간혹 친구들에게 “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면 친구들은, “오히려 통일이 되면 우리가 훨씬 못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투의 부정적인, 또 냉정한 말을 던지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통일에 대해 그저 막연한 감정을 가졌던 나에게 최근에 급증한 대중매체를 통한 북한 현실의 각종 보도는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아무리 무관심한 통일관을 가졌던 나였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서로 남북을 오가며 웃음 나누던 우리 동포가, 한 쪽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참상을 보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풀국을 끓여 먹으며 연명하는 어느 한 가족의

모습은 비참하기 이를데 없었다. 앓을 힘조차도 없는 듯한 아이들이 누운 채 갈비뼈 앙상한 배만 활짝이는 모습과 자기의 부모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시장 흙 바닥에서 먹을 것들을 찾는 때투성이 소년들의 비극적 참상은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동포들이 맞는지 의문감이 생길 정도였다.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환경 미화원들의 손을 바쁘게 하고, 유행에 따라 의복 구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풀국을 먹고 누더기 옷을 입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 나로서는 어이없고 씁쓸할 뿐이었다.

현재 북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나로선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한 동족의 비극을 소홀히했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했다. 더욱이 북한에서의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이 인간 이하의 비극적 현실을 - 그들에게는 그들의 앞에 직면한,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현실을 - 나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통해 마치 전혀 딴 사람의 일인양 그저 방에 편안히 앉아 보고 있다는 모습이, 이 현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따름이었다.

그나마 이제라도 나의 통일관에 긍정적 변화가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정말 하루가 시급한 우리 민족의 숙원이라고 절실히 느끼게 된 데 대하여 나 자신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겼지만, 아직도 내가 포함된 청소년 문화를 둘러보자면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적고,

통일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현 세대가 한 없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리고 현 통일교육이 단순히 교과서 위주의 이론식 강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채로운 시청각적 자재 활용을 통한, 보다 청소년들에게 강한 인식을 새겨줄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아직도 부족한 데 대해서도 참 아쉽게 생각되었다. 실상은 나도 그러한 시청각적 요소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극미하나마 통일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갖게 된 나로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입장을 통해 더욱 그들의 아픔을 통감하여 통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여기기로 생각했다.

고2의 수학여행 때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들렀다. 통일전망대 너머로 펼쳐진 북한의 산야는 우리와 다를바 없이 푸르름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뛰어서라도 갈 수 있는, 아니 뛰어서라도 가고 싶은 그 곳을, 지금은 바람만이 달려갈 수 있고, 바다만이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애석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여기 통일전망대에서 통일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통일전망대 옆으로 펼쳐진 하늘빛 동해바다가 나의 아쉬움을 감싸려는 듯 넓은 마음을 한 듯이 원대히 펼쳐져 있었다. 그 원대하고도 순수한 동해바다의 수평선을 보며 나는 잠시 꿈꾸었다. 평화통일로 세워진 한민족의 나라에서 한반도 전체에 우리 동포 모두의 웃음 소리가 들릴 그 날을…….

하나 되어

정 형 숙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서로가 서로를 애타게 찾다 지쳐 쓰러질 때면
그 옛날 피난 가던 그 모습을
뺨 아래로 흐르는 눈물 따라 그려 보리라

피로 얼룩진 역사의 땅 위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 새에게
슬픔과 고통의 한 세월 멀리 보내고
그리운 친구 얼굴 강가 위에 비추게 하리라.

지금까지 소리없이 내려온 울부짖음 잊어버리고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어
남과 북이 하나로
염원의 그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의 땅을 놓고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남한. 공산주의의 북한.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곳
에서 그들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잔인한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민족이 갈라져 있다. 서로를 애절하게 찾고 부르는데도 아무런 대답없이 바라보고만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벽을 사이에 두고...

내가 세계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배우면서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우리와 한 민족인 북한에 관한 것이다. 정작 자신의 민족과 조국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계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우리의 의식속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생겨난 것은 왜일까. 어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반쪽인 북한을 찾고 통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피의 이빨림에 의해 우리의 민족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의문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왜 공산주의를 외쳐가며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찾지 않는 것일까?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오직 규칙과 법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느낌을 받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싫다. 나의 민족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싫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에 앞서 나의 의식과 생각부터 떨쳐버리고 나서 북한을 바라보고 싶다.

사는 모습과 언어와 생활이 다를지라도 그들은 나의 민족이고 더 나아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얼마전 북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다. 물론 그 모습은 다른이에게 보이기 위한 걸치레의 한 모습에 불과했지만 결코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새롭고 신선하게만

느껴졌다. 또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문화를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에게조차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내보이지 않는 그들이 바보 같기만 하다.

행동으로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많지만 그렇기에 더욱 민족에 대해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사회의 모습들을 먼저 고쳐야 한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가는 이들에게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또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란 힘이 든다. 위에서만 통일에 대해 생각할 뿐 많은 청소년들은 그냥 이대로그가 좋다는 인식을 더하게 마련이다. 북한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또 나라에서는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실천에 옮기는 예는 거의 드물다. 또 귀순자들의 생활모습을 보면 더욱 알 수 있다. 맨 처음 북한에서 귀순해 왔다고 하면 화려한 환영식을 해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행사가 끝나면 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돈 몇푼에 그들을 내버려둔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나라에서는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물질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의식 속에서 통일을 한다면 결과는 안 보고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의식이나 행동들을 반성하고 고친 다음에 하나 둘 천천히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의미없는 통일은 싫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통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 스스로가 북한에 대해 받아들일 자세와 모습이 갖추어졌을 때 염원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통일을 하려면

윤 수 진

부천심원고등학교 2학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이다. 그것은 그만큼 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보통 사람들은 통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을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된 통일보다는 평화 통일을 더 선호하고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소 소원은 통일 이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 가사를 보면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할,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먼저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통일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도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서로에 관한 생활, 문화, 언어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의사소통 조차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남남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통일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에 어색함만 더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서로의 생활이나 풍습에 대해 어느정도 아는 것이 있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해 주고, 아껴 주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형성된 조그만 배려가 서로간의 친분과 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은 올바른 생활 태도의 형성이다. 그렇다고 말 그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원을 아껴 쓰는 습관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 남한의 과소비나 낭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나로서도 그 간첩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대꾸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특히 개선해야 될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술 문화인 듯 싶다. 비싼 외제 술을 마시고는 잔뜩 취해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가 강대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이 시점에서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북한과 남한의 언어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6. 25전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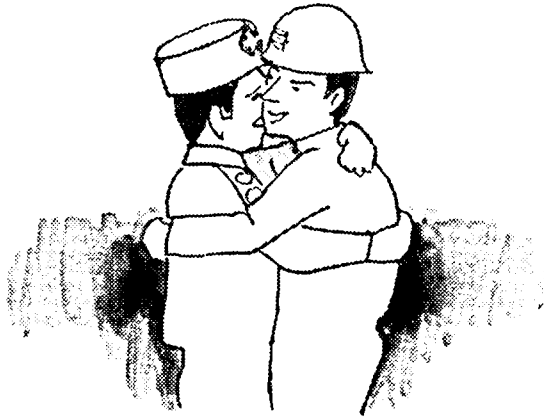
계기로 분단된 이후 수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그 세월동안에 크게 변화된 것중에 하나가 언어이다. 언어는 서로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이다. 언어가 통일되지 않은 이상 서로 간에 수많은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도 뜻이 다른 언어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를 통일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를 것이다. 국어사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적들을 재편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들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는 한 문화를 가진 한 민족임을 나타내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해야 될 문제가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이것은 아마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점에서 밝은 사회가 출발하듯이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신뢰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맘 놓고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는 평화로운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한 박사가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슈퍼 옥수수를 심어 준 것과 정주영 회장이 몇 백마리의 소를 북한에 보내 준 것. 이것들은 모두 북한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설사 이런 것을 북한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젠가는 북한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계 여러나라들은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니, 오히려 통일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금방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부족한 것은 북한이, 북한에서 부족한 것은 남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타국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땀 흘려 노력해서 통일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다.



제 3인의 비애(어떤 이의 탈출기)

정 자 경

성남송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1999년 9월 23일.

서울의 어느 변두리 한평 남짓한 골방. 자정이 막 지날 무렵 이제 무르익기 시작한 보름달 빛이 좁은 창틈을 통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창가에 서있는 한 사내의 핏기없는 얼굴이 싸늘한 달빛에 비쳐 돌덩이처럼 굳어 있다. 이미 그와 그 방은 코를 찌르는 신나 냄새로 뒤엉켜 있었다. 그의 입 언저리에 잔 경련이 인다.

“오마니, 아버지. 이 못난 아들 용서하시랴요…….”

휘몰아 치는 파도 같던 지난 일년간의 기억이 한스런 눈물로 맺혀 라이터를 든 그의 손등을 적신다.

‘결국 이걸 바라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의 눈에서 다시금 고통스런 지난 날의 아픔이 흐른다.

1998년 8월

“오마니, 아버지. 저는 남쪽으로 가갔시오. 다같이 갑시다.”

“이것이 무슨 소리야. 그런 애길랑은 꺼내지도 말라우. 어데서 큰일 날 말을 들어 게지고.”

“여기서 굶어 죽느니……, 됐시오. 아무튼 일주일 후에 가기로

했으니 생각해 보시라요.”

그리고 떠나기 전 날,

나의 끊임없는 설득에 부모님과 형내외는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기래, 네가 간다는 데 우리만 여기 남아 무얼 하겠니. 어차피 여기 남아도 죽을 꺼인데 한번 해보는 기야.”

“잘 생각하셨시오. 내일 강변 넘어 아는 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생사를 넘나드는 대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탈북당일 날 저녁 감시원의 눈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려던 우리의 계획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희생을 뒤로 하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형수님, 형님. 정말 면목이 없시오. 다 나 때문에…….”

“어찌겠네. 네 잘못만은 아니다.”

형님 곁에서 형수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말없이 흐느끼고 계셨다. 그러나 외줄타기 꼭예를 하듯 우리의 남쪽을 향한 여행은 계속되었다.

밀항 준비를 위해 배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막 떠나려던 때에 미쳐 타지 못한 형 내외가 북한 감시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형님! 뭐야요?”

“날래 도망 가라우! 어서!”

순간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형과 형수는 …… 지체

할 수가 없었다. 지금 못가면 다 끝나는 것이다. 결국 가족 다섯을 죽인 살인자는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북에서 온 김정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요즘 탈북했다고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심지어 조선족들도 위장을 해오니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뭐요? 그럼 가족들 다 버리고 온 저는 어찌라고요?”

“아무튼 선택은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조만간 연락드리죠. 연락처는?”

“지금 제게 뭐가 있겠습니까?”

직원의 말은 너무나 무심했다.

“아. 그렇죠? 일단 이름하고 살던 곳 적어 놓으시고 여기로 연락하세요. 얼마후예요.”

몇 달 간의 목숨을 건 탈출이 한순간에 허무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이 대한민국을 찾은 나에겐 미칠 것만 같은 충격이었다.

“네……, 그러죠. 그때는 꼭.”

내가 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남한의 추운 겨울은 다가왔다. 그리고 곧 해결해 준다면 그쪽의 말은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얼마 전 탈북을 도와주었던 이와 연락이 다았다.

“우리 형님은, 형수랑 조카는?”

“다시 붙잡혀 가면 죽는기야. 너라도 살 생각 하라우.”

순간 눈앞에 캄캄해졌다.

남한인도 북한인도 아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껏 어려운 날들을 한울의 희망에 의지했던 나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어디에서든 북에서 왔다면 간첩으로 알기에, 조선족이라고 신분을 속여가며 살아온 날들이 한스럽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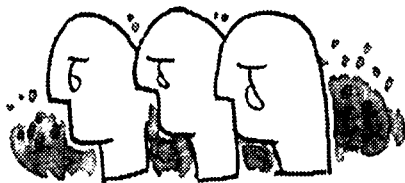
“치지직”

모두가 풍성하기만한 남한의 추석. 그는 그렇게 켜진 라이터 불과 함께 한줌재로 사라졌다.

이제 그 작은 골방에도 분단이라는 굴레 아래 남한인으로도 북한인으로도 살 수 없던 그의 한 만이 뒹굴고 있었다. 이념과 체제라는 의미없는 그물이 우리 국토를 엮어매고 있는 한, 제2, 제3의 김정남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구속과 남한의 무관심 속에 스러져갈 이들의 한을 생각해 본다.

다음 날 아침

“오늘 새벽 서울 ○○구 ○○동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분신자살을 한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북한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 (나는 사과를 주는 왕자가 되고 싶다.)

조 정 희

파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안녕 친구들아?

난 남한에 사는 정희라고 해. 우선 나의 소개부터 간단히 해야겠지? 내가 사는 곳은 북한과 아주 가까운 파주라는 곳이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여학생이란다.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니 어떤 내용부터 써야할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되면 많이 놀라겠지? 사실 나도 조금 당황스럽단다. 그래도 나의 친구들이니까 마음놓고 편하게 쓸게. 지금 이곳은 가을인데 겨울처럼 날씨가 많이 춥단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 북한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항상 건강 조심해. 병에 걸려서 아픈 것 보다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깐. 난 TV나 라디오를 통해 너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이곳은 위에서 말했듯이 북한과 아주 가까워서 가끔 라디오에서 북한방송이 나와. 지금 이 편지는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쓰고 있는데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왜냐구? 이 편지가 너희들의 두 손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야. 꼭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더. 너희들과 나는 한 민

죽인데 왜 서로 헤어져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너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싶어. 이제 11월이면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장소는 제주도야. 맨 처음 장소가 결정났을 때 통일이 된다면 제주도 보다 백두산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 특히 백두산은 사진에서 많이 봤는데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기억에 남아 한번 가보고 싶었어. 나의 이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과 아주 많이 친해지고 싶어.

요 근래의 일이었지? 무장공비가 우리 나라에 침투해 들어왔던 게……. 그 때 우리 나라에서 너희들을 위해 식량을 보내줄 때의 일이었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은혜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 많이 했었어. 하지만 이해하기로 했단다. 너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너희들의 생활을 이야기로 들어보니 식량난 때문에 사정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던데 북한의 아이들을 TV의 화면으로 보니 뼈 밖에 남아있지 않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헤어져 한쪽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었어. 통일이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여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해.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너희들 이 이야기 아니? 모른다면 잘 들어 봐.

옛날에 어떤 병에 걸린 공주가 있었다. 그런데 세명의 왕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 왕자는 먼 곳에서 망원경으로 공주가 병에 걸렸다는 글을 보기는 하지만 두 번째 왕자는 나는 양탄자를 타고가서 확인만 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자는 그 병을 낫게 하는 사과를 구해서 성으로 들어가 그 공주를 구했다는 이야기야. 난 여기서 세 번째 왕자가 되고 싶단다. 북한의 현실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것도 좋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난 너희들에게 세 번째 왕자처럼 통일의 사과를 나누어 주고 싶단다. 그래서 공주를 구한 것처럼 통일을 이루고 싶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는 건 통일을 하려는 양국간의 노력이 활발하다는 거야. 특히 금강산 관광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 금강산에 다녀오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풍경이 아주 멋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

너희들도 우리 나라에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나라도 아주 살기좋은 곳이다. 경치좋은 설악산과 제주도도 있고, 관광 시설과 문화시설도 아주 많단다. 통일이 되면 한번 놀러와. 내가 아주 완벽하게 안내자 역할을 해줄테니까. 지금쯤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항상 열심히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라고 우리 서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자. 서로 조금만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도 후손에게서라도 꼭 통일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거야. 이제부터 노력하자.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면 되는거야. 나도 통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 처음에 편지를 쓸 때

통일의 당위성과 우리들의 자세

문 성 현

전남대학교부속고등학교 2학년

독일이 통일된지도 이제 9년이 지났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체제에 따라 분단되었던 나라중 하나인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중인 나라가 되었다.

그동안 남북한 정부는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성과로 지금 경수로가 건설중이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금강산으로 가는 배가 운항되는 등 많은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한이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양쪽의 입장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아 아직 우리에게 통일로 가는 길은 멀어만 보인다.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서도 밝혔듯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탓도 있지만 국민들의 호응이 예전만 못하고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가 분단 상태가 지속될수록 이익을 누리게 되는 특정한 집단이 끊임없이 내부에서 방해를 해 온 데에 있다.

통일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통일과정을 지켜보고 통일 비용을 셈해 보고난 후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을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지적한 바 있고, 일부는 통일후에 겪게 될 혼란을 예측해 보

고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음을 그동안 국내유수의 언론기관이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통일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와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크다. 먼저 독일을 예로 들어보자.

독일은 통일된 후 9년동안 100조원의 돈을(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값) 동독에 투입해왔다.

그 동안에 서독 국민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서 이 돈을 마련해야 했고 통일초기의 혼란은 독일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회의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동독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통일 후 한동안 주춤했던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한 동독인들이 늘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동독에 투자를 함에 따라 동독은 지금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통일 후 엄청나게 불어난 인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독일이 근 10년 내에 독일의 국력이 2차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 후 서독으로 동독인들이 몰려올 것을 우려했지만 막상 통일 후 몰려든 동독인들은 스스로가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한 서독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되돌아 갔다. 결국 한낱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베트남의 통일에서도 통일의 긍정적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이 공산베트남에 의해 무력으로 통일된 후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떠나 '보트 피플'이 되어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졌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성장국이 되어 예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되돌아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중립 형식으로 통일된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첫 손 꼽히는 관광국이 되어 1년동안 그 나라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고 있다. 아직 통일된지 얼마 안된 예멘의 전망도 비교적 밝은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통일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20~30년내에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먼저 언어문제가 있고, 사상과 체제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야 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보내주어야 하며 이돈은 대부분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다.

비록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향후 20~30년 뒤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통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첫번째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을 들자면 통일 후 그 동안 남·북한의 대치로 인해 낭비되었던 많은 세금과 인력의 상당 부분을 경제 발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두번째는 인도적인 측면으로 그 동안 분단으로 인해 수십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그 보상을 해주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겠는가?

세번째는 바로 군사적인 측면으로 통일 후 북한이 보유한 우수한 무기와 군사력을 손에 넣는다면 더 이상 강대국들에게 설움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협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통일이 되어야 할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만약 우리가 통일에 무관심하여 무언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통일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것이며, 설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정보나 시민 단체들의 노력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말 것이며, 통일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내일은 통일

박 공 순

화순실업고등학교 2학년

우리는 장구한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단일 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니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 왔다. 그러나 광복 이후의 남북 분단으로 이러한 민족의 동질성이 상처받고 있다. 이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남북 단절에서 비롯된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룩해야 할 시점이다.

통일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통일은 왜 이루어야 하는지,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하여 상실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념과 사상, 제도와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등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사회·문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 분단된 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이질화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두고는 남북한이 제도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

정한 의미에서 통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안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일 것이다.

그럼 이러한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첫째, 통일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주성과 통일성을 지켜온 우리 민족인데, 분단되어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둘째,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라는 것은 민족간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은 분단에 따른 민족 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이산가족들은 혈육간의 생이별을 참아가며 살고 있다. 이러한 이산가족을 위해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결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남한은 IMF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반도의 온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활용해야 할 자원과 민족적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국제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

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정당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한 관계의 단절에서 생기는 이질화와 적대감 및 불신, 우리 민족을 통일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에 갈등과 권익,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상충에 따라 한국 사회의 국론 분열, 북한 체제의 폐쇄적,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 전략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도 통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는 하나의 단일국가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이 이루어지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면서도 일부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만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니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대외적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국들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는 공통점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이 재발되면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하면서, 적어도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국들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활용하여 민족의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국의 분단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의 민족적 동포애를 발휘하는 차원에서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수호해 왔으나 미진한 점에 대해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사회 성원들의 응집력이 커져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폐쇄된 북한 체제를 개방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협력하여 침체된 북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각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하여 북한이 평화적인 국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위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통일은 이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내일의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내일은 통일이라는 기쁨과 함께…….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송 유 미

송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가끔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으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해졌다. 나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정확한 수치로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렵다고 잘 모른다고 해서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애들이랑 같이 말해보기엔 좀 껄끄럽다. 연예인 얘기는 스스럼없이 할 수 있어도 통일 얘기는 어쩐지 어렵다.

그렇다고 가만 있으라고? 그럴순 없었다. 모두들 어떤 생각은 다 갖고 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때가 마침 1학년 편집부원 뽑을 때였다. 1차는 자기 소개서 내기였고 2차가 면접이었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1학

년은 또 우리 또래와 같으면서도 다를것 아닌가 1학년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 나도 희망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곧 실망하게 되었다. 다들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아서인지 어려워했다. 사실 나도 아는 것은 없다. 다만 당위로서의 통일이 아닌 어떤 정당성에 의한 통일, 그런 통일을 바라는 애들, 그애들의 활기찬, 희망에 찬 답변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통일에 반대해도 좋다. 확실한 자기 주장을 펴달라 그것이 내 바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들 슬렁슬렁 넘어가려고만 했고 또 의외로 통일 하는것에 반대하는 애들도 많았다. 이유는 지금 통일을 한다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 세대에서 엄청난 출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할 말이 없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일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답답해 할 때쯤 내 머리를 번쩍! 뜨이게 하는 대답을 들었다. 그 애는 통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애는 이렇게 말했다. 우선 몇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서는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며 서서히 개방하고 2단계에서 연방 국가로 만들고 3단계에서 단독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 애는 통일을 하면 혼란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흡수 통일을 할 것은 아니므로 시간이 감에 따라 문화, 경제, 정치면으로 많은 차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답변을 듣고 기뻐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고마웠고 통일 방법이야 어쨌든 여러 가지일테니 그 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통일을 바란다는 것에 기뻐다. 사실 다들 통일은 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내 세대에서는 하지 않길 바란다. 왜냐고? 얻을 것도 많지만 잃을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다. 언어에서 부터 정치까지 같은 것 보다는 다른 것이 더 실감난다. 한마디로 통일은 내 전 세대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던지 아님 내 후대에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대부분의 애들의 생각이다.

이런 애들의 생각을 이기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우린 전후 1세대들과는 다르다.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도 없고 이대로도 잘 살 수 있다.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우리들에게 통일, 분단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오로지 대학만 가면 되는 거고, 공부 이외의 것은 대학가서 생각하라고 어른들은 가르치지 않는가?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 살면서 아무 생각없이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통일은 우리의 미래, 개개인의 삶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계속 분단국가로 남는다면 남북한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3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분단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쓰이는 돈은 얼마나 많으며 점점 깊어지는 감정의 골,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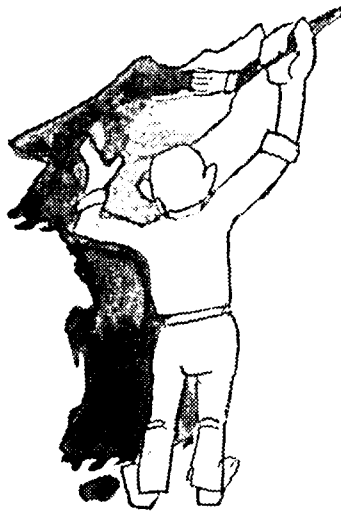
지금 현재, 남북한 모두 각자의 문제로도 해결하기가 벅차다. IMF, 경제, 지역 감정, 북한의 식량난, 국제 사회에서의 미약한 파

위 등 또 통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겪을 고통 보다는 얻을 것이 더 많다. 생각해 보라. 고통은 잠시지만 한 나라된 우리 민족은 영원할테니까 그렇지 않은가?

우리 청소년은 우리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충분한 수양을 쌓아 앞으로 물려 받을 미래에 자신있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자면 많은 독서와 사고력이 필요하다.

아, 나는 믿는다. 우리 나라는 통일할 수 있을 거다. 꼭 그렇게 될꺼다.



아픔으로 남겨진 것

김민경

마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드리워진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 잠시 여행을 가서 하루라도 못보면 보고 싶고, 그리워 지는 것은 몸속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에 어찌면 본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런 본능을 유린당한 채, 통일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이산가족들이다. 이산가족이란 말을 해야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몇 안될 터인데 우리는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픔도 50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한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북으로 향하는 금강호에 몸을 실어 멀리서나마 부모와 형제를 보고 또 잠시 고향의 체취를 느끼는 것이 고작이다.

과거 아무런 교류도 없을 때에 비하면 너무도 큰 행운이지만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마침내는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문을 열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북에, 부모 또는 형제를 남겨두고 떠났던 이가 하루라도 편만한 잠을 잔적이 있었을까. 바로 이틀전, TV에서 '이제는 만나야 한다'라는 특집 방송을 했었다. 이제는 늙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야기였다. 아니, 볼 수는

없다해도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편히 눈을 감겠다는 그분들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보논이 마저 목이 메이었다.

북으로 가는 금강호가 처음 출항하는 날, 그분들은 얼마나 기뻐셨을까. 이제는 그야말로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최근에 우리 관광객 한명이 돌아오지 못함에 따라 그 한줄기의 희망도 사라져가고 있음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통일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건만 북한 주민들은 왜일까?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일부 독재자들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빼앗겼을 뿐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고통들, 한번이면 족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을 남겼다. 우린 어찌면 내 부모, 내 형제가 아니기에 무관심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북한은 몇 척의 함선을 이끌고 우리 국경을 넘어왔다.

그리곤 선제공격을 하여 불과 5분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포탄이 오가고 총성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너무 놀랐고 이제는 이산가족의 상봉도, 금강산 백두산 관광도 모두 끝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금방이라도 전쟁을 할 듯, 준비태세를 갖추었고 온 국민들은 뉴스 보도에 귀를 기울이며 숨죽이고 있었다. 다행히 재침입은 없었지만 이 때문에 이번에는 이뤄질 것 같았던 남북협상에서 우린 또다시 북한에게 농락당하고 말았다. 이쯤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 이상의 정부의 햇볕 정책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오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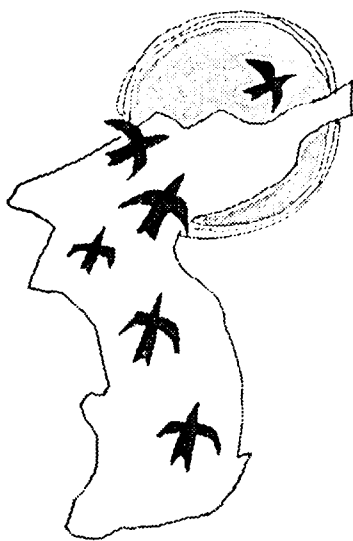
말았다. 이것을 지켜본 우리 이산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 된 밥에 재 빠뜨린다고. 겨우 통일의 문앞에 다가선 듯 했는데 남침이라니.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정부의 예산 중 20%정도가 국방비에 투자되고 있다. 5%이하가 교육비에 투자되고 있음에 비한다면 실로 엄청난 돈을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손해 보고 있다. 통일이 되어 이런 예산들을 교육비에 투자 한다고 생각해 보면 전국의 학교를 최첨단 시설로 갖추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손해 본다고 해도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산가족의 재회라는 과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산가족들의 재회는 우리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이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형제, 바로 우리 민족의 일인 것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형제요, 한 핏줄임을 말해주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한층 더 미안함을 느낀다. 북한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 왔다. 폐쇄적인 정치를 펴며 따라 국제 관계 속에서도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스스로 느낄 것이다. 따라서 남쪽으로 무장 잠수함을 보낼 것이 아니라 화합의 손길을 내밀며 남한을 무력 점령하고자 전쟁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협상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아픔은 서로에게 남기지 말자고 이제는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통일은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라 생각하고 꼭 이루겠다는 의지, 그거 하나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산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는 작은 일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남한, 북한이 아닌 오직 '한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만년 면면한 한민족의 정통성을 태극 물결로 이어나갈 것이다.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분들께

김 새 밝

통영고등학교 2학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가난 때문에 한 푼, 두 푼 모아 힘겨운 삶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 평생 동안 가슴 속 깊이 아픔을 파묻은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들은 이산가족들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씻기고 덮여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만은 사라지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더 날카로운 상처를 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낯은 병상을 차고 일어나 예전의 행복했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안락함만을 위한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길을 애써 피해 저 먼 곳, 빛나간 길로 발길을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밝은 길은 바로 하나!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2년전 봉사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그 할머니께서는 고향이 개성이라고 늘 말씀하셨습

니다. 그러던 할머니께서 한 달전, 남동생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
고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찬 흙 속에 잠드셨습니다. 그리운 이
를 만나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는 해결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사실입니다. 1950년, 6·25전쟁
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사상에 급급해 남
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겨누고 다투는 발전없는 싸움을 벌였습
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광복 후, 기쁨도 잠시, 주변의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이익적
배분에 의해 둘로 갈라져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크게 싸우고 지
금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가 아무리 미워도 한 핏줄, 한
겨레입니다.

이제 반 세기가 지나고 모든 것이 뿌연 안개처럼 흐릿해져만 갑
니다. 전쟁의 참혹함도, 파괴된 국토도 모두 말입니다. 모든 것이
지워져도 하나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산 가족의 고통입니다.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 핏줄을 찾고,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언제나 눈물고인 눈
으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슬픔을 달래는 그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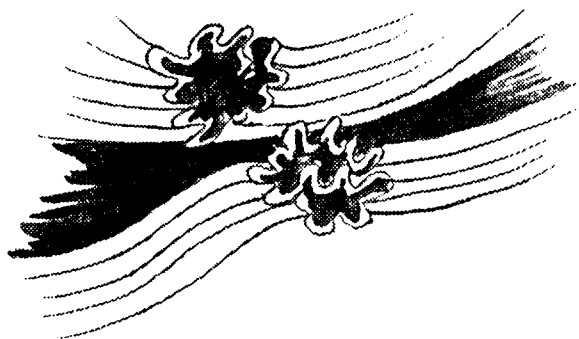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국가입니다. 민족은
일반적으로 혈연, 지연, 언어, 역사, 문화, 경제생활로 구성되며 지
리적 근접성에 바탕을 두고 동일한 혈통, 역사 그리고 언어를 사

용하는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더 근본적인 면을 살펴보면 민족이란 민족의식, 일체감 등 정신 의식적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운명공동체에 속한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런 내적인 요소를 볼 때 우리 나라는 다른 어느 민족, 국가 보다도 더 친밀감과 유대감이 있을텐데 왜 이 땅의 허리를 자른 채, 서로를 견제하고 또 비하하고 있을까요. 지난날 몽고의 침입,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 그리고 악독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나라를 위해 온 겨레가 뭉쳤는데 이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항상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남북간에 적십자 회담을 추진하고 제3국 및 국제간의 협력활동을 통한 교류를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산가족들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판문점에 서서 휴전선 넘어 저 북쪽을 흥건히 젖은 손수건을 쥔 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운 이들의 생사도 모른 채 말입니다. 푸른 하늘을 떠도는 흰 구름처럼 이산가족들이 저 북쪽땅을 향해 힘차게 내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나간 모든 시련과 고통을 휴전선의 굵은 철사와 함께 뺏아 버리고 그리운 이와 일싸안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곧 이 땅의 허리에 싱싱한 꽃들이 피어나 모든 상처를 덮어주기를 바래 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꺾은 주름이 하나 둘 늘어만 가는 이산 가족도 살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마저 떠나버리면 통일은 영영 파문힌 아우성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원, 통일,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글을 여기서 접습니다.



이산가족

김 예 경

하동여자고등학교 1학년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했던 1950년 6·25이후, 4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20세기 마지막 6·25를 겪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통일을 너무 이상적인 것으로 미화시켜 생각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며 이제는 통일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의 통합을 뜻하는 이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겠다.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의 항복을 직접 받지 못하고 미·소 두 연합국이 한반도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항복을 직접 받게 됨으로써, 불행하게도 남북 분단의 소지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38선이 휴전선으로 자리잡아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나누어진 두 나라가 각각의 독립국가로 생활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산 가족의 강렬한 열망이다. 비록 북한은 무력통일을 바라고, 남한은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

지만 서로가 분단으로 인한 이질성을 현실로 수용하면서도 남북한 주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민족적 문화 정체성에 대한 공유의식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많다. 먼저 현실적으로 분단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재 분단상태는 비록 남북한을 끔찍한 전쟁 속으로 몰아넣지는 않는다해도 견디기 어려운 국가적이며, 개인적인 역량소모를 강요한다. 남북한 분단과 대결로 인한 군비전쟁, 외교대결, 북한 동포의 인권 유린과 빈곤 등이 그러한 국가적이며 개인적인 희생을 뜻한다. 북한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국방비와 젊은이들을 장기간 묶어둠으로써 역량소모는 더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량소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국가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며, 북한의 경제개발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통일의 필요이유가 바로 이산가족 문제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이별하는 이산가족의 반인륜적인 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족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과 함께 슬픔을 가슴에 묻어 두어야 했던 그 아픔을 이제는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그 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중국에서 열린 차관급회의가 바

로 그것인데 이 회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TV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의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돌아서려 하는 순간,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편지의 내용을 듣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평소에 나는 남한에서 북한의 가족들을 찾는 모습이 많이 있었기에 북한의 실향민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편지지의 모습 주인공은 바로 북한에서 남한의 가족들을 찾기 위한 애절한 몸부림의 글들이 실려 있었고, 편지의 내용을 읽는 동안에 내 마음이 뭉클해져갔다. 편지 속에는 삶의 노년에 다다른 사람이 오랜시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꼼꼼이 적어 놓았고, 어린시절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추억들에 대한 그리움의 글들로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산가족은 나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내 마음을 울렁이게 하고 있었다. 하물며 이렇게 이산가족과 상관없는 나에게도 안타까운 슬픔이 밀려드는데 실제 이산가족의 심경은 얼마나 아파올지 생각하니 이산가족문제는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실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찬반론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서해 북방 한계선 협의 및 서해 사태로 인해 남북한의 관계가 또다시 경계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 정부가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정책'을 실시하여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도 만들어냈으나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므로 서해교전 사태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비판이 일어났다. 그러나 '햇볕정

책'은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임을 이번 사태를 통해 입증하기도 했다.

미국 CNN방송사가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분쟁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반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을 그리는 마음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불안함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 이제는 해결의 길이 많이 열려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늘 하나되기를 소망하고 서로를 믿는 마음만 존재한다면 꼭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며, 이산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박 예 지

마산구암고등학교 2학년

53년 전 오늘 이 땅엔 뼈를 깎는 것 같은 큰 아픔이 있었다. 5,0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한 민족이 땅덩어리가 갈라짐과 동시에 한 순간에 반으로 나뉘어 진 것이다. 그 끔찍했던 일로 인해 지금의 남한에는 한 가족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남북으로 떨어져 북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우리 가족만해도 그렇다. 할아버지가 6·25때 전쟁터에 나가셨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셔서 지금은 소식도 알 수 없게 되버렸기 때문이다. 아빠가 태어나시던 해가 6·25가 발발했던 해라서 아버지는 한번도 할아버지를 뵈는 적이 없다고 한다. 저번에 보고싶은 사람을 찾아주는 TV의 한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께 지금 가장 보고픈 사람이 누구냐고 여쭙봤더니 아버지는 '아버지' 라고 짧게 대답하셨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솔직히 TV에서 이산가족에 관한 얘기를 해도 남일처럼 여겼었기 때문에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절실한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사실 그 동안 이산가족의 상봉이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만남처럼 조건을 달고 극소수만 만날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가 모두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도 남북한 이산가족에 대해 협상을 했지만 사소한 문제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게 되었다.

이산가족이 바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단지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 뿐인데...

지금 북한의 사람들의 탈북 숫자가 늘고 있다. 며칠 전 신문의 1면을 장식한 사진에는 강물 위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다. 사진 위에는 '가족을 만나게 해 주세요'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북한에서 도망쳐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런 애절한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북한의 고위 관직자들은 이산가족이 아니라서 배부른 소리만 하는 것 같다. 이산가족은 오늘도 가족이 보고싶어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너무 잔혹한 짓이 아닌가?

나도 언젠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금강산도 가 보고 백두산 천지에도 오를 그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모르는 어린 세대들이 늘기 전에 그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21C에는 통일된 한 국가로써 모든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나라, 모두 웃을 수 있는 나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가자, 가자!

박 해 정

상당고등학교 2학년

“가자, 가자!”

죽은 송장같은 어머니의 여윈 몸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해방촌 좁은 골목길까지 울려 퍼진다.

이것은 ‘오발탄’의 한 대목이다. 삼팔선이 그어지고 6·25 전쟁을 겪고 난 뒤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어머니의 생리화된 외침……。 한 순간에 자신의 고향을 빼앗아 버리고, 지주로서의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삼켜버린 전쟁과 분단은 결국 어머니를 정신이상이라는 구덩이로 몰아 넣었다. 이런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북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 십번씩 외치는 일 뿐 이었다.

나는 ‘오발탄’을 읽으면서 삶은 달걀 두 개를 입속에 꾸역꾸역 집어넣고 두어번 씹다가 그냥 삼켜버렸을 때처럼 가슴이 갑갑했다. 한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에게 총을 겨눈 결과, 그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이 작품에서 생생하게 진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사실 이 작품을 읽을 때만 해도 한 민족의 분단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불과 몇 십년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라

지만 그것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던 나에겐 그저 한여름밤 할머니
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처럼 멀고 아득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슬픔이 우리 가족의 일이고, 비로소 그것
이 나의 슬픔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던 것이다.

작년 1학년 때, 윤리 선생님께서 '나의 뿌리 찾기'라는 글자가
박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음~ 이 종이 받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은 했을
텐데, 이건 나의 뿌리 찾기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가족과 조상
에 대하여 알아보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마
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주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해오지 말고
집에 있는 족보를 찾아 보거나, 부모님께 여쭙어 보면서 진지하게
해 오도록!”

끝 종이 울리자,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윤리 태도 점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시며 교실 밖으로 사라지셨다.

난 귀찮아하며 엄마와 아빠께 친척분들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부
모님께선 모르신다고만 하셨다.

“엄마, 아빠!! 우리 집엔 족보도 없어요? 이런거 물어보면 맨날
모르신다고만 하시고, 아무렇게나 써 가는 것도 한 두 번이
지…….”

난 윤리 태도 점수에 반영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신경쓰여 짜
증을 냈다.

엄마는 나와 아빠를 번갈아 가며 쳐다 보시다가 조심스레 입을
여셨다.

“죽보는 여기 없어. 6·25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친척 분들은 북에 남아 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남한으로 내려오셨어.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셨고……. 죽보는 아마도 북한에 계신 가족 중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실거야. 그러니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봐.”

엄마께서 다시 입을 다무셨을 때, 잔뜩 인상을 찌푸렸던 나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전쟁과 분단이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아빠의 일이라는 것이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아빠께서 담배만 피우고 계셨고, 엄마는 아빠의 표정을 살피고 계셨다. 아빠도 6·25를 겪어보지않아 친척 분들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아빠와 할머니의 숨겨진 그리움과 아픔들을 발견하면서 전쟁과 분단을 가슴으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오발탄이라는 작품 속에서 북에 고향을 두고 미쳐버린 어머니 처럼 할머니도 혼자서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란 생각을 하니 할머니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나마 곁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아빠가 7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 땅을 밟으시게 될 날이 오리라 기대하며…….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결혼식 날에 다시 한번 그 슬픔을 되새겨야만 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의 모

습은 더 할 수 없이 예뻐지만 그런 언니를 향한 축복의 박수를 쳐 주던 사람들은 대부분 형부네 가족이었다.

우리 아빠 쪽 손님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쇠약해진 할머니와 큰아버지, 고모가 친가 쪽 친척의 전부였다. 내가 사랑하는 언니의 결혼식인데 이렇게 허전하고 초라하게 치뤄져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서글팠다.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리라 말씀하셨던 할머니께서는 이미 뼈만 앙상한 당신의 몸을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셨다. 소리없이 흐느끼면서…….

이젠 정말 통일이라는 것이 나의 일처럼 느껴진다. 가족 분들을 만날 수 없을지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소원을 풀어 드리고 싶다. 할머니는 자신의 발로 고향 땅을 밟고싶으신 것이다. 오래 전부터 다리가 아파 고생하셨던 할머니였지만 다리를 완전히 못 쓰시게 되기 전에 자신의 두 발로 고향 땅에 서고 싶으신 것이다.

이젠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아니 한낱 하찮은 미물이라도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이성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니까.

“가자. 가자!”

철호 어머니의 외침은 어찌면 할머니께서 하고 싶었던 절규인지도 모르겠다.

“가자, 가자. 북으로. 내 고향으로. 나의 가족이 있는 곳으

로…….”

철호 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 할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나의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번주 일요일에는 할머니를 찾아 뵙고 꼭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적어도 자신의 두 발로 고향 땅에 설 수 있는 그 날이 오기전까지는…….



도자기를 빚는 민족

하 연 정

청주상당고등학교 2학년

도공의 아침은 좋은 찰흙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황토 빛의 차진 흙을 그는 손의 촉감으로 고를 줄 안다. 그 찰흙을 잘 반죽하여 돌림판에 올려 놓고 그릇 모양을 만든다. 주둥이의 익살스러움과 밑의 우아함.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비대칭의 자연미까지 생각하며 머리 속으로 구상한 모양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어 입속까지 스며드는 땅의 맛도 느끼지 못한다. 어느 정도 건조시킨 다음 적당한 온도로 구워 낸다. 유약을 바른 후 다시 한 번 구워 낸 다음 무늬를 새긴다. 만약 약간의 흠이라도 있다면 그는 그 도자기를 부수어 버린다. 그 때 그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다. 몇 번의 조각 난 마음을 주워 모아 다시 시작할 때 비로서 제대로 된 도자기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인이 우러러 보는 바로 그 도자기다.

우리는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한 민족의 도자기는 금이 가고 깨져 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6·25 만은 달랐다. 한 민족간의 싸움 - 그래서 우리의 도자기는 더욱 짙은 피로 얼룩지고 깨지고 부서졌다. 뿐만 아니라 전

쟁 후에도 한 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여 서로 다른 이념의 이름 아래 각자 다른 길을 달렸다.

얼마나 흘렸을까? 분열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서로를 견제해야 하고, 말없이 눈치만 봐야 하고, 때론 가식적인 웃음으로 서로의 관심을 돌려야만 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그 피곤함에 지쳤고, 상대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에도 지쳤다. 그러나 민족의 분열로 파손된 도자기를 새 도자기로 바꿀 임무를 그 누구도 내지 못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서서히나마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지속해 우리는 한반도의 새 역사를 장식할 새 도자기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즉, 우리에게서 우리민족 모두가 도공이 되어 '통일 조국'이라는 이름의 도자기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선 도자기에 필요한 좋은 흙이 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땅을 딛고 사는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이며 명절이 비슷하고 언어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마음 속 깊은 곳의 생각 -예의 유교 사상 등- 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 재료를 만질 손길이 느긋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굳고 갈라지는 찰흙처럼 분단이 길어질수록 그것들은 우수한 틈으로 균열될 것이 분명하기에 말이다.

이제, 그 흙의 촉감을 손과 눈으로 더욱 자세히 느낄 차례다. 즉,

흡을 반죽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재 실태를 알아야 한다. 어떤 정책도 그 실상을 알아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기아 상태는 어느 정도 해결 되었는지, 몇 달 전 서해안의 경계선을 상습적으로 침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해외를 통해서라도 알아야 한다. 물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일부 관계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

반죽한 흡을 토대로 그릇 모양을 만드는 일은 통일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식량을 배급하고, 소를 보내며 금강산을 관광토록 하는 모든 것이 이 단계에 포함된다. 앞으로도 서로의 왕래를 늘리고 민간인들과의 거래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때론 약간의 거리를 두고 견제할 필요성은 있다. 일명 햇볕정책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도자기의 모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돌림판 위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마에 불을 지피고 도자기를 구울 차례다. 도자기가 완성되기 바로 직전, 우리는 통일로 가기 위한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야 한다. 50여년이나 단절되어 서로 변했던 언어와 국화, 국기, 명절 등을 서로의 합의하에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간의 마음의 벽을 서서히 허물고 어색함이 아닌 웃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약을 바르고 색칠을 하면서 도자기에 운기를 더한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휴전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철거되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 지구상에서 한 민족이라는 명예를 안고 갈라 서 있는 나라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도공의 노력과 혼이 담긴 땀방울을 경외할 줄 안다. 그리고 흙이 있고 티가 있는 도자기에서 그것을 빚은 자신의 정성과 손길이 부족했음을 아프게 깨달으며 과감히 흙집을 불 뒤에 밀어 넣은 강인한 장인 정신은 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이 두가지 정신이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정성과 노력, 그리고 통일 전후에 어깨에 짊어 질 짐을 이고 갈 수 있는 강인함.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만약 내게 우리의 통일 도자기의 하얀 표면에 감히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한반도 위에 힘차게 위로 솟구쳐 오르는 용 한 마리를 그리고 싶다.

통일이 오면

이 상 예

일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정치적 분단을 가져와 하나가 아닌 둘로 나뉘었다. 이러한 분단은 강대국들간의 세력 경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큰 원인은 불신과 적대감이다. 38선을 경계로 우리는 불신과 적대감으로 높은 벽을 만들고 서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단이란 것인가. 누구보다 하나이길 원하고 바라는 이가 우리인 것을,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나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우선,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해 준다. TV나 여러 방송에서 봐 온 것과 같이 이산가족의 슬픔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50여년 동안 자신의 핏줄과 고향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 아픔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만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또한 동족상잔의 전쟁의 공포도 해소될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6·25로 우리는 너무나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기를 만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너무나 크다. 남북한의 불필

요한 국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무기들을 만드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다. 통일이 되면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를 발전시킨다. 요즘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매우 불리하고 경제적이거나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나쁘게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른 한가지 면으로만 보더라도 북한의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그런데 그만큼 개발되지 않은 곳도 많다.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 시키기 위해 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조국 분단 상황과 북한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 지도층과 북한의 주민들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맹목적인 통일 지상주의나 비관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은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사례가 많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는 커녕 끼니를 거르기 일쑤다. 그러나 지도층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배고픔을 참아야 할 때 그들은 가무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북한은 사회 전체적으로 평등하지 못하고 격차가 심하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한 체제의 개방을 유도하여야 한다. 북한의

생활이나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억압받고 갇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스럽지도 못하다. 그런 만큼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닫힌 문이라고 자신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은 영영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다가가 북한 체제의 개방성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국제정세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중립화 통일을 한 오스트리아, 공산화 무력 통일한 베트남, 외형적 합의에 의한 예멘의 통일과 흡수 통일된 독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가 다시 통일되는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더 이해되고 알 수 있는 점도 많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 그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외형적 통일이나 무력 통일은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단 지역 주민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통일이 되면 나타날 몇 가지 사례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통일이 되면 남한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부의 신장과 국민들의 민주 의식이 성장될 것이고 북한은 폐쇄성이 남아 있으나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의 슬픔을 없게 해주고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통일은 이제 우리의 일이다. 더 이상 지체되어서도 안될 꼭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통일을 하루 빨리 이룩해야 하듯 우리도 항

21세기 통일의 당위성

정 윤 주

일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21세기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의 중요성을 잊은 채 지금 분단 국가의 현실에만 안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 문제이다.

그럼, 통일은 무슨 이유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다음을 통해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의 단일 민족을 형성해 왔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수 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단결성과 우수한 문화를 꽃 피워 하나의 단일 민족을 이룩하였고, 계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대립하며 분쟁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을 이룩해 온 우리가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이제까지의 불신감 및 적대감을 이해와 협력으로 관계를 도모하여 예전의 민족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 국가로서의 50년. 그 시간동안 북한과 남한은 나름대로의 정책

을 펼쳐왔다. 그 결과로 두 분단 국가의 이질화가 심화되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언어이다. 통일이 되면 언어로 인해 대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으나 새로운 국어 개정법을 편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질화가 더 심화된다면 그만큼 동질성 회복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통일을 이룩하여 시급히 동질성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와 전쟁의 공포에서의 탈피를 위해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분단 이래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당연히 이산가족의 문제이다. 6·25 이후 많은 동포들이 자신의 가족과 떨어져 전쟁을 피하기 위해 피난을 떠났다. 전쟁이 휴전되자 사람들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소식조차 알 수 없어 생사여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향민들은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남·북한 이산가족의 수를 종합해 보면 1천만명이라는 거대한 수가 나온다. 이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을 하는 슬픔과 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에서 탈피하기 위해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총을 겨누게 된다. 나의 부모일지도 모르고 나의 형제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동족 상잔의 슬픔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이 되면 하나의 국가로서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

기에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감으로 인해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를 테면 군인 인력·무기를 충당하기 위해 쓰이는 군사 자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통일을 이룩하여 이런 낭비되는 국력을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 통일 국가는 많은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또한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일 경우 통일이 되면 많은 부분이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에 이 또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평화적 문제로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국가가 분단이 되었던 시점에서 부터 현재 까지 많은 부분이 국제화 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 및 이질화가 더욱 심화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제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후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제 정세에 신뢰도가 작아져 국내 정세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동북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는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남·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 문제점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통일을 이룩하여 이산 가족의 고통도, 전쟁의 공포도 없는, 더욱 발전된 통일국가를 이루어 국제 정세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소망을 담은 편지

이 은 자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북녘 땅 어딘가에 살고 있는 나의 어린 벗에게
안녕?

나는 한반도 이남의 제주도라는 섬에 살고 있는 이은자라는 여
고생이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나의 소망이 하늘에 닿아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는거야. 부
디 나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누군가가 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날
이 오기를 바라며... 그런데 내 소망이 뭔지 궁금하지 않니?

그것은 바로 나의 소망이자 온 겨레의 숙원인 통일이야. 물론 나
도 처음엔 '우리 민족의 통일'이란 것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 사
실이야.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산
가족의 아픔이니, 우리 민족의 비극이니 하는 얘기들은 나에게 절
실히 다가오지 않았어. 나와는 상관없는 남들 얘기니까 아예 무관
심했던거지. 오히려 통일이 되면 생기게 될 많은 사회 혼란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

지금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그러니 굳이 통일을 해
서 지금의 삶의 질서를 깨뜨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을 했던

거지. 하지만 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지.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되었냐구? 그건 내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계시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 분의 슬픔을 공감하게 되면서 나 역시 우리의 숙원인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어. 내가 그 할아버지를 알게 된건 현대그룹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던 시기였어. 그래서 친구들과 하교길에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 때의 내 생각은 그랬어. 뭐하러 북한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를 하면 북한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북한에선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고 군사력 증강에만 힘을 쏟을 것이 뻔한데, 지금 그 일을 돕고 있는 꼴이니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에 소떼를 준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북한에 식량을 보낸 것도 난 못마땅했어. 기껏 식량을 보내 살려 놨더니 나중에 남한을 침략하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거지.

그래서 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친구들에게 말했어. 북한엔 아무런 투자도 원조도 해서는 안된다고 나중에 분명 우리에게 해꼬지 할 거라고... 그런데 내가 많이 흥분했었나봐. 내 목소리가 너무 커진거야. 그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셨어. 아마 내가 한 말을 모두 듣고 계셨나봐.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학생, 내가 학생이 너무 진지하게 말하길래 학생 말을 모두 듣고 있었는데, 내 생각엔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학생 말처럼 북한 사람들이 모두 전쟁을 바라는 것은 아니야. 물론 지도층에서는 남한을 침략해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지. 그들도 우리처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일을 바라지는 않을거야.

다만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필요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도와줘야 하는거야. 우리 꿈을래야 꿈을 수 없는 질기디질긴 끈으로 이어져 있는 한 핏줄 한 민족이니까 말이야. 나역시 어릴적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바라지도 않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내 고향 북녘 땅을 한번 밟아보는게 내 평생의 소원인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꿈도 못꾸는 처지이지만 내 핏줄 내 민족이 굶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 어떻게든 능력이 되는데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돈을 기부할 생각이야. 그게 내가 고향 땅을 한 번 밟아보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 내 가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나는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잘못된 역사의 흐름속에 희생자가 되어버린 할아버지의 슬픔을... 그때서야 비로소 난 할아버지의 아픔을, 아니 이산가족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지. 할아버지의 아픔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난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

로 돌아왔어. 저녁 식사를 하라는 엄마의 말씀에도 아랑곳 없이 난 그냥 내 방 책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지.

내 마음속은 온통 하교길에 봤던 그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거든. 그래서 난 생각했어. 어쩔 우리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는 내가 오늘 그 할아버지의 아픔을 공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겐 꿀을래야 꿀을 수 없는 질기디질긴 한 민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애를 쓰게 하는 동족애를 갖게 하는 원천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말이야. 물론 지금의 현실을 보면 동족애하는 것이 순수하고 인도주의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남한과 북한에서 동족애를 표방하며 서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갖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식량을 지원하고 또 그룹의 입장에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주긴 했지만, 그것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입장과 경제적인 이윤추구가 깔려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정작 아픔의 주인공들인 이산가족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 회담도 결렬되는 것이잖아. 물론 적십자 단체 같이 순수한 동족애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원조해 주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야. 내 생각은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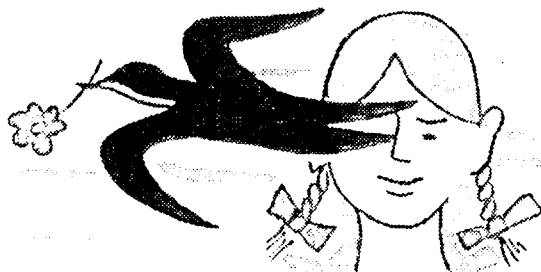
순수한 마음으로 동족애를 발휘하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통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구상에서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분단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 이 두 나라 뿐이었잖아. 그런데도 지금 통일을 이룬 나라는 독일 뿐이야. 그들도 열강의 개입과 이념차로 인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지만 동족애를 바탕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결국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었잖아. 그러니 남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통일을 염원하면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염원만 한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해. 서로가 통일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떤 노력이냐구? 그건 말이야. 남북한 모두가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서로 이해하며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도를 찾는거지. 회담을 한다던가,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약간씩 개방을 해 나간다던가 말이야. 물론 이때는 서로의 이익을 배제하고 서로가 양보, 배려해야 될거야. 그리고 이런 정부 차원에서 노력만이 아니라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동질감을 바탕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꺼야.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겠지.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 후 모두가 통일이 되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해. 국토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 말이야.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겠지. 물론 그때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겠지. 그러나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꼭 진정

한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난 확신해. 너도 내 생각에 동감하지?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봐. 통일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면 늘 이렇다니까. 이제 얼마 없으면 곧 21세기야. 언젠가,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꼭 이 편지를 북한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읽어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제 그만 쓸까해. 만약 그날이 와서 누군가 내 편지를 읽은 사람이 내가 아닌 또 누군가에게 답장을 쓸 때는 통일을 맞은 기쁜 마음을 전했으면해.

그럼 오늘은 이만 쓸게.

-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의 어느날 제주에서 은자 씬 -



최전방에서의 하루

허 현 미

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앞에 놓여 있는 모형물 한 쪽의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예, 여기가 바로 개성시입니다. 여기서 10k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꽤 가까운 거리다. 지금 여기서 내가 사는 제주도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다. 그럼에도 갈 수 없는 것은 차비가 없다거나, 수송기관이 없다거나, 시간이 없어서는 아닐 것이다. 모형물의 휴전선만이 내 눈에 비춰진다.

안보 견학, 이번 여름 방학에 내게 주어진 기회. 흔치 않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좋았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서해안 총격전 때도, 햇볕정책에 대해 한창 떠들어 댈 때도, 난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었다. 우리 나라 분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6·25전쟁 1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른들에 비하면 통일에 관심도 없고 통일의 필요성 역시 심각하게 느껴본 적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꽤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았다. 단 1박 2일간이지만 조금은 분단에 대해 알게 해줄 기회라

믿었다.

군인 아저씨의 설명이 끝나면서 모형물 전구의 불도 모두 꺼졌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관람해도 좋다는 소리에 모두들 망원경 쪽으로 향한다. 나도 망원경을 통하여 북한을 보았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뚜렷이 보인다. 북한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나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동안 계속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발길을 옮겼다.

다음 목적지는 판문점. 아까 갔었던 '도라 전망대' 보다 훨씬 기대했던 곳이다. 버스는 서서히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다. 남·북 회담이 이루어지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하지만 버스는 나의 들뜬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탄 길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체가 떠내려 와서 그것을 돌려 주기 위한 작업이 판문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갈 수가 없다고 한다. 실망이 컸다. 이번 기회가 가버리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리라는 것은 미지수인데… 아쉬움은 많았지만 들뜬 마음을 가라 앉힐 수 밖에 없었다. 찾길을 나란히 장식하고 있는 골게 자란 소나무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버스는 판문점에 가는 대신 임진각으로 향한다. 수학여행 때도 한 번 찾았던 곳이었다. 5개월 동안 변한 건 없었다. '자유의 다

리'가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북쪽 땅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모든 게 그대로이다.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5개월 전의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빌어본다. 다음에 내가 다시 이곳을 찾을 때에는 저 '자유의 다리'가 제발 제 이름 값을 발휘하도록.....

그때 까치 한 마리가 어디에선가 날아 왔다. 그리고는 나무 위에 가만히 앉는다. 슬픈 눈으로 한 곳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도 까치가 보고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려 보았다. 그 쪽은 북녘 하늘.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이지만 그 까치는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다. 조그맣지만 슬프고 강렬했던 그 눈빛은 내 가슴에 시리게 다가왔다.

버스는 다시, 강화도로 향한다. 오늘 우리가 묵을 숙소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강화 안보 수련원. 모든 게 깔끔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순자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북한에서의 자기 삶. 귀순하기 위해 겪었던 일들. 귀순자들이 겪었던 아픔이 조금씩 느껴졌다. 그 분은 끝으로 지금 남한은 참 자유로운 민주 국가라고 하셨다. 민주 국가? 난 그 동안 우리 나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살았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 국가의 참 모습일까, 의심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잊고 있었나 보다. 나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 분의 말씀이 끝나고 질문으로 이어졌다. 오늘 북한에서 떠나려 온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 분께서는 그런 일쯤은

거의 일상사 처럼 일어난다고 하셨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중 한국으로 귀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한 군의 총에 의해 죽거나 미국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 충격이었다. 아무런 이유없이 분단 된 나라의 희생물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다. 아,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여운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은 떠오르지 않는다.

아까 까치가 바라보던 북녘 하늘을 생각하며 분단 된 아픔이 씻어질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본다. 내일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과...

용 선 영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오늘 오전 쌀을 실은 ××호가 북한을 향해...”

나는 이 뉴스를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으휴~ 우리나라 정말 왜이러는거야?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왜 쓸데 없이 저 아까운 쌀을 북한에 보내는지, 원...”

혼자 투덜대는 나를 보신 아버지께선

“왜 선영이는 저 쌀을 북한에 보내는게 아깝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다.

“솔직히 북한은 맨날 우리나라 골탕먹이고 남침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보처럼 쌀이나 보내고 도움만 주장아요. 억울하게...”

나는 당연한 듯이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런 내 대답이 아버지를 놀라게 한건지, 아버지께선 내 대답에 이어 무언가를 열심히 찾으셨다. 한참 후에 여러개 쌓여 있던 비디오테이프 중 하나를 꺼내셨다.

“이거다.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께선 의아한 눈으로 보는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빠가 이 테이프 하나로 이제까지 갖고 있던 선영이의 생각을 180° 바꿔놓을 자신있는데… 어때, 선영인 자신있니”

아버지의 속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난 자신있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 생각 변함없을걸요?”

아버지께선 나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시며 비디오를 재생시키셨다.

그 테이프의 내용은 첫 장면부터 나를 그 속안으로 빨려들어 가게 하기에 충분했다.

깡마른 팔과 다리, 푹 튀어나온 눈과 배, 더 이상 황인종같지 않은 까만 피부… 그런 모습들이 내가 보는 테이프안에는 담겨 있었다.

전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어떻게 찍었는지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이용한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정말 배고파 죽겠습니다…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북한 좀 살려주시라요…”라는 간절한 목소리에 이어 울음이 터져나왔다. 몇 명이 인터뷰를 했지만 모두 똑같은 뜻의 비슷한 대답이었다.

하루 끼니는 배급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고,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사람 수만해도 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처럼 배고플 때 먹고, 군것질을 하는 것처럼, 먹고 싶을 때 자유롭게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며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편견, 먹을게 없다고 투정부리던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에 대해 새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천원이면 그들에게 좀더 좋은 음식을 배부러 먹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북한에 보내는 쌀을 기쁜 마음으로 보낸다면 그들은 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을텐데...

녹화해 놓은 내용이 다 끝나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며 물으셨다.

“어떠냐? 이걸 본 소감이...”

나는 한참동안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한참 후에야 나는 겨우 아버지의 물음에 입을 열 수 있었다.

“저런 생활을 하는건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많은걸 느꼈어요. 이젠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빠가 원하는걸 선영이가 제대로 느껴줬구나. 그런데 한 가지 ... 언제까지 남한은 우리나라고 북한은 딴나라 취급할꺼니?”

그랬다. 말하면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는 북한을 딴나라 취급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 나라,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야 하는 의무감 같은 것이 내 마음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가 적대시 않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식량난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서로를 노려보는 일이 통일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분명 그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북한관 안내

경 남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동 485
자유회관 (0551)282-2332~3

고 성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 (0392)681-0885

광 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 (062)525-7722

부 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 (051)808-7960~3

양 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불지구 (0364)481-9021

오두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통일전망대 (0348)945-3171

인 천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자유회관 (032)868-0113~5

임진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0348)952-7575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968-2
자유회관 (064)751-0191

철 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 (0353)455-3129

청 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 (0431)256-5050

내 마음속의 통일바라기꽃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901-7020 Fax : 901-7024

발행일: 1999년 12월 29일

인쇄처: 양동문화사 (2266-0892)

비매품